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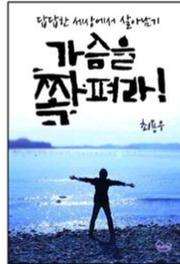
최용우 책방

최용우 책방

최용우의 책을 소개합니다

KYOBO 교보문고 **최용우** Q
교보문고에서 '최용우' 검색하세요

1. 햇별같은 이야기



⑪ 가슴을 짝 찢어라!

답답한 세상에서 살아남기-남자든 여자든 풍성한 가슴은 자부심이죠 ^^ 가슴을 짝 찢면 폐기능이 풍성하게 활성화되어 자신감이 생기고 의욕이 부풀어 오릅니다.

279편의 자신감 회복 글 모음
11,600원 308쪽 펴플



⑫ 다시 벌떡 일어나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드러누워서 세상 밑바닥만 쳐다보면 온통 똥물은 구두만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당장 벌떡 일어나 뛰면 역전할 수 있어요. 안 늦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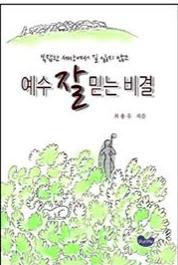
286편의 도전 글모음
12,400원 336쪽 펴플



⑬ 정정당당 잘 살자

힘없고 뺨 없고 돈 없어서 억울한 '일인'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공의를 행하며 쪽팔리지 않게 정정당당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286편의 정정당당 글 모음
12,400원 336쪽 펴플



⑭ 예수 잘 믿는 비결

복잡한 세상에서 길 잃지 않고-온갖 가짜들이 미혹하고,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세상에서 진짜를 분별하고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비결입니다.

288편의 순수 복음글 모음
12,100원 326쪽 펴플



⑮ 가장 큰 선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그분 안에서 행통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288편의 행통의 글 모음
12,100원 326쪽 펴플



⑯ 인생 최대의 행복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인생 최대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을 누리며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참된 신앙생활 비법 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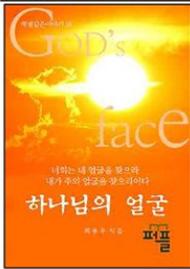
280편의 신앙생활 글 모음
11,800원 316쪽 펴플



⑰ 나도 할 말 있다 나옹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만약 내 생애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기고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처럼 막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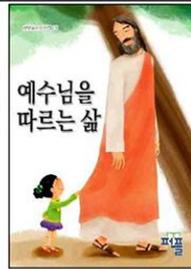
285편의 새로운 생활 글 모음
11,900원 318쪽 펴플



18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밖에 모
르시는 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
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
리의 모든 인생문제는 모두 해결
됩니다.

288편의 깊은영성 글 모음
12,100원 326쪽 펴플



19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
을 따라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인지 고민하면서 일년동안 쓴 글

288편의 예수 따름의 글 모음
12,200원 328쪽 펴플



20 예수 나의 형통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형통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무조건 형통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
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288편의 예수형통 글 모음
12,200원 328쪽 펴플



21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라서 외로워 눈물 흘릴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그때 주님은 나
를 업고 고난의 강을 건너고 계셨
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네.

288편의 하나님과 동행 글 모음
14,300원 320쪽 펴플



22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죄의 유혹에
서 벗어나 성결한 삶을 살 수 있
으며,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
인이 될 수 있습니다.

288편의 예수 동행 글 모음
14,600원 326쪽 펴플



23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을 환
영합니다. 성령님! 저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소서. 신자는 성령님이 계셔서 성
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288편의 성령님과 동행 글 모음
15,000원 318쪽 펴플



24 주님과 회동하는 삶

하동, 예동, 성동의 핵심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 보좌에 회동(會同)하
시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임재'
(臨在)입니다. 제 마음속 의자에 하
나님께서 회동하시어 조곤조곤 나
는 288편의 이야기 모음

15,000원 320쪽 펴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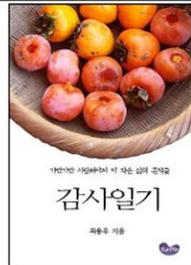


1 한사코 사랑하자

기독교 신앙의 정점은 우리도 하
나님처럼 한사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
를 푸는 열쇠입니다. '햇별같은이
야기' 글 중에 '사랑'을 주제로 쓴
279편을 모았습니다.

(편집중) 3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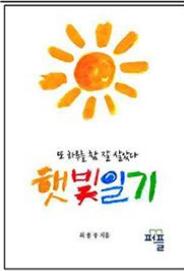
2. 일기 시리즈



7 감사일기

가만가만 사랑해가지 이 작은 삶의
흔적들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를
한 개씩 주워 모아 365개를 바구니
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별게 다 감사꺼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재미있는 책!

14,100원 392쪽 펴플



⑧ 햇빛일기

흰구름 떠가는 파란 하늘에 햇빛이 밝아 세상이 보송보송 부드러운 공기를 마시니 또 하루를 참 잘 살았구나. 주변의 사물들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보고 사색한 366편의 순수한 기록
14,100원 396쪽 펴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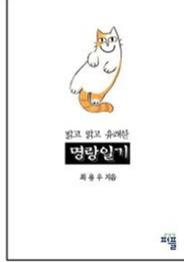
⑨ 행복일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이 세상 곳곳에 다른 모습으로 숨어있는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숨바꼭질처럼, 때로는 놀이처럼 일년 동안 열심히 찾은 365편의 따뜻한 행복글 모음
14,200원 396쪽 펴플



⑩ 풍경일기

풍경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걸어가면 거리가 숨을 쉽니다. 발길 닿는 곳엔 연초록빛 번지고요 햇살도 바람도 그의 등을 기댁니다. 아름다운 수채화 같은 365편의 진실한 이야기
14,300원 400쪽 펴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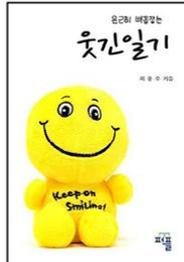
⑪ 명랑일기

밝고 맑고 유쾌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 하면서 이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가는 이야기. 삶이 뭐 별건가요?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지요. 읽다보면 저절로 웃음이 지어지는 365편의 명랑한 이야기
15,200원 396쪽 펴플



⑫ 바보일기

나는 멍청하고 멍청하여라. 나 홀로 바보 같고 비루하구나. -라던 노자(老子)는 지금도 살아있는데, 당대에 빛나고 똑똑했던 그 많은 자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365편의 바보같은 이야기
23,900원 394쪽(컬러) 펴플



⑬ 웃기일기

우리의 삶은 신비와 재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렇게 삶 가운데서 자세히 보고 쓴 365편의 은근히 배꼽잡는 웃긴 이야기
23,800원 396쪽(컬러) 펴플



⑭ 여유일기

맘대로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가족들한테도 소홀히 하게 되는 바쁨이 과연 정상인가?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 '열심히'도 병이다. 여유롭게 천천히 쓴 365편의 이야기
23,800원 396쪽(컬러) 펴플



⑮ 오두막 일기

활짝 핀 밤꽃 향기 멀리서 날아오고 내 주님 달콤 향기 멀리서 불어오네. 꽃향기 주님 향기 가득 충만한 내 작은 오두막집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네. 햇별이 머무는 집에서 쓴 365편의 이야기
24,000원 398쪽(컬러) 펴플

3. 시집 시리즈



① 숲속의 아침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집을 나와 갈 곳 없어 방황하며 공인 의자에서, 도서관에서, 산속에서 수첩에 끄적거리며 눈물로 썼던 시를 모아 첫 번째 시집으로 묶었습니다.
7,200원 138쪽 펴플



② 설레임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담백하게 그려낸 쉽고 유쾌하고
재미있고 심장이 벌떡거릴 만큼
감동적인 시집. 이 세상이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설레임으로 가득
한 곳인지 깨닫게 됩니다.
6,700원 146쪽 펴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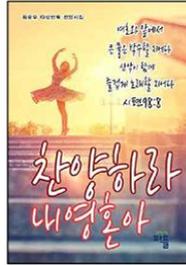
③ 어부동의 아침

그림처럼 아름답고 깨끗하고 조용
하던 작은 산골마을을 어부동에 살
면서 호숫가를 거닐며 쓴 맑고 밝
고 환하고 시원한 시. 기분이 밝
아지고 세상이 온통 푸르름으로
가득해집니다.
7,600원 150쪽 펴플



④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인격
적인 교제를 나누는 실제적인 기
도들. 그냥 따라 읽다보면 어느새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위
로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16,300원 398쪽 펴플



⑤ 찬양하라 내영혼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무엇
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일 그보
다 더 급한 일은 없으니 오늘도
입으로 말로 글로 아침에도 점심
에도 저녁에도 주님을 찬양합니
다. 오 주여 할렐루야.
14,300원 398쪽 펴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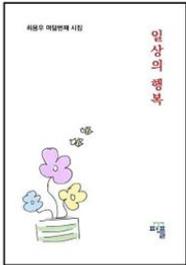
⑥ 천변을 부른주님 내입에는 찬양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처럼
저는 주님을 부르며 찬양하는 시
를 일천편 써서 일천번제를 드리
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
를 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
혜를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34,600원 1044쪽 펴플



⑦ 우리 커피한잔 할까요?

한 잔의 커피에는 따뜻함과 부드
러움이 한 가득 담겨있네, 한 잔
의 커피에는 쓴맛과 단맛이 나를
사로잡네, 한 잔의 커피에 여유와
자유가 향기로 피어오르네, 우리 커피
한 잔 할까요?
11,300원 168쪽(컬러) 펴플



⑧ 일상의 행복

오늘 나는 참 잘 살았다. 아무 일
없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임하
신 하나님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따라 찾아보는 즐거움과 행
복을 단순하게 보여주는 담백한
시집입니다.
13,600원 210쪽(컬러) 펴플



⑨ 일출봉에 햇별이 썩하오

세종시 금남면 용포쑥티마을 뒷산
인 비화산 일출봉을 한번 오를 때
마다 한편씩 시를 썼습니다. 꽃과
벌레와 동물과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애기들이 정겹고
아름다운 시가 되었습니다.
13,600원 210쪽(컬러) 펴플



⑩ 일상의 기쁨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
운데 '기쁨'을 가득 숨겨놓으셨습
니다. 이 시집은 일상에서 찾은 평
범하면서도 시시하면서도 가만히
마음을 열어주고 보듬어주는 담백
한 시집입니다.
13,400원 210쪽(컬러) 펴플



⑪ 아내에게 바치는 시

저는 결혼을 하면서 '아내에게 바
치는 시 100편'을 써주기로 약속
했습니다. 결혼 30년만에 200편
의 시를 장미꽃과 함께 바칩니다.
긴 시간 함께 살아준 진주 같은
아내에게 사랑도 함께 전합니다.
15,000원 220쪽(컬러) 펴플

최용우 일상의 기적

일상의 기적

15,000원 210쪽(컬러) 퍼플

⑫ 일상의 기적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살짝 숨어있는 소소한 기적의 순간들을 찾아 적어 본 담백한 시집입니다.
15,000원 210쪽(컬러) 퍼플

최용우 일상의 기적 2024년판

꽃봄봄꽃

14,100원 400쪽 퍼플

꽃봄봄꽃

코딱지처럼 한 질 또는 두 질로 된 아주 짧은 최용우의 시를 이인숙이 켈리그라피 글씨로 예쁘게 써서 만들었습니다. 마치 광고가 피처럼 짙고 강하게 가슴을 울리는 여운으로 남는 글꽃입니다.
(편집중)

4. 말씀묵상 시리즈



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 아침밥2

17,300원 398쪽 퍼플

② 따뜻한 밥상-아침밥2

하룻동안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따뜻한 말씀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거르면 몸이 상하듯 말씀 밥상도 거르면 안 됩니다. 밥 드세요 역대상 12장부터 예언서 전체를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7,300원 398쪽 퍼플

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 점심밥1

14,100원 400쪽 퍼플

③ 따뜻한 밥상-점심밥1

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 -하루 한쪽 1분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단순히 읽기만 해도 영혼에 양식이 되는 순수 말씀 중심의 묵상집입니다. 시편 전체를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4,100원 400쪽 퍼플

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 점심밥2

14,100원 400쪽 퍼플

④ 따뜻한 밥상-점심밥2

묵상은 갈대기와 같아서 단순히 그냥 흘려 보내기만 해도 머리의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변화는 머리로 되지 않고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4,100원 400쪽 퍼플

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 저녁밥1

14,100원 400쪽 퍼플

⑤ 따뜻한 밥상-저녁밥1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 따라 신학적 교리적 조미료 치지 아니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읽은 쉬운 말씀묵상 마태복음-마가복음을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4,100원 400쪽 퍼플

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 저녁밥2

17,300원 398쪽 퍼플

⑥ 따뜻한 밥상-저녁밥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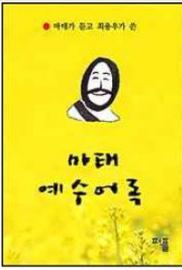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했습니다. 눅-요한복음을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7,300원 398쪽 퍼플

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 저녁밥3

17,300원 398쪽 퍼플

⑦ 따뜻한 밥상-저녁밥2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했습니다. 눅-요한복음을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7,300원 398쪽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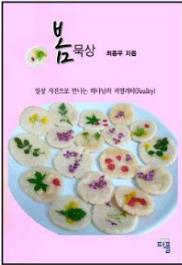
① 마태 예수어록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서 빨간색으로 인쇄된 예수님의 말씀 구절만 모두 뽑아 아침마다 한 절씩 묵상하고 주신 은혜와 감동과 능력을 받아 적어 모았습니다. 28,000원 692쪽 퍼플



② 마가 예수어록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에서 빨간색으로 인쇄된 예수님의 말씀 구절만 모두 뽑아 아침마다 한 절씩 묵상하고 주신 은혜와 감동과 능력을 받아 적어 모았습니다. 15,000원 324쪽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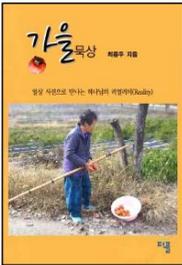
① 봄 묵상

일상 사진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리얼리티(reality) 13년 동안 일상의 모습을 찍어서 '기독교바탕화면'을 만들었던 사진 중에서 봄사진 200장을 골라 묵상글과 함께 편집하였습니다.(3월 예정) (편집중)



② 여름 묵상

일상 사진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리얼리티(reality) 13년 동안 일상의 모습을 찍어서 '기독교바탕화면'을 만들었던 사진 중에서 여름 사진 200장을 골라 묵상글과 함께 편집하였습니다.(6월 예정) (편집중)



③ 가을 묵상

일상 사진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리얼리티(reality) 13년 동안 일상의 모습을 찍어서 '기독교바탕화면'을 만들었던 사진 중에서 가을 사진 200장을 골라 묵상글과 함께 편집하였습니다.(9월) 13,900원 218쪽(컬러)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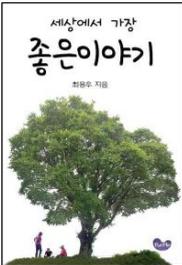
④ 겨울 묵상

일상 사진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리얼리티(reality) 13년 동안 일상의 모습을 찍어서 '기독교바탕화면'을 만들었던 사진 중에서 겨울 사진 200장을 골라 묵상글과 함께 편집하였습니다. 13,900원 218쪽(컬러)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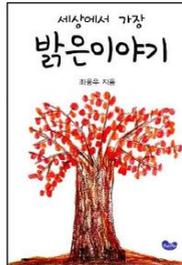
새벽우물

얼어붙은 내 영혼 내면의 바다를 깨부수는 한 자루 도끼와 같은 책! 총총히 맑은 물 채운 새벽우물! 햇별1980호부터 3501호 까지 1422편 단행본 5권 분량을 한권으로 크게 묶었습니다. 28,700원 878쪽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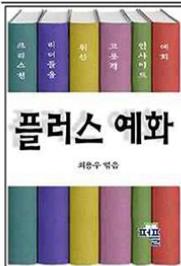
세상에서 가장 좋은이야기

매일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국의 14만 독자들에게 메일로 발송하였던 햇별같은이야기 아침편지 1호-1019호까지 4년 분량 1019편의 좋은 글을 읽기 좋게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24,000원 722쪽 퍼플



세상에서 가장 밝은이야기

매일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국의 14만 독자들에게 메일로 발송하였던 햇별같은이야기 아침편지 1020호-1979호까지 5년분 960편의 밝은 글을 읽기 좋게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23,900원 720쪽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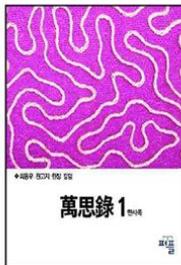
플러스 예화

두란노서원에서 매일 펴내는 큐티
 목상집 월간<생명의삶>의 <목상
 과 적용>코너에 17개월 동안 썼던
 예화 452편을 모은 크리스천 리더
 들을 위한 고품격 inside 예화로
 많은 교훈을 얻을수 있습니다.
 17,000원 490쪽 펄플



십자가 목상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에 대해 깊이 목상한 글
 100편. 하나님은 십자가 외에 우
 리에게 다른 구원의 방법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편집중) 150쪽



만사록1권-생각

최용우 원고지 한장 칼럼 -만사록
 1권은 생각, 열매, 선물, 행복 네가지
 주제로 쓴 1000편의 포도알 같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오직 사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생각
 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15,000원 304쪽 펄플



만사록2권-마음

최용우 원고지 한장 칼럼 -만사록
 2권은 마음, 믿음, 겸손, 순종 네가지
 주제로 쓴 1000편의 조약돌 같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생각은 마
 음의 바구니에 담습니다. '저에게
 생각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편집중>

6. 주보자료 시리즈



① 맛있는 주보+파일

매주 주보 만드느라 얼마나 힘드
 세요? 보고 나서 모아두고 싶을
 만큼 내용이 알차고 보기 좋고 영
 양가 만점인 맛있는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할수 있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펄플



② 맛있는 주보+파일

주보는 교회의 얼굴이요 이미지입
 니다. 주보는 교회의 문화요 거울
 이요 역사를 담는 그릇입니다. 멋
 지고 근사한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
 드 하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펄플



③ 폼나는 주보+파일

디자인 주보는 시각적 효과를 뇌에
 각인시키지만 내용중심 주보는 지
 성을 자극하고 행동을 이끌어내요
 내용 중심의 폼나는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펄플



④ 탐나는 주보+파일

9가지 내용이 실려 있어 누구나
 탐낼 만 한 알찬 주보를 교회 이
 름만 바꾸어 우리교회에서 만든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 52
 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펄플



⑤ 양육주보+파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여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
 육한다는 주제에 맞추어 편집한
 양육 중심의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
 드 할 수있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펄플

주보자료실

전도 주보

주보주제



파일명

⑥전도주보+파일

무조건 전도하자! 죽기 살기로 전도하자. 주보로 전도할 수 있도록 매주 다른 내용의 전도지를 담은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퍼플

주보자료실

명품 주보

주보주제



파일명

⑦명품주보+파일

하나님 앞에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글을 읽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의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퍼플

주보자료실

좋은 주보

주보주제



파일명

⑧좋은주보+파일

사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좋은 신앙인이 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는 좋은 영성의 글들을 모아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퍼플

주보자료실

감사 주보

주보주제



파일명

⑨감사주보+파일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이며 신앙생활의 기본은 감사입니다. 1년 동안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귀에 감사가 박히도록 하는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퍼플

주보자료실

기도 주보

주보주제



파일명

⑩기도주보+파일

기도주보는 한국교회에 다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에 관한 내용을 가득 담은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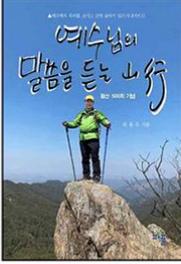
14,000원 220쪽(컬러) 퍼플

기독교인용	내내카-퍼
기독교인용	신앙카-퍼
기독교인용	제이카-퍼
기독교인용	꿈예카-퍼
기독교인용	진리카-퍼
기독교인용	영애카-퍼
기독교인용	숨겨진카-퍼
기독교인용	베스트카-퍼
기독교인용	중성카-퍼
기독교인용	숨겨진카-퍼

주보자료1-10 USB

주보자료 1-10권을 USB에 담았습니다. 10년 동안 주보를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보를 만드는데 필요한 각종 참고 문서 자료 10기가 이상 되었습니다.(책 파일 1천권 포함됨)
16G USB 1개 100,000원

7. 기타 무료제공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등산-생각이 맑아지고 정신이 순수해지고 영혼은 칼끝에 선 바람처럼 자유롭네. 2004년부터 17년 동안 500회 등산을 하면서 때로는 바람으로, 향기로 다가와 말씀하시는 주님과와의 산행기록
31,800원 534쪽(올컬러) 퍼플

고적고적



고적고적

読者生存
010-742-1482 151

[무료]고적노트

성경책 크기인 A5 크기의 무엇이든지 고적고적 할 수 있는 다용도 프리노트이다. 홈페이지 엄청난자료실(cyw.pe.kr)에서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아 프린트하여 노트를 만들어 사용하면 된다.
무료 40쪽 들꽃편지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감사합니다



1년 52주분
010-742-1482 151

48쪽
가을
겨울

[무료]일천감사노트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처럼 일천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든 노트이다. 홈페이지 엄청난자료실(cyw.pe.kr)에서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프린트 하여 사용하면 된다.
무료 48쪽 들꽃편지

정기간행물 월간



〈드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드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후원 국민은행 214-21-0389-661 최용우 구독신청 010-7162-3514 문자

〈드꽃편지〉과월호 -교보문고(인터넷)에서 판매중입니다



1권 (1-61)
508쪽 18600원



2권 (62-128)
504쪽 21200원



3권 (129-183)
508쪽 21100원



4권 (184-215)
512쪽 21300원



5권 (216-231)
528쪽 21900원



6권 (232-249)
504쪽 21000원



7권 (250-290)
510쪽 21000원



8권 (291-343)
514쪽 21100원



9권 (344-407)
510쪽 21000원



10권 (408-455)
504쪽 21000원



11권 (456-478)
506쪽 21000원



12권 (479-501)
504쪽 21000원



13권 (502-524)
512쪽 21300원



14권 (525-543)
508쪽 21000원



15권 (544-561)
510쪽 30200(컬)



16권 (562-579)
510쪽 30200(컬)



17권 (580-597)
510쪽 30200(컬)



18권 (598-615)
510쪽 30200(컬)



19권 (616-633)
510쪽 30200(컬)



20권 (634-651)
510쪽 30200(컬)



21권 (652-670)
510쪽 30200(컬)



고적고적



고적고적



고적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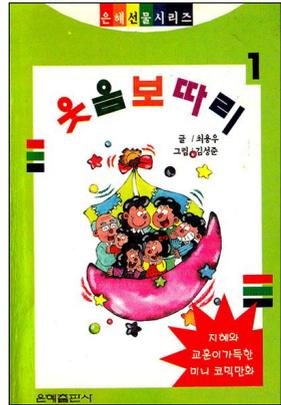
1. 책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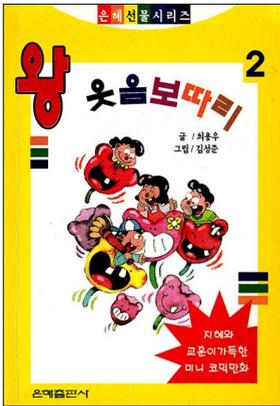
1. 웃음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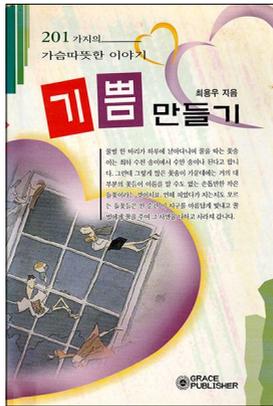
2. 사랑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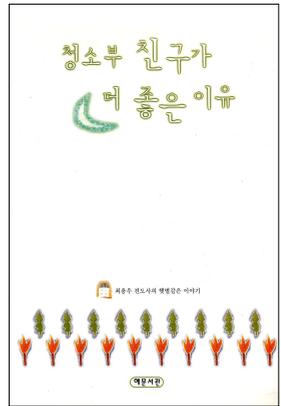
3. 웃음 보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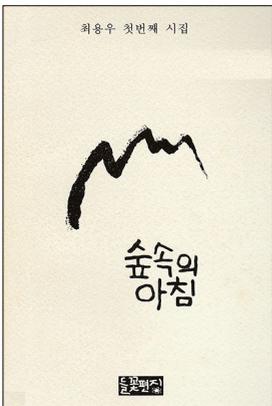
4. 왕웃음 보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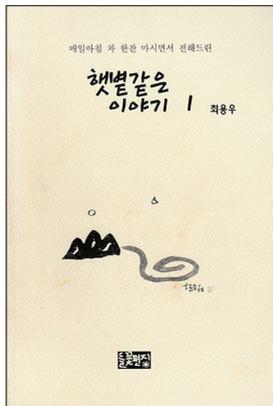
5. 기쁨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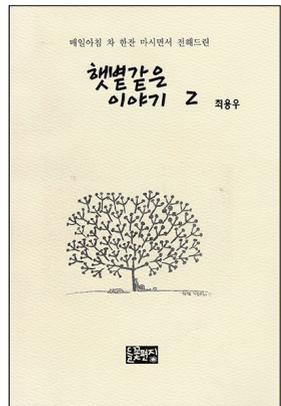
6. 청소부친구가 더좋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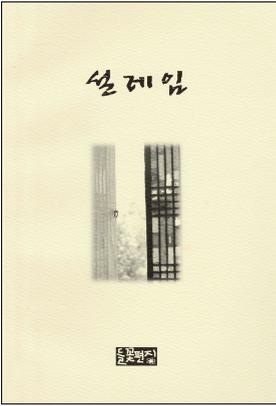
7. 숲속의아침 (2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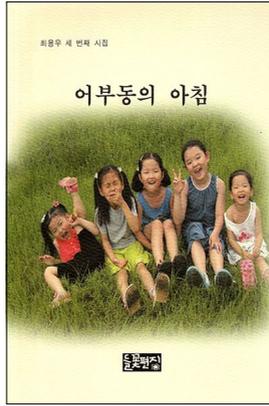
8. 햇별같은이야기1 (1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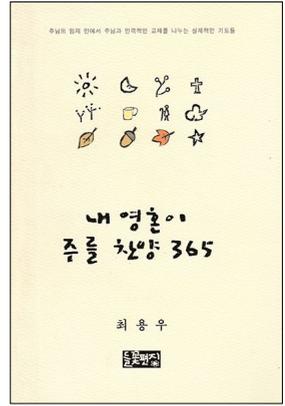
9. 햇별같은이야기2 (1판)



10. 설레임



11. 어부동의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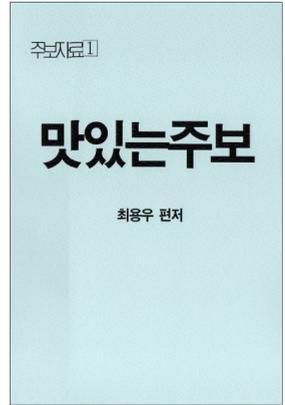
12. 내영혼이주를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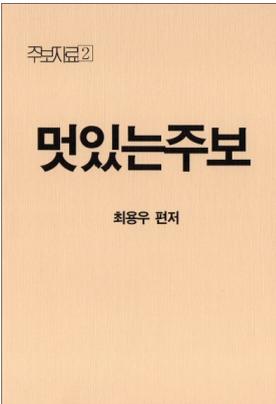
13. 새벽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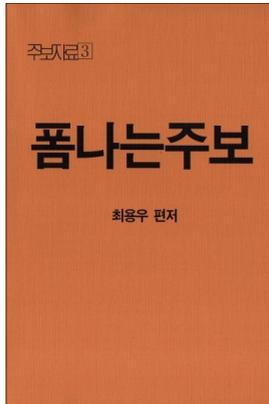
14. 플러스 에피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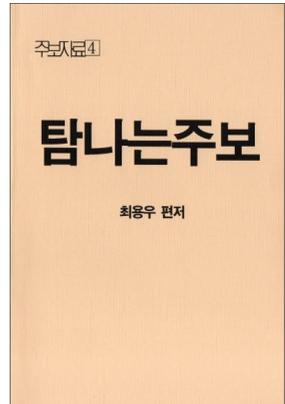
15. 맛있는주보 (주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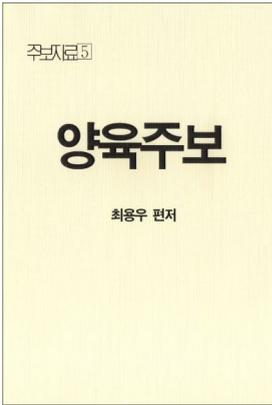
16. 맛있는주보 (주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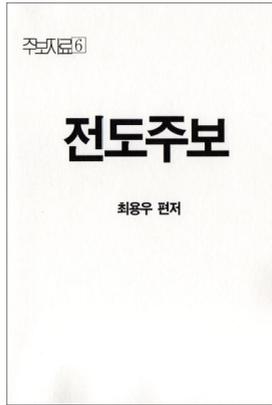
17. 폼나는주보 (주보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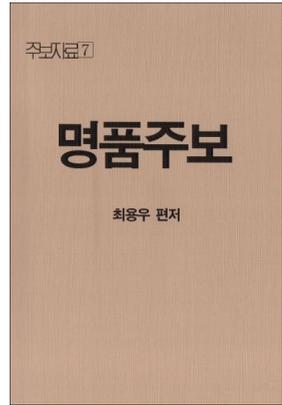
18. 탐나는주보 (주보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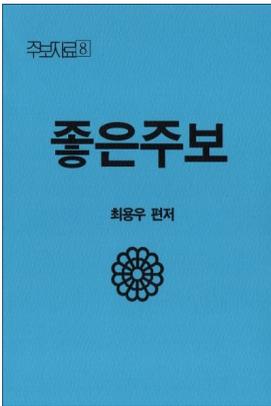
19. 양육주보 (주보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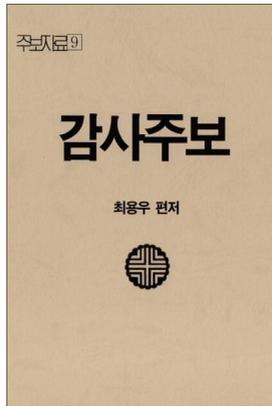
20. 전도주보 (주보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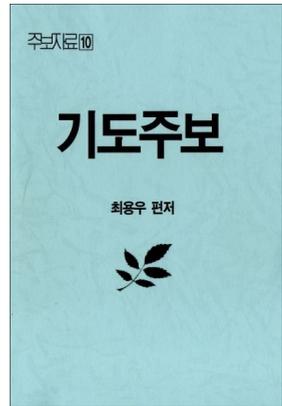
21. 명품주보 (주보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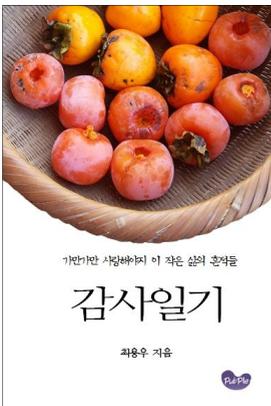
22. 좋은주보 (주보8)



23. 감사주보 (주보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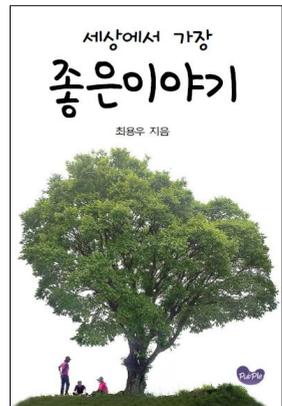
24. 기도주보 (주보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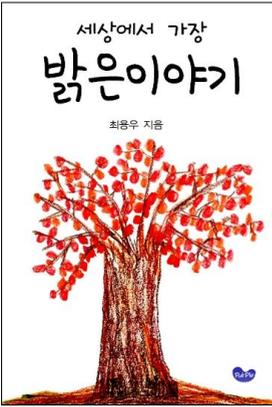
25. 감사일기 (일기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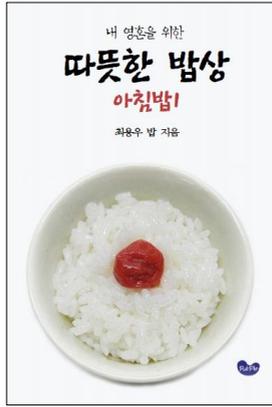
<12> 내영혼이주를 (2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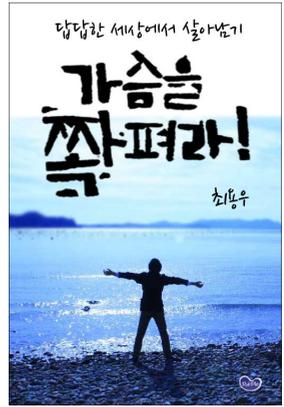
<8> 좋은이야기(햇별1-2판)



<9> 밝은이야기 (햇별2-2판)



26. 따듯한 밥상 1-아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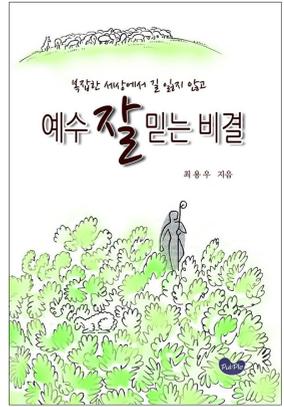
27. 가슴을 짝 (햇별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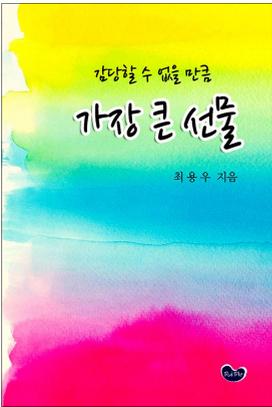
28. 다시벌떡 (햇별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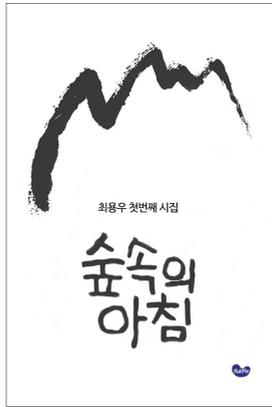
29. 정정당당 (햇별13)



30. 예수잘 믿는 (햇별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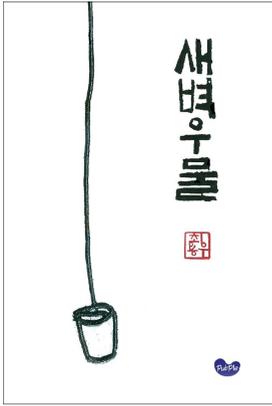
31. 가장큰선물 (햇별15)



<7> 숲속의아침 (4판)



32. 인생최대의 (햇별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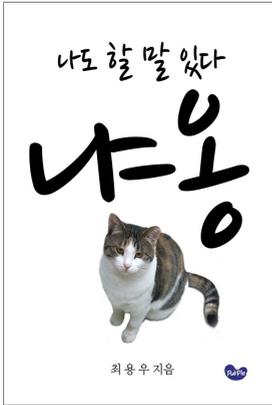
<13>새벽우물 (3판)



33. 따밥3-점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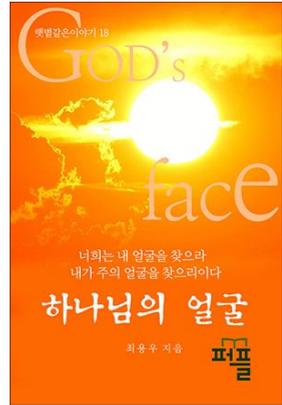
<10>설레임 (2판)



34. 나도할말 (햇별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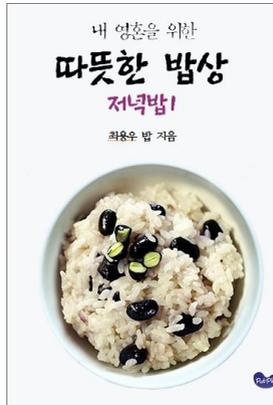
<11>어부동의아침 (2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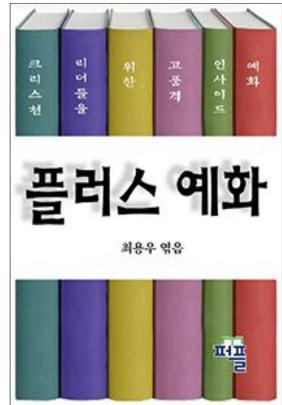
35. 하나님의얼굴(햇별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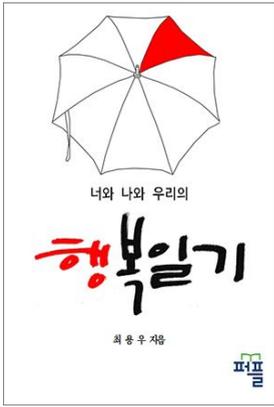
36. 햇빛일기 (일기8)



37. 따밥5-저녁밥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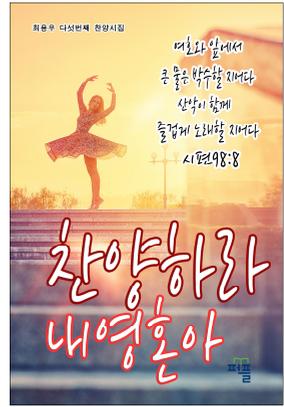
<14>플러스예화 (2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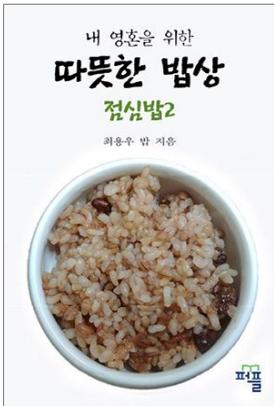
38. 행복일기 (일기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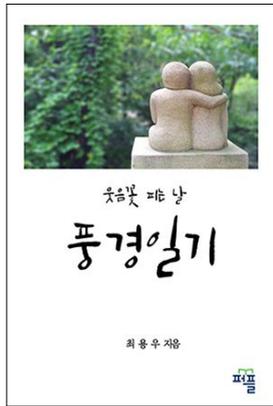
39. 예수님을따 (햇별19)



40. 찬양하라 (시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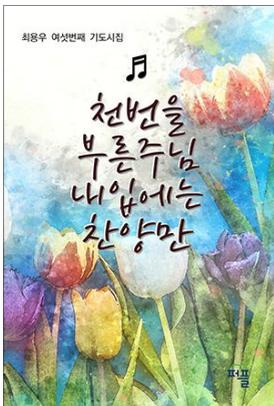
41. 따밥4-점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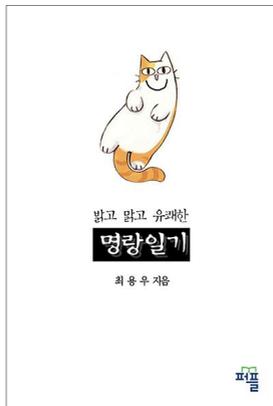
42. 풍경일기 (일기10)



43. 예수형통 (햇별20)



44. 천번을 부른주님 (시6)



45. 명랑일기 (일기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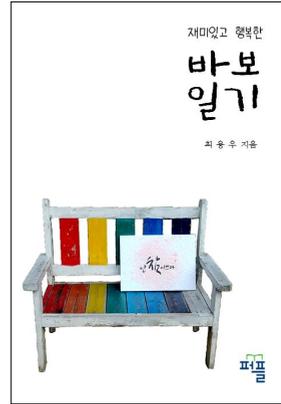
46. 들꽃편지1권-고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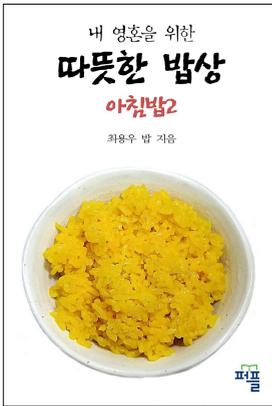
47. 하동 (햇별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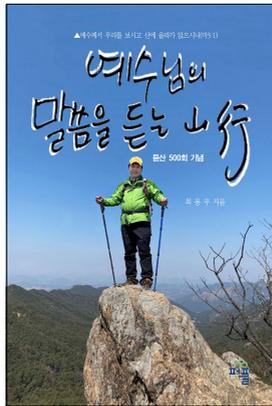
48. 우리 커피한잔..(시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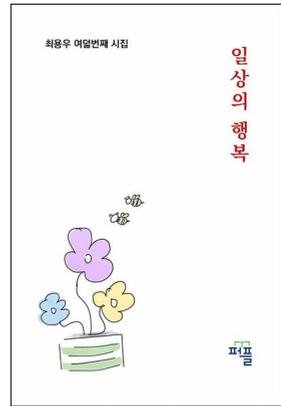
49. 바보일기 (일기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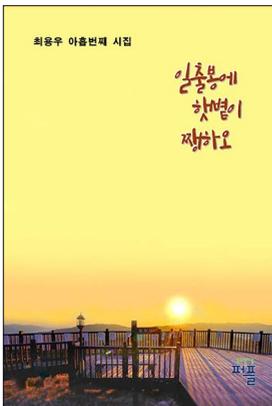
50. 따밥2-아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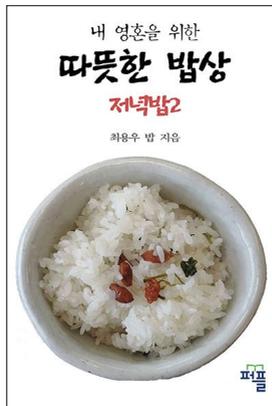
51.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52. 일상의 행복 (시8)



53. 일출봉에 햇별 (시9)



54. 따밥6 저녁밥2



55. 예동 (햇별22)



56. 들꽃편지2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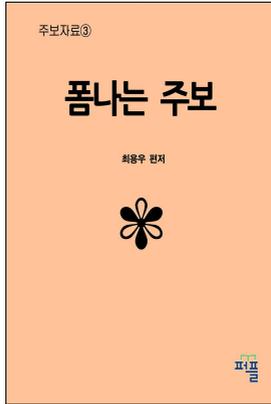
57. 겨울목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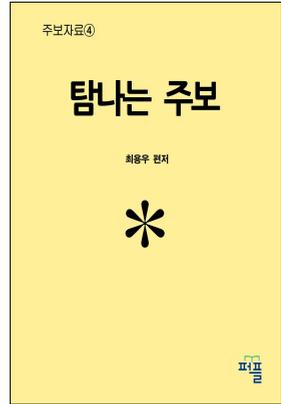
<15>맛있는주보 (주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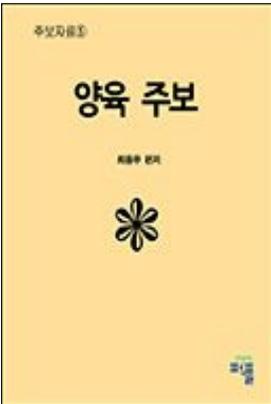
<16>맛있는 주보 (주보2)



<17>폼나는 주보 (주보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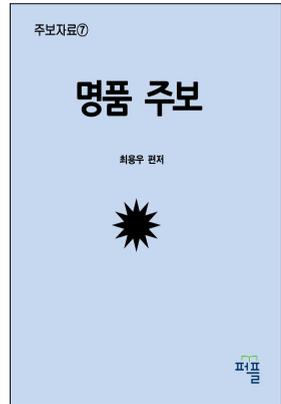
<18>탐나는 주보 (주보4)



<19>양육 주보 (주보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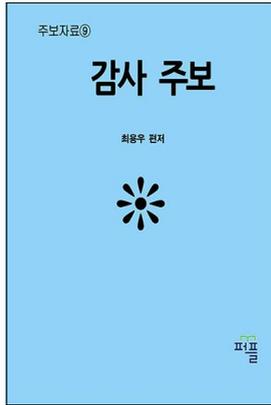
<20>전도 주보 (주보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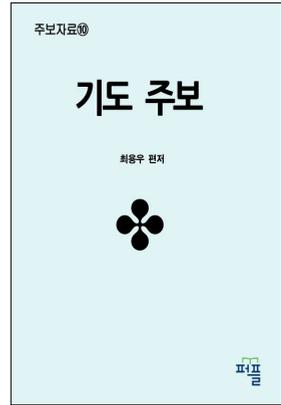
<21>명품주보 (주보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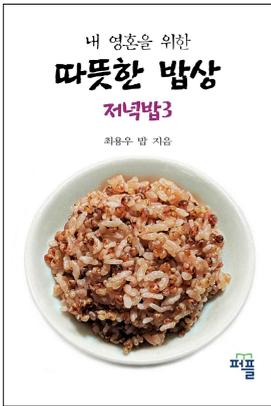
<22> 좋은 주보 (주보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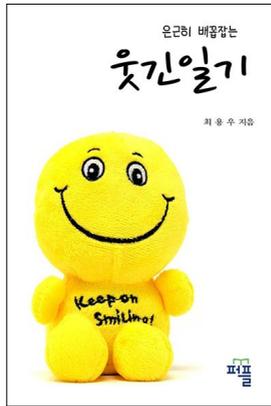
<23> 감사 주보 (주보9)



<24> 기도 주보 (주보10)



58. 따뜻한 밥상 저녁밥3



59. 웃긴일기 (일기13)



60. 들꽃편지3권



61. 들꽃편지4권



62. 일상의 기쁨 (시10)



63. 들꽃편지5권



64. 들꽃편지6권



65. 들꽃편지7권



66. 들꽃편지8권



67. 들꽃편지9권



68. 들꽃편지10권



69. 들꽃편지11권



70. 들꽃편지12권



71. 들꽃편지13권



72. 들꽃편지14권



73. 들꽃편지15권



74. 들꽃편지16권



75. 여유일기 (일기14)



76. 들꽃편지17권



77. 들꽃편지18권



78. 들꽃편지19권



79. 들꽃편지20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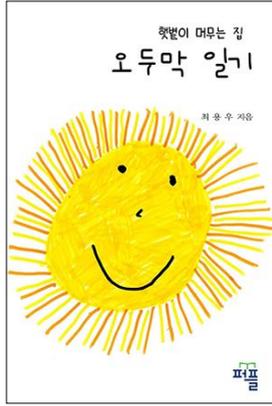
80. 아내에게 바치는 시



81. 마태 예수어록



82. 성동 (햇빛23)



83. 오두막 일기(일기15)



84. 일상의 기적(시12)



85. 마가 예수어록



86. 만사록 1권



87.

최용우 책 발행 번호

()는 재발행한 책

●여러 출판사 출판

1. 웃음 만들기 /1998.3.15 ②1998.6.10
2. 사랑 만들기 /1998.3.15 ②1998.7.15
3. 웃음 보따리 /1998.6.20 ②1999.5.30
4. 왕웃음 보따리 /1998.6.20 ②1999.5.30
5. 기쁨 만들기 /1999.3.20
6. 청소부 친구가 더 좋은 이유 /2000.6.15.

●들꽃편지 출판사

7. 숲속의 아침 ②판2003.1.20. ③판2006.10.30
8. 햇별같은이야기1 2005.11.1. ②판 2006.12.20
9. 햇별같은이야기2 2005.11.1. ②판2006.12.20
10. 설레임 2006.8.1
11. 어부동의 아침 2006.8.1.
12. 내영혼이 주를 찬양 2006.9.20. ②판2016.2.29
13. 새벽우물 2010.1.15
14. 플러스 예화 2010.12.25.
15. 맛있는주보1 2011.12.1
16. 멋있는주보2 2011.12.1
17. 품있는주보3 2011.12.1
18. 탐나는주보4 2012.12.17
19. 양육주보5 2012.12.17
20. 전도주보6 2012.12.17
21. 명품주보7 2012.12.17.
22. 좋은주보8 2013.12.16.
23. 감사주보9 2014.12.8.
24. 기도주보10 2015.12.21.

●교보문고 퍼플 출판

25. 감사일기 (일기7) 2016.1.28.
- ⑫ 내영혼이 주를 찬양 ②판 2016.2.29.

- ⑧ 햇별같은이야기 ③판 좋은이야기 2016.3.12
 ⑨ 햇별같은이야기2 ③판 밝은이야기 2016.4.3
 26. 따뜻한 밥상- 아침1 2016.4.18
 27. 가슴을 짝 펴라 (햇별11) 2016.5.12.
 28. 다시 별떡 일어나라 (햇별12) 2016.5.30
 29. 정정당당 잘살자 (햇별13) 2016.6.14.
 30. 예수 잘 믿는 비결 (햇별14) 2016.6.30.
31. 가장 큰 선물 (햇별15) 2016.7.12.
 ⑦ 숲속의 아침 ④판(시1)2016.7.28.
 32. 인생 최대의 행복 (햇별16) 2016.8.16
 ⑬ 새벽우물 ③판 2016.8.26.
 33. 따뜻한 밥상 점심밥1 -2016.9.9
 ⑩ 설레임 ②판(시2) 2016.10.7
 34. 나도 할 말 있다 나옴 (햇별17) 2016.10.31.
 ⑪ 어부동의 아침 ②판(시3) 2017.6.23.
 35. 하나님의 얼굴 (햇별18) 2017.7.5
 36. 햇빛일기 (일기8) 2017.8.1
 37. 따뜻한 밥상 저녁밥1 2017.8.22.
 ⑭ 플러스 예화 ②판 2017.9.6
 38. 행복일기 (일기9) 2018.1.23
 39. 예수님을 따르는 삶 (햇별19) 2018.2.23
 40. 찬양하라 내 영혼아 (시4)2018.10.23.
41. 따뜻한 밥상-점심밥2 2018.11.21
 42. 풍경일기 (일기10) 2019.1.23
 43. 예수 나의 형통 (햇별20) 2019.3.15
 44. 천만을 부른 주님 내입에는 찬양만 (시5) 2019.5.21
 45. 명랑일기 (일기11) 2020.2.28.
 46. 들꽃편지 제1권 -고마리꽃 2020.6.17
 47. 하동-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햇별21) 2020.12.31
 48. 우리 커피한잔 할까요? (시7) 2021.1.21
 49. 바보일기 (일기12) 2021.2.25
 50. 따뜻한 밥상2 -아침밥2 2021.4.13

51.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1 -2021.5.6
52. 일상의 행복 (시8) 2021.7.8
53. 일출봉에 햇별이 짙하오 (시9) 2021.9.17.
54. 따뜻한 밥상6 저녁밥2 2021.10.15
55. 예동-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햇별22) 2021.11.5
56. 들꽃편지2권-쑥부쟁이호 2021.11.30
57. 겨울 묵상 2021.12.27.
- ⑮ 맛있는 주보+파일(주보자료1) 2022.1.5.(재판)
- 멋있는 주보+파일(주보자료2) 2022.1.12.(재판)
- 폼나는 주보+파일(주보자료3) 2022.1.19.(재판)
- 탐있는 주보+파일(주보자료4) 2022.1.28.(재판)
- 양육 주보+파일(주보자료5) 2022.2.10.(재판)
- 전도 주보+파일(주보자료6) 2022.2.20.(재판)
- 명품 주보+파일(주보자료7) 2022.2.24.(재판)
- 좋은 주보+파일(주보자료8) 2022.2.28.(재판)
- 감사 주보+파일(주보자료9) 2022.3.7.(재판)
- 기도 주보+파일(주보자료10) 2022.3.16.(재판)
58. 따뜻한 밥상7 저녁밥3 2022.5.27
59. 웃긴일기 (일기13) 2022.6.29
60. 들꽃편지3권-산부추꽃호 2022.8.30

61. 들꽃편지4권-동자꽃호 2022.9.13
62. 일상의 기쁨 (시10) 2022.10.4
63. 들꽃편지5권-참꽃호 2022.10.19
64. 들꽃편지6권-금국꽃호 2022.11.30
65. 들꽃편지7권-민들레호 2022.12.14
66. 들꽃편지8권-영경귀꽃호 2023.1.11
67. 들꽃편지9권-분꽃호 2023.2.8
68. 들꽃편지10권-천안국꽃호 2023.3.11
69. 들꽃편지11권-과꽃호 2023.4.10
70. 들꽃편지12권-장미꽃호 2023.5.10

71. 들꽃편지13권-도라지꽃호 2023.6.12
72. 들꽃편지14권-작약꽃호 2023.7.6
73. 들꽃편지15권-노란꽃호 2023.8.3

74. 들꽃편지16권-고구마꽃호 2023.9.1
75. 여유일기 (일기14) 2023.9.15
76. 들꽃편지17권-테이지꽃호 2023.10.2
77. 들꽃편지18권-사철채송화꽃호 2023.11.6
78. 들꽃편지19권-모과꽃호 2023.11.1
79. 들꽃편지20권-호박꽃호 2023.12.20
80. 아내에게 바치는 시 (시집11) 2023.12.26

81. 마태 예수어록 2024.3.19
82. 성동-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햇별23) 2024.5.28
83. 오두막 일기 (일기15) 2024.7.11
84. 일상의 기적 (시12) 2024.8.9
85. 마가 예수어록 -2024.8.30
86. 만사록 1권-생각 -2024.10.11
87. 들꽃편지21권-썩갓꽃호 2024.11.15



2. 여러 출판사 책

1 웃음 만들기



웃음 만들기

저자 최용우

발행일 1998.3.5(초판) 1998.6.10(재판)

신앙도서 > 영적성장 > 수필,칼럼,글모음

판형/면 국판A5 /200면

출판사 은혜출판사

정가 5700원

ISBN 978-89-87555-10-2

<책소개> 가슴 따뜻한 이야기 시리즈1

PC통신 하이텔을 통해 매일 아침 수천명의 독자들을 만났던 잔잔한 감동과 교훈을 주는 이야기 199편 모음. 극동방송을 통해 매일 아침 방송되기도 했다.

<추천> 이영제 목사(한국컴퓨터선교회)

부담 없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삶과 인생 그리고 신앙에 대한 내용들로 올려진 이 짧은 글들은 읽는 이로 하여금 잔잔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더구나 PC 통신으로 한 번에 올려진 자료들이 아니라 매일 아침 쉬지 않고 꾸준히 올려졌다는 것은 끈기와 인내 그리고 꾸준히 올리는 열성과 노력 때문에 올려진 글들은 더욱 의미 있고 빛나 보였습니다. -추천사 중에서

<머리말>

코카콜라 사장은 자기의 몸에는 피대신 콜라가 흐른다고 했다던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몸 안에 피 대신 그리스도가 흐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찌르든 그리스도가 쫓달 흘러 나와야 합니다. 잘 익은 수박일수록 어디를 파든 빠알간 속살이 나오는 것처럼!

3년전 우체국에서 단말기를 빌려와 컴퓨터 통신을 시작하면서 맨 먼저 한 생각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 통신의 세계를 잘 모르고 '직접적인' 전도의 글을 올렸다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하마터면 ID까지 빼앗길뻔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간접적인' 전도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이 '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볕같은이야기입니다. 신앙인, 비신앙인 모두 아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글을 쓰되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숨겨서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한편씩 꾸준히 올린 글이 600회를 넘겼고 횡수는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은 컴퓨터 통신 하이텔에 매일 아침 마다 써 올렸던 글을 모은 것인데 원래 책으로 펴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글이 매일 아침 어김없이 게시판에 뜨자 자연스럽게 수많은 고정독자가 생기게 되었고 하루에도 몇 통씩 혹시 그동안 쓴 글을 모아 놓은 게 없느냐는 전자메일을 받고서 책 출판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극동방송 라디오 프로에 방송되기도 했고,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아침마다 교내 방송을 통해 읽어주기도 하고, 부산 어딘가에서는 ‘아침생각 모임’까지 생겨서 매일 올라오는 글을 읽고 느낀 점을 서로 나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무겁지 않은 내용,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고 마음이 훈훈해지는 이야기들을 매일 아침 써 올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읽은 많은 책들과 좋은 글은 메모해두는 습관이 글을 쓰는 큰 자원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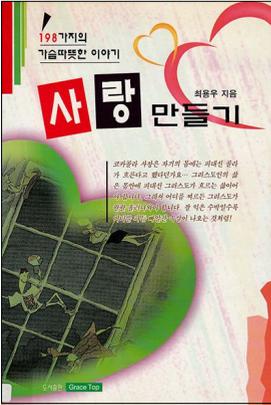
이 책은 전도를 하고 싶은 분에게 살짝 전해드려도 좋고, 젊은이들에게는 삶의 교훈서로서 유익한 책이 될 것이고, 학생회 청년회 또는 교회 후보 편집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펴내기 위해 옆에서 밤새워 도와준 아내와 때때로 글의 좋은 소재가 되어주는 귀염둥이 딸내미 좋은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날 아침에 차 한잔을 마시면서 최 용 우

〈차례〉

1. 짐의 무게 2. 사랑을 찾습니다 3. 기독교인과 비누장수 4. 잠시 등불을 꺼 보세요 5. 어디를 두드려야 할 지 알아낸 값 6. 개구쟁이들과 신문 7. 우물파기 8. 지금, 힘..드신분들께... 9. 배꼽티 10.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는 않는다 11. 목사님! 왜 뽀뽀해 주지 않으세요? 12. 으익누가 내게 몽둥이 줘!몽둥이!!! 13. 밥, 떡, 사이다 중에서 먹을 수 없는 것은? 14. 톱스타 최진실을 위협하는 인기, 고양이 15. 몸불편한 노모안고 피서온 가장의 효성 16. 생명의 힘 17. 사단이 웃는다 18. 꽃이 됩시다 19. 고향지르기 20. 하늘의 집 21. 인생을 망치는 방법 22. 향아리 고르기 23.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24. 참된 효도 25. 코끼리의 가장 무서운 적 26. 만화와 명화 27. 일찍 일어나는 새가 28. 당신의 인생은 몇시? 29. 창조 30. 할아버지의 눈물 31. 요것, 알아요? 32.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 (이하 생략)

2 사랑 만들기



사랑 만들기

저자 최용우

발행일 1998.3.5(초판) 1998.7.15(재판)

분류신앙도서 > 영적성장 > 수필,칼럼,글모음

판형/면 국판A5 /188면

출판사 은혜출판사

정가 5700원

ISBN 978-89-87555-11-9

〈책소개〉 가슴 따듯한 이야기 시리즈

이 책 속에는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정이 있고, 희망이 있다. 세상을 따듯한 시각으로 보는 아름다운 이야기 198편이 주렁주렁 향기 나는 모습으로 열려있다.

〈추천〉 김형태 교수(의학박사.전북의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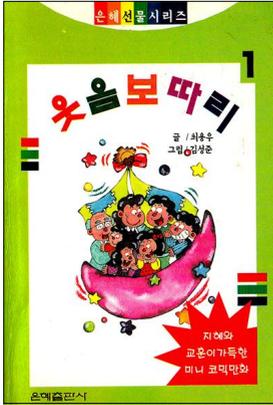
햇볕같은이야기 시리즈에는 선생님과 같은 질책과 어머니 품속 같은 따듯한, 그리고 소망이 있다. 그는 평범한 삶의 이야기들을 통신 매체란 특수한 매개체를 통해 광야에 외치던 옛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현대인을 향해 외치고 있었다. 키보드를 두들겨 가며 읽던 그의 아침 시리즈를 이제 책장을 넘겨 가며 읽을 수 있게 된다니 감사할 따름이다. -추천사 중에서

〈머리말〉 '웃음 만들기'와 같음

〈차례〉

1. 내가 먼저 십계명 2. 성공을 위한 건강 유지법 3. 독일군의 독가스 공장 4.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본다? 5. 고양이와 고려청지기 8. 생각할 것, 생각하지 말 것 7. 아이들을 방에서 쫓아냅시다 8. 안경의 색깔 9. 선물 10.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 11. 면접시험 성공 비법 공개 12. 기독교를 비판한 최초의 책 13. 하루 1백번 이상 웃어라 14. 병아리와 해바라기 15. 가마솥이 필요합니다 16. 사람 살리는 열마디 말 17. 꼭 잡혀 살면! 18. 탐욕이라는 것 ... (이하 생략)

3 웃음 보따리



웃음 보따리

저자 최용우

발행일 1998.6.20(초판) 1999.5.30 (2쇄)

분류신양도서 > 어린이 > 초등 전학년

판형/면국판A6 /95면

출판사 은혜출판사

정가 1800원

ISBN 89-7917-176-5

〈책소개〉 은혜 선물시리즈1

여기에 실린 173편의 만화는 1990년 10월 14일부터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알곡교회 어린이 주보에 한주도 빠짐없이 그려서 올렸던 인기 만화를 모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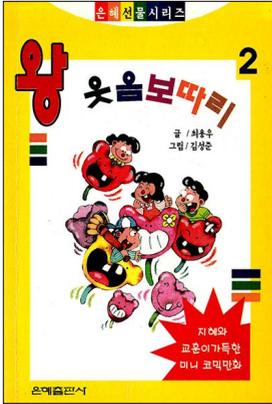
〈추천〉

크기도 아이들의 손에 딱 맞는 아담한 크기이고 내용도 아이들 수준에 맞춰 신앙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쉽게 4컷 만화로 풀어놓은 책입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아이들에게 부담없이 사주기에 좋네요. 신앙의 기본에 대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는 유머들 가운데 신앙의 기초개념들을 적절히 안배해 두었네요.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큰아이가 매우 좋아합니다. -갓피플 독자 서평중

가격도 저렴하고 어떤책인가 궁금했는데.. 크기는 우선 손안에 딱 들어오는 책이구요. 내용은 그냥 가볍게 한번 읽을만한 책이에요. 주일학교 친구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이 책 2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심심할 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웃긴 만화 같은 내용이에요..ㅋㅋ ㅋㅋ*^^* -갓피플 독자 서평중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아이가 매우 좋아하네요. 주일학교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과 생각을 주는 신앙 만화입니다. 우리 아이는 이 책을 가방 속에 넣고 다니면서 봅니다. 1편에 이어 2편.. 늘 가지고 다니면서 보거나 아이의 친구 생일 선물등으로 활용하기에 괜찮을 듯합니다. -갓피플 독자 서평중에

4 왕웃음 보따리



왕웃음 보따리

저자 최용우

발행일 1998.6.20(초판) 1999.5.30 (2쇄)

분류신양도서 > 어린이 > 초등 전학년

판형/면 국판A6 /95면

출판사 은혜출판사

정가 1800원

SBN 89-7917-177-3

〈책소개〉 은혜 선물시리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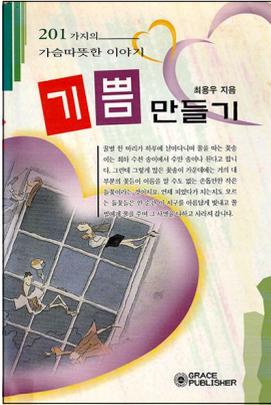
1998년 여름성경학교 최고의 상품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손 바닥 만화집.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의 심리상태를 꿰뚫어보고 그렸던 재미있는 만화

〈추천〉

웃음 보따리라는 제목처럼 정말 재미있게 본 것 같다. 화장실 가서 가장 많이 본 책 바로 웃음 보따리이다. 물론 옛날 책이지만 그래도 웃음을 선물 해 준 귀한 책이다. 살면서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기때는 시도 때도 없이 웃는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점 웃음을 잃어가는 현실 정말 안타까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웃음 보따리가 있으니깐요 ㅎㅎ 웃고 싶으세요 웃음보따리로 오세요. ㅎㅎ -갓피플 독자 서평중

저자의 교회 주보에 실었던 짧은 만화를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다는데 재미있다. 어릴 때는 사소한 것에도 깔깔깔 웃다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웃음이 줄어들고 늙으면 거의 웃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하지만, 많이 웃을수록 수명이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고 질병도 치료된다고 하니 웃는 연습을 많이 해야될 것 같다.나도 많이 웃으려고 코미디프로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평소에 습관적으로 웃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갓피플 독자 서평중

5 기쁨 만들기



기쁨 만들기

저자 최용우

발행일 1999.3.10(초판)

분류 신앙도서 > 영적성장 > 수필,칼럼,글모음

판형/면 국판A5 /200면

출판사 은혜출판사

정가 5800원

ISBN 89-7917-214-1

<책소개> 가슴 따듯한 이야기 시리즈3

하이텔 플라자의 최고 인기 작가 중의 한 사람인 저자의 글은 짧으면서도 깊이가 있고 감동이 있어서 비신자들이나 신자들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크랩을 한다.

<머리말>

꿀벌 한 마리가 하루에 날아다니며 꿀을 따는 꽃송이는 최하 수천 송이에서 수만 송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꽃송이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름을 불러 주는 장미, 코스모스, 아카시아, 튜립 같은 꽃은 얼마 안 되고, 훨씬 더 많은 거의 대부분의 꽃들은 이름을 알 수도 없는 손톱만한 작은 들꽃이라는 것이지요 언제 피었다가 지는지도 모르는 들꽃들은 그러나 한 순간 이 지구를 아름답게 빛내고 꿀벌에게 꿀을 주며 그 사명을 다하고 사라져 갑니다.

자극적인 제목이나 파격적인 글로 사이버 공간의 스타가 되기는 너무나 쉬운 일이고 많은 네티즌들이 그러한 주목을 받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는 PC통신 가상공간의 세계에, 매일 아침 들꽃 한 송이 피우는 소박한 마음으로 떠났던 쪽지들을 모아 또다시 한 권의 책을 만듭니다. 부지런한 꿀벌처럼 작은 들꽃 한 송이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꿀을 따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는, 부끄럽고 아직은 여물지 않은 부족한 글이지만 또다시 책을 펴내도록 용기를 내게 하였습니다.

특히 글을 쓰면서 염두에 둔 것은 예수 복음을 모르거나 바로 알고 있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사리 있게 행동하는데 아직은 훈련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흥분하고 비판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글이 흔계나 설교로 비쳐지지 않도록 주로 생활 속에서 소재를 택하여 최대한 쉽고 평이하게 쓰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인용도 직접적인 구절의 인용 대신 그 내용을 글 속에 자연스럽게 풀어 넣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흠어진 조각들을 모아 모자이크를 만들 듯, 흠어진 쪽지들을 모아 책으로 엮어 주신 Grace Publisher 사장님과 온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를 주신 주님을 한없이 찬양하며, 이 세상에서 최고로 예쁜 나의 두 딸내미 최정은, 최박은이와 그보다 더 이쁜 아내 이인숙에게도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며, 특별히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어머님과 장모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따뜻한 날 차 한잔 마시며

나의 작은 책방 '꽃씨와 도둑'에서 최 용 우

〈추천〉 최용덕 (낮엔해처럼 밤엔달처럼 찬양 작곡가)

저는 이 책의 글쓴이 최용우님의 오랜 독자입니다. 그가 직접 손으로 글씨를 써서 매월 펴내던 「하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줄곧 그의 글을 아끼고 애독해 온 사람이나가요. 벌써 햇수로 따져도 5~6년이 지난 것 같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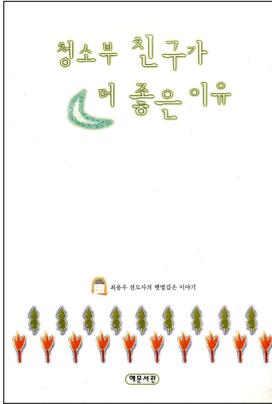
그의 글은 짧지만 너무도 깨끗하고 정겹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가슴을 찡하게 하는 마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글들은 마치 저 어느 산골 들판에 핀 이름모를 무명의 들꽃처럼 그 한 모퉁이에서 다소곳이 피어나 은은한 향기를 천리길이나 날려보내는 그런 꽃과 같은 글입니다.

무슨 대단한 자태는 아니지만 그의 글에는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글들은 그가 직접 쓴 글은 아니지만, 마치 광부가 고된 곡괭이질 끝에 보석을 파내듯, 그가 두루 섭렵한 많은 책들 속에서 애써 찾아낸 보석과 같은 글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려하고 수식적인 글들의 홍수 속에서 늘 그의 글들을 리워하곤 했습니다. -추천사 중에서

〈차례〉

1. 공감 2. 지혜로운 지도자 3. 잊고 사는 것들 4. 두 배로 이익 보는 방법 5. 산책 6. 우선 살아라! 7. 행복한 잠자리 8. 두 목사님 9. 기도하는 사마귀 10. 멋진 두 여자 11. 소금 한 가마 12.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13. 노란 손수건 14. 붉은 장미 119송이 15. 해서는 안되는 말들 16. 생체시계 17. 얼굴 18. 존경받는 지도자 19. 고구마 캐기 20. 가족 21. 송이버섯 22. 한쪽 발 들고 23. 진짜 회개! 24. 놀라운 일 25. 희망이 없는 나라 26. 청소부 목사님(이하생략)

6 청소년 친구가 더 좋은 이유



청소년 친구가 더 좋은 이유

2000.6.15(초판) 2001.6.15(2쇄)

책 사이즈 /B6 /188면

카테고리 /종교 /기독교(개신교)

출판사 /해문출판사

정가 5500원

ISBN 89-7670-030-9

〈책소개〉

우는 사람에게의 참 위로는 함께 울어 주는 것'이라는 지은이의 생각이 맺은 결실이 책으로 엮어져 나왔습니다. 그의 글들이 유독 가슴을 파고 드는 이유는 그 진실함에 있습니다. 최용우 님의 글들은 때로는 쪽지 글로 또 언젠가는 고등학교 명상 시간에 방송으로 그리고 극동방송에서는 칼럼으로 소개되었고, 사이버 공간의 여러 게시판에 감동의 글로 소개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전도사인 저자가 소탈한 이웃의 정겨운 모습을 묘사한 글 모음. 살아간다는 기쁨과 행복을 노래한 〈삶이라는 선물〉을 비롯해 아들을 위해 시골에서 꾸려준 된장 봉지에 얹힌 사연 〈된장 운반작전〉 등 삶의 훈훈함이 느껴지는 짧은 글을 엮었다. -출판사 리뷰

〈지은이의 말〉

한 세상 태어나서 살아가는 짧은 삶. 아웅다웅 할 게 뭐가!

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 저는 힘들 때 제 책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보다 더 힘들 때 피를 짖어 고통의 연필로 기록한 한 편 한 편의 글을 읽고 또다시 툭툭 털고 일어섭니다.

어떤 청년이 어느 날 불쑥 전해준 한 마디를 붙잡고 그날 밤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정동 진행 열차를 타려고 청량리역에서 서성이다 우연히 최용우 선생님의 글이 적힌 쪽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가슴에 품고 정동진까지 갔다가 되돌아왔습니다. 절망을 품고 갔다가 ‘희망’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저의 글을 읽고 ‘희망’을 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저의 여섯 번째 책을 펴내도록 풍성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한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내 이인숙과 두 딸내미 최정은, 최박은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개인서재 ‘꽃씨와 도둑’ 에서 최용우

〈차례〉

12 한번 해 봅시다 13 자라는 시간 15 삶이라는 선물 17 얼굴이 빛나는 사람은 19 얼굴값을 올려라 20 많이 흘릴수록 좋은 눈물 21 인류의 미래1 22 인류의 미래2 23 잠시 기분 전환 24 청소부 친구가 더 좋은 이유 25 아버지1 27 아버지2 29 박사 아닌 사람이 없네요 31 된장 운반작전 33 순종과 불순종 36 가장 무서운 것 38 마늘줄기 40 준비가 되어야 41 해바라기 42 진정한 나눔 44 나무 같은 사람 46 입원한 유일한 사람은 47 최 부자 집 가훈 49 연필꽃이 51 뒤끝이 없는 사람? 56 그럼 넌..... 57 행복연습 59 황금집 60 꽃게 꼭끼 61 억만장자의 보물창고 63 너희도 살아가는구나! 64 행복한 나라 66 만족 67 세상에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69 어리석은 욕심 70 어이없는 길 72 그 아이의 아버지는..... 74 세 번만 하세요 76 굿셀러 78 겸손이 빠졌네요 80 만델리와 채소밭 82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84 불행의 삼씨 86 함께 올려주는 것 88 사소한 것들 90 단동치기에서 배우는 교훈 92 구명난 삶 93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고 94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95 아이들의 기도 97 이제는 내가 대장이다.

〈서평〉

최용우 전도사의 햇볕같은 이야기를 매일 이메일로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로서, 이번엔 그가 펴낸 이 책을 구입하여 읽었다.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자신의 생각과 세상은 이야기들을 꾸밈없이 소박하게 전해주는 그의 글이 좋다.

최용우 전도사야말로 이 책에서 나오는 나무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한다.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마음의 안정을 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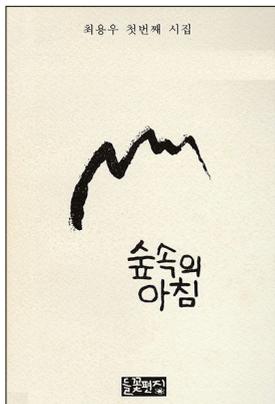
비록 이책이 자그마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독자들에게 평안함을 전하는 나무와 같은 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많은 작품활동을 기대해 본다.

--YES24 회원리뷰 나무같은 사람 님 서평



3. 도서출판 들꽃편지 책

7 숲속의 아침



숲속의 아침 -최용우 첫 번째 시집

지은이 최용우

출판/②판 2003.1.20. ③판 2006.10.30

책 사이즈 /A5 국판 /148(mm)X210(mm)

카테고리 /종교 /기독교(개신교)

페이지 /124

판매가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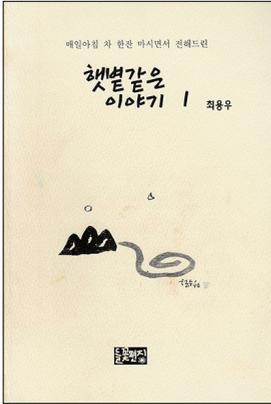
<책소개>

알고 보니 시란 더 이상 암호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시를 논하는 이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란 우리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삶을 기록하니 그것이 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은 제게 너무 소중한 달이었고
날밤을 세워가며 단말기에 붙여 자판 두들기는 소리를
들어야 했을 아내에겐 불면의 기간이었습니다.
84개의 자판을 두들기며 언어의 예쁜 집을 짓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예쁜 꽃을 피우며
몇 시간 동안 생각날 듯 말듯 한 단어를 기어코 찾아내
자판을 두들겼을 때, 맑은 코피 한 방울이 또르르 떨어져
마침표를 찍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인이 아닙니다. 시인 흉내만 내는 사이비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시집 비슷한 것을 내 놓으며...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목차>

- 1부. 아침 시인
- 2부. 개척교회 목사님
- 3부. 아름다운 휴식
- 4부. 발꾸락 스무개가

8 햇별같은이야기1



햇별같은이야기1

출판일자 /2005.11.1. ②판 2006.12.20

책 사이즈 /A5 A5 신국판(152X225)

카테고리 /종교 /기독교(개신교)

페이지 수 /616

제본방식/무선 /무광 /날개 A5 국판

판매가 /20,000

〈책소개〉

할렐루야!

눈의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잠언15:30)

내 사랑하는 마음의 벗들에게

매일 매일 연애 편지를 띄우면서 살아온 지난 10년은

참으로 행복하고 풍성함이 가득한 세월이었습니다.

그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의 글을 축복하셔서

네 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서점에서 판매되었고

라디오 방송으로 2년 동안 매일 한 편씩 읽혀지기도 했고

수많은 신문에 고정적으로 연재되기도 했고

지금도 연재되고 있고 인터넷에 무수히 많은 글들이

복사되어서 퍼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감사한 일입니다.

10년 사역을 되돌아보며 그 동안 썼던 글을

약 1천편씩 모아 2권의 책으로 정리합니다.

독자들로부터 받은 과분한 사랑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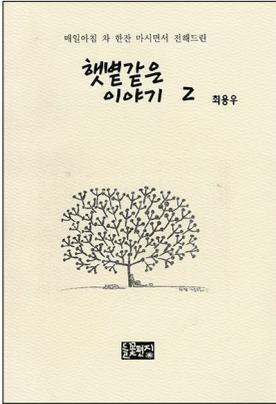
1부 하늘을 보세요

2부 반가운 소식

3부 행복한 집

4부 예수님의 마음

9 햇별같은이야기|2



햇별같은이야기2

출판일자 /2005.11.1. ②판2006.12.20

책 사이즈 /A5 A5 신국판(152X225)

카테고리 /종교 /기독교(개신교)

페이지 수 /636

제본방식/무선 /무광 /날개 A5 국판

판매가 /20,000

<책소개>

할렐루야

눈의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잠언15:30)

내 사랑하는 마음의 벗들에게

매일 매일 연애 편지를 띄우면서 살아온 지난 10년은

참으로 행복하고 풍성함이 가득한 세월이었습니다.

그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의 글을 축복하셔서

네 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서점에서 판매되었고

라디오 방송으로 2년 동안 매일 한 편씩 읽혀지기도 했고

수많은 신문에 고정적으로 연재되기도 했고

지금도 연재되고 있고 인터넷에 무수히 많은 글들이

복사되어서 퍼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감사한 일입니다.

10년 사역을 되돌아보며 그 동안 썼던 글을

약 1천편씩 모아 2권의 책으로 정리합니다.

독자들로부터 받은 과분한 사랑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목차>

1부 꽃향기

2부 멋있는 사람

3부 행복한 아침

4부 아름다운 세상

5부 사랑합니다

10 설레임



설레임 -최용우 두 번째 시집

출판일자 /2006.8.1

책 사이즈 /A5 국판 /148(mm)X210(mm)

카테고리 /종교 /기독교(개신교)

페이지 수 /132

제본방식/무선 /무광 /날개 A5 국판

판매가 /9,000

〈책소개〉 첫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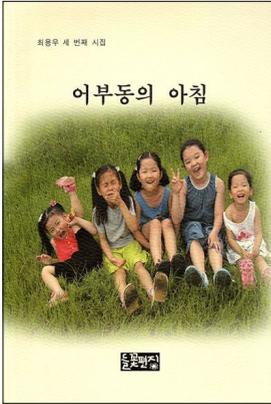
문득 주님을 생각하면
내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차 오르고
행복한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문득 주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은 샘물처럼 시원해지고
환한 미소 꽃이 활짝 핍니다.

또 한 권의 시집을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지난 13년 동안 나만을 사랑해 준 아내에게 이 시집을 바칩니다.
내 설레임의 근원인 좋은이와 밝은이에게도
아빠의 뜨거운 사랑을 전합니다.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2006.7.22 최용우

〈목차〉

- 1부. 설레임
- 2부. 새삼스런 발견
- 3부. 가끔 언제나
- 4부. 눈 오는 밤

11 어부동의 아침



어부동의 아침 -최용우 세 번째 시집

출판일자 /2006.8.1.

책 사이즈 /A5 국판 /148(mm)X210(mm)

카테고리 /종교 /기독교(개신교)

페이지 수 /127

제본방식/무선 /무광 /날개 A5 국판

판매가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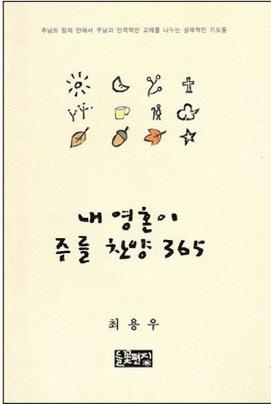
〈책소개〉 책을 열며

우리 가족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충청북도 보은의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어부동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눈앞에는 대청호 푸른 물이 넘실대고
사시사철 들꽃이 마당 가득 피어나던 곳
아침이면 새소리가 맑고 밝게 들리던 곳
그 곳
호숫가를 거닐며 쓴 시를 모아
한 권으로 엮었습니다.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2006.8.1. 최용우

〈목차〉

- 1부 어부동 들판
- 2부 꽃과 아이들
- 3부 풍요로운 날
- 4부 천국의 아침

12 내 영혼이 주를 찬양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최용우 네 번째 시집

저자/최용우 출판일자 2006.9.20. ②판2016.2.29.

책 사이즈 /A5 신국판(152X225)

카테고리 /종교 /기독교(개신교)

페이지 수 /395

제본방식/무선 /무광 /날개 A5 신국판

판매가 /15,000원

〈책소개〉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던 중에 매일 아침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주님을 부르며 한 편의 기도 찬양 詩를 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책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수침에 ‘주님!’ 하고 쓴 다음 조용히 눈을 감고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대답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때로는 주님이 영광받으시고, 때로는 사랑을 속삭여 주시고, 부드럽게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저를 칭찬하시거나 책망하시고.. 저는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내 딸들이 나에게 ‘아빠, 아빠’ 하고 불러주는 순간이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부른 다음에는 꼭 무슨 요구사항이 뒤따라오지만 그래도 그 ‘아빠’ 소리를 듣고 또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도, ‘아빠!’ ‘주님!’ 하고 불러 드리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부르면 행복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12번째 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두 딸 최정은, 최밝은에게 ‘나도 너희들이 아빠의 딸들이네 것이 자랑스러워’ 하고 속삭여 줍니다. 언제나 변함 없는 착한 아내 이인숙에게도 사랑을 고백합니다. 햇볕같은이야기 12400명 독자들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2006.9.20 용포리 책방에서 최용우 올림

13 새벽우물



새벽우물

저자/최용우 출판 2010.1.15. ②판2014.1.21

책 사이즈 /A5 신국판(152X225)

카테고리 /종교 /기독교(개신교)

페이지 수 /871

제본방식/무선 /무광 /날개 A5 신국판

판매가 /33,000원 /②판 38000원

<책소개>

옛날 우리동네 한 가운데에는 깊은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동네 사람들이 밭갈이 끝이지 않았던 우물가는 동네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들은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려 벌컥거리며 마셨고, 일하다 말고 달려와 시원하게 등목을 하기도 했고, 여자들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왁자지껄 떠들며 즐거워했습니다.

동네잔치가 있는 날에는 남자들이 우물가에 모여 돼지를 잡으며 갑론을박 이야기 꽃을 피웠고, 어느 날은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고, 어느 날은 우물가에 옹기종기 모여 동네 이장을 뽑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어떤 형과 누나가 그날 밤 우물가에서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연분이 나 두 분은 혼인을 했습니다.

우리 집은 바로 시암(우물의 전라도 사투리)옆에 붙어있었습니다. 시암옆 집 아들인 저는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일을 마친 저녁이면 집집마다 물동이를 이고 나와 저녁밥과 다음날 새벽밥을 할 물을 길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녔는지 우물 바닥이 보이면 어쩌나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 새벽 살금살금 다가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면 밤새 층층히 맑은 물이 가득 고여 새벽 하늘을 투명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피내어도 마르지 않고 다음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찰랑찰랑 물이 고이던 신비한 새벽 우물!

지난 5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한 두레박씩 퍼 올렸던 1422편의 시원한 샘물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최용우

14 플러스 예화



플러스 예화

저자/최용우 출판 2010.12.28. ②판 2017.9.6

책 사이즈 /A5 신국판(152X225)

카테고리 /종교 /기독교(개신교)

페이지 수 /479

제본방식/무선 /무광 /날개 A5 신국판

판매가 /20,000원

<책소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큐티 목상집인 <생명의삶+>에 원고를 쓰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 목상과 적용 · 코너의 글에 감동을 받고 여기저기 인용을 하고 설교 예화로 사용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밤새워 코피 흘려가며 글을 쓴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미 지면으로 발표된 글을 따로 책으로 묶는 이유는 햇별같은이야기를

<http://cyw.pe.kr> 오랫동안 사랑해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가족 같은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난 15년을 하루같이 햇별같은이야기 사역을 재미있게 감당해 올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첫째는 하나님이며 두 번째는 바로 햇별같은이야기 독자분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4번째 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립니다.

꽃보다 더 예쁜 아내 이인숙, 고등학생이 되는 좋은이,

중학생이 되는 밝은이에게 아버지의 변함 없는 사랑을 전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2010번째 성탄절 아침에

<목차>

- | | | |
|---------|-------------|----------------|
| 1. 시편 | 6. 로마서 | 11. 베드로전후서 |
| 2. 민수기 | 7. 고린도전후서 | 12. 요한123서 |
| 3. 이사야 | 8. 빌립보서 | 13. 부활, 성탄절 묵상 |
| 4. 아모스 | 9. 데살로니가전후서 | |
| 5. 누가복음 | 10. 디모데전후서 | |

15 맛있는 후보 (주보1)



맛있는 후보(파일CD보함) (주보1)

저자 / 최용우 출판 / 2011년 12월 1일

책 사이즈 / A5 국판 / 148(mm)X210(mm)

카테고리 / 종교 / 기독교(개신교)

페이지 수 / 230

판매가 / 30,000

〈책소개〉 맛있는 후보를 차렸습니다

절대 빈곤의 시대에는 양을 많이 주는 식당이 좋은 식당이었다면, 먹는 문제가 해결된 지금은 맛있는 식당을 좋은 식당이라 하며 거리불문하고 찾아갑니다.

교회 후보도 맛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교회의 후보를 보면 됩니다. 후보에는 그 교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목표는 무엇이며, 목회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성도들의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는 그 교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후보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후보를 잘 만들어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게 읽을 수 있는 후보를 만들도록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 하다가 아예 후보의 한 면을 편집하여 파일로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맛있는 후보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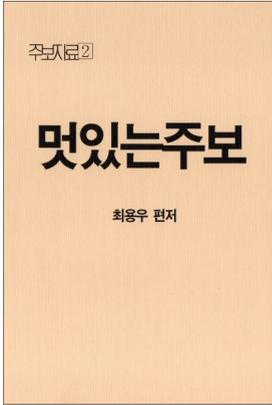
15번째 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립니다. 꽃보다 더 예쁜 아내 이인숙, 언제나 해맑은 큰딸 좋은이, 언제나 명랑한 작은딸 밝은이에게 아빠의 변함없는 사랑을 전합니다.

특별히 매주 후보자료를 직접 사용해 보고 깨알같은 피드백을 해주신 청주열린교회 김경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12.1 인우재(仁雨齋)에서

최용우

16 멋있는주보 (주보2)



멋있는 주보(파일CD보함) (주보2)

저자 / 최용우 출판 / 2011년 12월 1일

책 사이즈 / A5 국판 / 148(mm)X210(mm)

카테고리 / 종교 / 기독교(개신교)

페이지 수 / 224

판매가 / 30,000

〈책소개〉 멋있는 주보를 받으세요^^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주보를 만들어오는 전통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해오던 습관대로 변함 없이 늘 똑같은 주보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처럼 교회 주보도 좀 멋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교회의 주보를 보면 됩니다. 주보에는 그 교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목표는 무엇이며, 목회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성도들의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는 그 교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주보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주보를 잘 만들어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멋있는 주보를 만들도록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 하다가 아예 주보의 한 면을 편집하여 파일로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멋있는 주보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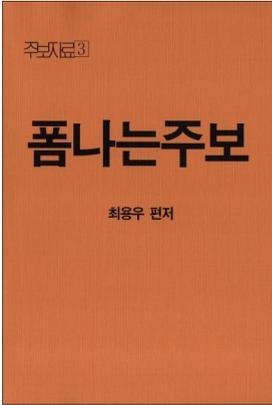
16번째 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립니다. 꽃보다 더 예쁜 아내 이인숙, 그림을 잘 그리는 큰딸 좋은이, 공부를 잘하는 작은딸 밝은이에게 아빠의 변함 없는 사랑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주보를 사용해 주신 전국 2000여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2011.12.1 인우재(仁雨齋)에서

최용우

17 품있는주보 (주보3)



품나는 주보(파일CD보함) (주보3)

저자 /최용우 출판 /2011년 12월 1일

책 사이즈 /A5 국판 /148(mm)X210(mm)

카테고리 /종교 /기독교(개신교)

페이지 수 /224

판매가 /30,000

〈책소개〉 품나는 주보로 ^^

성도들이 주보를 외면하는 이유는 주보에 별로 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순서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불일이 없고, 헌금자 명단은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 나면 끝이고, 광고는 광고시간에 인도자가 말로 다 해주니 일부러 안 봐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주보에 매주 신선하고 알찬 내용의 글이 있다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보를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디자인은 시각적인 효과를 뇌에 각인시키지만, 글은 지성을 자극하고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보는 것보다 읽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품나는주보는 보여주는 디자인의 요소보다 어떤 내용을 읽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근사하고 품나는 내용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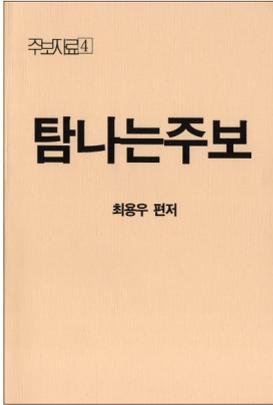
17번째 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립니다.

꽃보다 더 예쁜 아내 이인숙, 보송보송한 것을 좋아하는 큰딸 좋은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작은딸 밝은이에게 아빠의 변함 없는 사랑을 전합니다.

2011.12.1 인우재(仁雨齋)에서

최용우

18 탐나는주보 (주보4)



탐나는 주보(파일CD보함) (주보4)

저자 / 최용우 출판 / 2012년 12월 17일
 책 사이즈 / A5 국판 / 148(mm)X210(mm)
 카테고리 / 종교 / 기독교(개신교)
 페이지 수 / 224
 판매가 / 30,000

〈책소개〉 부러우면 지는 거대! 그래도 부럽다 -탐나는주보

기독교는 책의 종교이며 하나님은 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성경책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구원의 도리가 명확하게 명시된 성경책이 없었다면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기독교 진리는 소멸되었거나 변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하나님을 체험한 내용들을 책으로 남겨 놓습니다.

또한 교회마다 '주보'를 발행합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어떤식으로든 문서를 발행 하는데, 이는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렇다면 이왕에 만들 주보라면 누구나 탐낼 그런 멋진 주보를 만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탐나는주보가 멋진 주보를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편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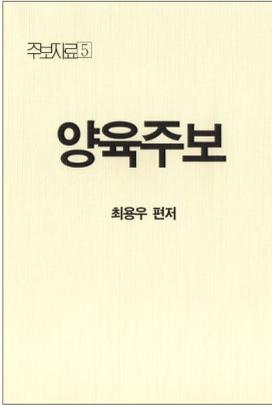
18번째 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립니다.

꽃보다 더 예쁜 아내 이인숙, 항상 웃는 얼굴의 큰딸 좋은이, 언제나 환한 얼굴의 작은딸 밝은이에게 아빠의 변함 없는 사랑을 전합니다. 특별히 매주 주보자료를 직접 사용해 보고 깨알같은 피드백을 해주신 청주열린교회 김경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용우

2012.12.17 인우재(仁雨齋)에서

19 양육주보 (주보5)



양육 주보(파일CD보함) (주보5)

저자 / 최용우 출판 / 2012년 12월 17일

책 사이즈 / A5 국판 / 148(mm)X210(mm)

카테고리 / 종교 / 기독교(개신교)

페이지 수 / 224

판매가 / 30,000

〈책소개〉 성도들을 강한 십자가 군사로 양육(養育)하는 -양육주보

〈양육주보〉는 주보의 내용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하여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한다.〉는 주제에 맞추어 글의 수준을 확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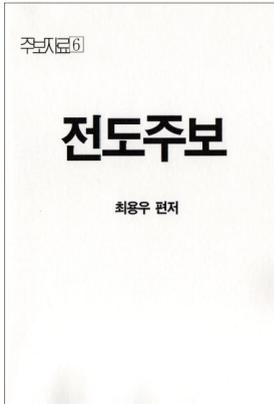
일주일마다 한번 주일예배 드려주는 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게으른 기독교인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하나 없는 쪽정이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세계는 그 깊이가 이 세상에서는 견줄 것이 없는 무한 광대한 세상임에도 몇 년 교회 다닌 것으로 이미 다 알아버렸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읽어야 될 화끈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19번째 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립니다. 꽃보다 더 예쁜 아내 이인숙, 드디어 고3이 된 큰딸 좋은이, 중3이 된 작은딸 밝은이에게 아빠의 변함 없는 사랑을 전합니다.

2012 12.17 인우재(仁雨齋)에서

최용우

20 전도주보 (주보6)



전도 주보(파일CD보함) (주보6)

저자 / 최용우 출판 / 2012년 12월 17일
책 사이즈 / A5 국판 / 148(mm)X210(mm)
카테고리 / 종교 / 기독교(개신교)
페이지 수 / 224
판매가 / 30,000

〈책소개〉 죽기 살기로 전도하자! 전도주보

주일예배를 마치고 그대로 버려진 주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보를 잘 만들면 버리지 않을텐데...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주보,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주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6년전 처음 만든 주보가 ‘전도주보’였습니다.

주보를 한번만 보고 버리기에는 주보 만드느라 들어간 비용과 시간과 정성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주보를 전도지처럼 만들어 교회에서 사용하고 난 다음 집에 가면서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도주보가 발전하여 ‘맛있는주보 - 멋있는주보 - 품나는주보 - 탐나는주보 - 양육주보’ 까지 만들어졌습니다. 5년이 지나다 보니 첫째 뒤통도 모르고 만들었던 전도주보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전도주보’를 새롭게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전도하자! 죽기살기로 전도하자! 남을 살려야 내가 산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겠는데, 사실 적당한 전도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진 전도지는 불신자들에게 외면 받기에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주보는 일부러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보편적이고 쉬운 문장을 사용하였습니다. 복음은 선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확 드러내버렸고, 더불어 불신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감성적인 글을 4편씩 담았습니다. 전도주보를 통해 대대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새신자가 넘쳐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요동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0번째 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립니다.

꽃보다 더 예쁜 아내 이인숙, 얼굴이 밝은 큰딸 좋은이, 태도가 좋은 작딸 밝은이에게 아빠의 변함 없는 마음을 전합니다. 2012 12.17 인우재(仁雨齋)에서

21 명품주보 (주보7)



명품 주보(파일CD보함) (주보7)

저자 /최용우 출판 /2012년 12월 17일
책 사이즈 /A5 국판 /148(mm)X210(mm)
카테고리 /종교 /기독교(개신교)
페이지 수 /224
판매가 /30,000

〈책소개〉 명품주보로 명품신앙! 명품교회들!

오랫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에게서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향기가 납니다. 따뜻하고 자유로우며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이 느껴집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포근해지고 행복해지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안될 것 같은 위엄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막힘이 없고 자연스러우며 개구쟁이 같은 천진난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입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사랑, 그 밝은 빛이 내 안에 가득 충만하게 차 오르면 우리는 다만 그분 안에서 조용히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은 나이가 들면 정금같이 빛나는 '명품신앙'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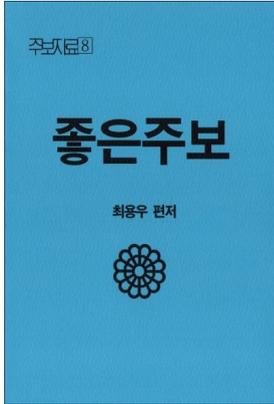
올해 주보는 '명품신앙'이라는 주제로 편집했습니다.

21번째 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립니다.

꽃보다 더 예쁜 아내 이인숙, 아빠에게 라면을 잘 끓여주는 큰딸 좋은이, 커피를 잘 타주는 작은딸 밝은이에게 아빠의 변함 없는 사랑을 전합니다.

2012.12.17 인우재(仁雨齋)에서

22 좋은주보 (주보8)



좋은 주보(파일CD보함) (주보8)

저자 / 최용우 출판 / 2013년 12월 16일
책 사이즈 / A5 국판 / 148(mm)X210(mm)
카테고리 / 종교 / 기독교(개신교)
페이지 수 / 224
판매가 / 30,000

〈책소개〉 하루종일 함박눈이 소리 없이 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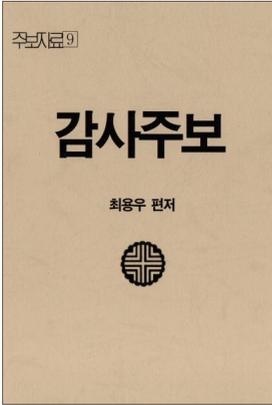
온 세상을 흰색으로 덮어 버렸네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을
저렇게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밤새워 작업한 좋은 주보 자료집을 내놓습니다.
8년전 우연히 시작한 주보자료집 작업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습니다.
해마다 주보자료를 사용하는 교회도 늘어나고 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22번째 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립니다.
꽃보다 더 예쁜 아내 이인숙, 봄이오면 대학생이 되는 큰딸 좋은이,
고등학생이 되는 작은딸 밝은이에게 아빠의 변함 없는 사랑을 전합니다.
매주 주보를 잘 사용하여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대전 도토리교회 김대철 목사님과 김정애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13.12.16. 인우재(仁雨齋)에서

23 감사주보 (주보9)



감사 주보(파일CD보함) (주보9)

저자 / 최용우 출판 / 2014년 12월 8일
책 사이즈 / A5 국판 / 148(mm)X210(mm)
카테고리 / 종교 / 기독교(개신교)
페이지 수 / 224
판매가 / 30,000

〈책소개〉 항상 감사하라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8)하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인데 ①기쁨 ②기도 ③감사입니다. 저는 이중에 ③감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①기쁨 ②기도는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 깊이 묵상하다가 이번 주보의 주제를 ‘감사’로 정했습니다.

감사주보를 사용하는 교회마다 감사의 쓰나미가 몰려와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23번째 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립니다.

주보자료집을 만드는데 교정으로 도와준 아내와 대학생이 되어 젊음을 만끽하는 큰딸 좋은이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기를 보내는 고등학생 밝은이에게 아씨의 따끈따끈한 찜빵같은 사랑을 전합니다.

주보자료를 사용하는 전국의 500여 교회와 매주 주보를 잘 사용하여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대전 도토리교회 김대철 목사님과 김정애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12.8 인우재(仁雨齋)에서

24 기도주보 (주보10)



기도 주보(파일CD보함) (주보10)

저자 / 최용우 출판 / 2015년 12월 21일
책 사이즈 / A5 국판 / 148(mm)X210(mm)
카테고리 / 종교 / 기독교(개신교)
페이지 수 / 224
판매가 / 30,000

〈책소개〉 기독교는 기도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하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인데 ①기쁨 ②기도 ③감사입니다.

지난해 〈감사주보〉를 만들었고 올해 주보는 〈기도주보〉입니다.

기도와 감사는 서로 떼어낼 수 없는 마치 부부 같은 짝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도가 식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신년기도회에 1천명씩 모였었는데, 올해는 50명 모였다며 어느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한탄을 하시더군요.

기도주보는 일년 내내 ‘기도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합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기도의 불이 붙게 됩니다.

24번째 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립니다.

그동안 주보자료집을 만드는데 교정으로 도와준 아내와 대학생으로 젊음을 만끽하고 있는 큰딸 좋은이와 비행기도 멈추게 하는 고3 작은 딸 밝은이에게 아빠의 따끈따끈한 봉어빵 같은 사랑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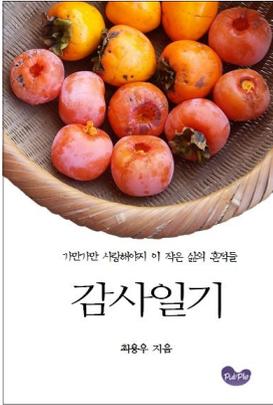
주보자료를 사용하는 전국의 500여 교회와 항상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대전 주님의교회 한용일 목사님과 정희진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15.12.21 인우재(仁雨齋)에서



4. 교보문고 퍼플 발행 책

25 감사일기 (일기7)



감사일기 -이 작은 삶의 흔적들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16.1.28

카테고리/ 잡지 > 문학/교양

책사이즈/ NEW A5 신국판(152x225)

표지/아트지 25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 (흑백)

페이지/392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4,100원

ISBN: 978-89-24-037555

〈책소개〉

겨울에 가장 강렬한 기억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어느 겨울 강진 다산초당(茶山草堂) 마당의 눈 위에 푹푹 떨어져 있던 붉은 동백꽃이 금방 머리에 떠올랐다.

그때 벗을 만나러 달려갔다가 벗은 없고 마당에 까만 개만 꼬리를 흔들고 있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나왔다. 전화를 했더니 몇 시간 후에 들어온다고 하여 그림 될 할까 하다가 가까이에 있는 뒷산 언덕을 올라가 다산초당 마루에 앉았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와 10년간 머물면서 500권의 책을 썼다는 곳 다산의 제자들이 기거했다는 서암을 보니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곳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까 싶다. 정약용의 집필실이었다는 동암은 내 책방보다도 더 작았다.

그때, 다산은 하얀 눈 위에 떨어진

붉은 핏빛 동백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감사하다. 아무리 사소한 것들이라도

감사하지 않은 것들이 없다.

소중하다. 아무리 작은 것들이라도

소중하지 않은 것들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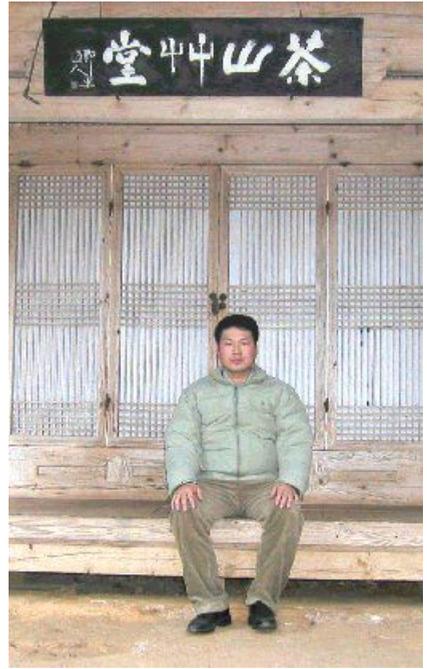
가만가만 사랑해야지 이 작은 삶의 흔적들!

25번째 책을 주신 주님께 영광!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목차〉

1월 감사의 달
2월 기쁨의 달
3월 다짐의 달
4월 행복의 달
5월 사랑의 달
6월 초록의 달
7월 휴식의 달
8월 사랑의 달
9월 믿음의 달
10월 열매의 달
11월 추수의 달
12월 심의 달
꽃 70
진달래꽃 134
꾸벅꾸벅 198
동네 이름 294
감 358



〈뒷표지〉

읽다보면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지어지는 책!
읽다보면 저절로 마음이 착해지는 책!
읽다보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며
내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내 가족과 이웃에게 고마워하게 되는 책!

감사하다. 아무리 사소한 것들이라도
감사하지 않은 것들이 없다.
소중하다. 아무리 작은 것들이라도
소중하지 않은 것들이 없다.
가만가만 사랑해야지 이 작은 삶의 흔적들!

⑩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시4)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16.2.29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트지 25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흑백)

페이지/398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6,300원

ISBN: 978-89-240-39245

<책소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실제적인 기도들. 그냥 따라 읽다 보면 어느새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 사랑, 기쁨, 감사, 행복이 가득한 366편의 글을 매일 한편씩 읽을 수 있도록 편집하였고, 선물하기에 좋게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노트를 펼쳐놓고 연필을 들고 “주님!”하고 부르면서 떠오르는 영감을 그대로 받아 적은 하나님과 함께 쓴 책입니다.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던 중에 매일 아침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주님을 부르며 한 편의 기도 찬양 詩를 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책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수첩에 “주님!” 하고 쓴 다음 조용히 눈을 감고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대답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때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때로는 사랑을 속삭여 주시고, 부드럽게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저를 칭찬하시거나 책망하시고.. 저는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내 딸들이 나에게 “아빠, 아빠” 하고 불러주는 순간이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부른 다음에는 꼭 무슨 요구사항이 뒤따라오지만 그래도 그 “아빠” 소리를 듣고 또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도, “아빠! 주님!” 하고 불러 드리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부르면 행복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목차〉

1월 희망	4월 부활	7월 찬양	10월 웃음
2월 믿음	5월 행복	8월 자유	11월 열매
3월 영광	6월 사랑	9월 기쁨	12월 탄생

〈뒷표지〉

주님!
오직 주님만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만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흥분이 되고
감격과 설레임으로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은 제게 그런 존재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
기뻐 뛰며 주의 영광을 보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여기가 천국
오직 예수 나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무료배송

내 영혼이 주를 찬양 365

최용우 지음 | 퍼플 | 2016년 02월 29일 출간 (1쇄 2016년 03월 0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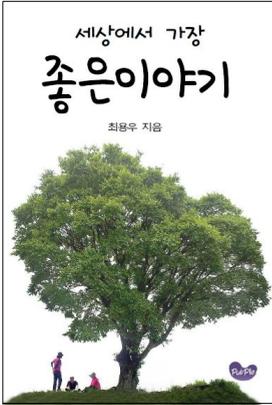
정가 : 14,300원 398쪽

판매가 : **14,300원** [0%↓ 0원 할인]

제휴할인가 : **13,580원** 교보-KB국민카드 5% 청구할인(실적무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실제적인 기도들.
그냥 따라 읽다 보면 어느새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⑧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 (햇별1③판)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16.3.12

카테고리/ 잡지 > 문학/교양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트지 25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흑백)

페이지/722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24,300원

ISBN: 978-89-24-039023

〈책소개〉

싱싱하고 좋은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인생이 되려면 좋은 글을 많이 읽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 책은 조선일보<이규태 코너>를 보고 '나도 매일 밝고 좋은 글 한편씩 써 보자' 하고 시작한 <햇별같은이야기>칼럼을 모은 책입니다. 이규태 코너는 끝났지만 <햇별같은이야기>는 1만화를 목표로 2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햇별같은이야기>칼럼은 그동안 라디오 방송으로 매일 읽혀졌고, 주간 기독교 신문에 10년 동안 연재되기도 했고, KBS <TV동화 행복한 세상>에 여러 편이 예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방송되었습니다.

어떤 신문은 이 책을 '한 젊은 목회자가 넥타이 풀고 솔직하게 쓰는 이야기'라고 평했습니다. 독서광인 저자의 해박한 지식이 가득한 1천편의 보석 같은 글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5권의 단행본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인데 가격을 낮추려고 한권에 꼭꼭 눌러 담아 뽕뽕이 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쪽을 펴서 읽어도 새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하여 좋은 설교 예화집으로도 좋고, 기분이 울적할 때 기분전환을 위한 책으로도 최고의 책입니다.

2005년 말에 '햇별같은이야기'에 쓴 글을 약 1천편씩 모아 2권의 합본집을 만들었습니다. 600쪽 700쪽이 넘는 보물 같은 책이 나오자마자 금방 판매가 다 되어 다시 한번 재판을 찍었습니다. 재판도 1년만에 다 나가고 워낙 출판비용이 크게 들어가는지라 더 이상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다시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못들은 척 하다가 이번에 교보문고를 통해 다시 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내면서 내용도 대폭 손을 보았습니다. 제목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이야기’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이야기’로 바꾸었습니다. 햇볕같은이야기는 단순히 좋은 글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고 하루에 한 편씩 20년 동안 꾸준히 쓴 책입니다. 그야말로 액기스 같은 글들입니다. 어다를 펴서 읽어도 글 한편 한편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목차〉

제1부 하늘을 보세요

1.짐의 무게 2.사랑을 찾습니다 3.기독교인과 비누 장수 4.잠시 등불을 꺼 보세요 5.두드려야 할 곳 6.예배시간 풍경 7.우물 파기 8.지금, 힘드신 분들께 9.제일 악한 사람 10.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11.왜 보보해 주지 않으세요? 12.다섯 가지 비밀 13.먹을 수 없는 것은? 14.고양이 15.생명의 힘 16.사탄이 웃는다 17.꽃이 됩시다 18.고함지르기 19.하늘의 집 20.천국 예약생략

제2부 반가운 소식

240.돼지 키우기 241.삶의 의지 242.비뚤어진 입맞춤 243.꿈을 성취시키려면 244.복 받을 짓 245.문이 잘 열려야지요 246.○○은 무엇? 247.사람들 놀래 주기 248.아이와 노인이 찢찢 매는 것 249.성공계획 250.씨 프린스의 혀 251.잡아야 될 생쥐 세 마리 252.마음먹기 나름 253.말 254.훌륭한 대통령 255.언더우드와 남자들 256.사랑 받는 남편 십계명 257.싫지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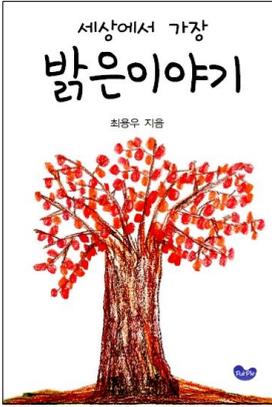
제3부 행복한 집

489.해마다 그랬던 것처럼 490.빨리, 바빠, 헉! 헉! 491.책 좀 읽자니까요! 492.어느 어부의 이야기 493. 9월을 1960년 굴리면? 494.나는 산수 박사다 495.눈이 내리면 왜 강아지가 496.대단한 자존심 497.한밤중에 공동묘지 498.육체의 소욕을 결단하는가? 499.직장인을 위한 조언 열 가지 500.얼굴 501.계산법 502.손가락질을 503.멋있는 사람 504.감기 505.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생략

제4부 예수님의 마음

801.흙 한 덩이 802.산 밭 803.손가락 하나로 804.실패를 즐기는 사람 805.다른 말 열 가지 806.죄를 807.어떤 부부가 오래 살까 808.안녕하세요 809.행복해지기 810. IMF 열 가지 811.내 책임 812.장애인과 청년 813. 5년 다이어리 814.돈, 천당, 지옥 815.어머니와 닭도리탕 816.가방 속에서 나온 것은 817.둥글게 앉아서 818.희망의 꽃다발 819.절대 감속 820.나의 고향 821.실직자 생활 십계명 822.라고 하지 말고 823.균함을 끌어올리는 힘 824.생존 전략 10가지 825.불릴 재산 열 가지 826.버릴수록 돈 버는 것 827. 100원어치 더 쓰세요 828.호랑야 미안하다 829.털장갑 830.마음이 통하는 보석생략

⑨ 세상에서 가장 밝은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밝은 이야기 (햇별2③판)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16.4.3

카테고리/ 잡지 > 문학/교양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트지 25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흑백)

페이지/720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23,900원

ISBN: 978-89-24-039917

〈책소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 세상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언제나 밝은 곳을 지향합니다. 그것을 향일성(向日性 heliotropism)이라고 합니다.

밝은 인생이 되려면 밝은 생각을 하게 하는 밝은 글을 많이 읽고, 항상 표정이 밝고, 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표정이 밝은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책에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밝고 바르고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글들이 가득합니다. 이미 인터넷, 신문, 라디오방송, tv를 통해 수없이 소개되었던 저자의 글들을 어떤 신문은 ‘한 젊은 목회자가 넥타이 풀고 솔직하게 쓰는 이야기’라고 평했습니다.

독서광인 저자의 해박한 지식이 가득한 1천편의 보석 같은 글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5권의 단행본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인데 가격을 낮추려고 한권에 꼭꼭 눌러 담아 똥똥이 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쪽을 펴서 읽어도 새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하여 좋은 설교 예화집으로도 좋고, 기분이 울적할 때 기분전환을 위한 책으로도 최고의 책입니다.

〈햇별같은이야기 역사〉

1995.8.12 pc통신 Hitel plaza 〈햇별같은이야기〉 연재 시작

1997.3-1998.2 창원극동방송 〈새아침의 명상〉(5:55분)방송1년

1998.3.5 〈웃음만들기〉〈사랑만들기〉은혜출판사에서 출판

- 1998.11.4 제1000호 발행
- 1998-2000 LA라디오서울방송 매주 토요일 저녁<샌디신과 함께>방송2년
- 1999.3.10 <기쁨만들기>은혜출판사 출판
- 2000.6.15 <청소부친구가 더 좋은 이유>혜문출판사 출판
- 2001.12 -2010.1 <크리스천투데이신문>에 10년 동안 연재
- 2002.4-2003.3 제주극동방송<한낮의 음악편지>(12:30분)방송1년
- 2003.5.20 햇별같은이야기 E-메일 회원 10000명 돌파
- 2005.11.1 햇별같은이야기 합본 1.2집 펴냄
- 2008. KBS-TV <TV동화 행복한 세상> 4편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방송
- 2009.11-2010.4 극동방송<모닝칼럼>(금요일 아침7:30)방송 6개월
- 2010.1 합본 3집 <새벽우물> 펴냄
- 2016.3.20. 햇별같은이야기 시리즈 '교보문고' 에서 출판

<목차>

제1부 꽃향기

1.꽃향기 2.눈 깜짝할 순간 3.무심 4.믿은 놈이 바보지 5.해고 안 당하려면 6.잃어 버린 별천지 7.특별한 사람, 최고의 사람 8.진짜 보물 9.쩍쩍쩍 10.최부잣집 가훈 11.전화와 기도 12.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13.빛은 빛입니다 14.발가벗고 ...(생략)

제2부 멋있는 사람

186.이 좋은 것을 187.어처구니없는 기도 188.생이불유(生而不有)의 마음 189.노영심은 못생겼어도 190.비를 함께 맞는 사람 191.마음 청소 192.돌은 바로 놓고 왔느냐? 193.마음이 열린 사람 194.위스키 운동 195.참 한심한 사람들 196.함박눈이 옵니다 197.한국 개 미국 개 198.시계와 생명 ...(생략)

제3부 행복한 아침

357.똑바로 358.달달부부, 돈돈부부 359.밟고 있는 것은? 360.긴 긴 기다림 361.마법의 돌 362.수류탄 웅덩이 363.답답한 진찰 364.정신 차려야 할 때 365.우울증 치료 366.내 옆에 계신 분 367.이민가는 사람들 368.관점과 감정...(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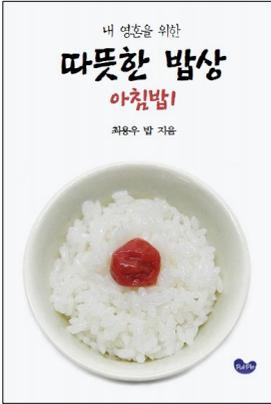
제4부 아름다운 세상

459.올해는 마치 460.중요한 결정 461.기도제목 10가지 462.사랑으로 463.선택 464.날마다 새 다짐 465.흐름 466.왜 오른쪽 신발만 467.사랑합니다 ...(생략)

제5부 사랑합니다

692.새해 아침 들판에서 693.길 694.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695.외로움 696.세 가지 보물 697.자연 속에 살려면 698.왜 광고는 여자를 ...(생략)

26 따뜻한 밥상1 (창-왕하)



따뜻한 밥상1-아침밥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16.4.18

카테고리/ 잡지 > 문학/교양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트지 25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흑백)

페이지/400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4,300원

ISBN: 978-89-24-039566

<책소개>

오늘 아침 밥 드셨습니까? 사람의 몸은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밥을 시원찮게 먹거나 깨작거리는 사람도 부실한 사람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도 밥을 묵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밥을 시원찮게 먹거나 굶는 사람은 영의 힘이 없으니 당연히 육의 힘으로 살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혼은 영과 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리켜 '양식'이라고도 하지요.

제가 어떤 잡지의 부록으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묵상집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큐티(Quiet Time)를 했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나중에 <생명의삶>이라는 월간지로 다시 태어났지요. 아주 오랫동안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뜻을 내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서 묵상집이 새끼땀게 되도록 글을 쓰고 날마다 삶 속에서 적용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묵상집이 100권 넘게 쌓였는데도 제 신앙은 별로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변화되겠다는 나의 결심과 노력은 나의 의지(혼)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내 영이 아닌 혼에 게 밥을 먹이는 묵상이었던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 식' 묵상이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긍정의 힘'이나 '목적이 이끄는 삶' 같은 것도 비슷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안 되지요. 그게 혼만 배부르게 하는 묵상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묵상집을 버리고 단순하게 '성경'만 집중하여 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않고 그 자체로 '아멘' 혹은 '믿습니다.'하면서 인정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쪼개고 분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말씀 그 자체를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성경책만 들고 봤더니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서 활동하는 ‘영’이 말씀에 반응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눈으로 보고 누구인지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영으로 하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영의 기능이 약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은 자꾸 눈으로 하나님을 보며 달라고 하면서 눈에 안 보이니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까지 합니다.

의식으로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이 밥을 먹고 튼튼해지면 쉽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열심히 연습하면 피아노를 잘 치게 되는 것과 같이 영을 깨어나게 하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성경이 다른 고전이나 베스트셀러와 다른 점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문자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체화시키면 그 말씀에 내 영이 반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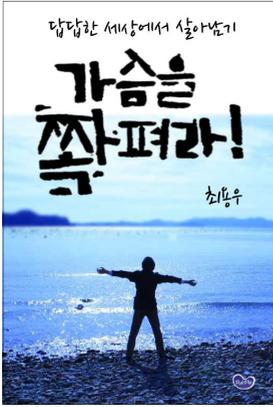
그렇게 내 영에게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빛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고 주를 마시는 기도로 영에게 생기를 주며 말씀을 계속 마시면서 영에게 밥을 주면 됩니다.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면 소화가 안 되지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영을 운동시키면 몸이 영의 기운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영의 식사, 운동을 반복하면 영이 강해지고 밝게 됩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에게 밥을 주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사람이 변하지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입니다. 말씀을 역지로 적용, 실천, 반성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떠 먹었던 기록들을 모으니 양이 제법 되어서 혹 저처럼 성경을 영혼의 밥으로 먹고 싶은 분들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도움이 될까 하여 ‘따뜻한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한 쪽이 1분이면 입을 분량이지만 저는 최소한 30분씩 말씀 가운데 거하며 흘러나온 글을 기록했습니다. 하루에 한 쪽씩 1년 365일 분량입니다.

〈목차〉

1월 창세기 1장	7월 신명기 13장
2월 창세기 14장	8월 여호수아 10장
3월 창세기 43장	9월 사사기 17장
4월 출애굽기 24장	10월 사무엘상 21장
5월 레위기 15장	11월 사무엘하 22장
6월 민수기 19장	12월 열왕기하 6장

27 가슴을 짹펴라 (햇별11)



가슴을 짹 펴라! (햇별11)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16.5.12

카테고리/ 잡지 > 문학/교양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트지 25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흑백)

페이지/308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1,600원

ISBN: 978-89-24-040364

<책소개>

답답한 소식들만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만 해도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움츠리고 소극적으로 무기력해지기에는 내 청춘과 가는 세월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사람의 가슴 양쪽에는 폐가 있습니다. 폐는 코를 통해 들어마신 공기를 산소와 그 밖의 성분으로 분류를 한 다음 산소는 즉시로 심장으로 보내고 다른 공기는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합니다.

심장에 다다른 산소는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 혈액이라는 길을 따라 머리로 50%가 올라가고 나머지는 온몸에 골고루 전달됩니다. 온 몸에 산소가 잘 전달되면 몸이 건강하고, 특히 머리에 신선한 산소가 잘 공급되면 기분이 상쾌해지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소에 폐의 70%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울하다고 가슴을 움츠리면 50%로 떨어집니다. 단순히 가슴을 짜악-----! 펴는 것만으로도 폐의 80-90%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지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어찌해보려 해도 가슴을 짜악! 펴고 숨만 잘 쉬어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이겁니다.

공기가 맑고 깨끗한 곳을 자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등산을 권합니다. 마치 땅 속 깊은 암반에서 천연 생수가 올라오듯, 1000m 이상 되는 산에 올라가면 거기에서만 호흡할 수 있는 놀라운 성분의 공기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잊지 마십시오! 가슴만 짹 펴도 살 수 있다! 가슴을 짜아아아....악 펴라!

〈추천〉 김경배 목사 (안디옥교회 담임)

최용우 시인을 알게 된 것은 근 20년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이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최용우 시인은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내는 재능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무섭게 생겼는데(?) 늘 다정다감한 이웃집 형님 같은 푸근함, 그리고 시대를 보는 냉철한 판단력 등이 있습니다.

최용우 시인의 글은 첫 번째로 아주 쉽고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주제가 항상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으면서 우리가 잊고 살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까지도 재미있는 관점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있어서 읽으면 ‘아하’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간략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즘 책들은 자기 사상을 복잡하게 풀어내는 경향이 있는데, 최 시인의 책은 간략하지만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놓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도 큰 기대가 됩니다. 많은 독자들에게 읽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평안을 줄 것을 기대합니다. 오랫동안 변함없이 그를 옆에서 보아온 친구로서 최 시인의 책을 기쁘게 추천합니다.

〈목차〉

1부-기슴을 짝 찢래!

1.기슴을 짝 찢래! 2.생명과 죽음 3.떡 사려 떡떡 4.믿음 소망 사랑 5.행복한 사람들 6.눈 온 다음날에는 7.빵점 8.무엇이 보이세요? 9.루치아노 파바로티 10.무덤에서 말하는 사람들 11.너는 네 운명 나는 내 운명 12.리스도인이기 때문에 13.곰아, 고맙습니다 14.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 15.예수님의 집 16.대상 수상 소감 17.역지사지 18.합법적인 권리 19.돈과 사람 20.주님의 목소리 21.자녀들을 꾸짖지 마 십시오 22.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사람 23.열반아서 방방뜨는 교회 ...(생략)

2부-온 마음을 다하여

49.온 마음을 다하여 50.세 가지 이단 51.시춘이 땅을 사면 춤추는 나라 52.순수한 신앙 53.존재감 54.절대복종, 반드시 실행 55.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56.비발디의 사계중 봄 57.내가 만들고 싶은 교과서 58.용납할 수 없는 것...(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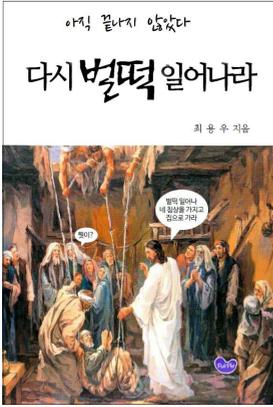
3부-밥 드렸어요?

4부-좋다 좋아

5부-사랑입니다

6부-양심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28 다시 벌떡 일어나라 (햇별12)



다시 벌떡 일어나라 (햇별12)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16.5.31

카테고리/ 잡지 > 문학/교양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트지 25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흑백)

페이지/336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2,400원

ISBN: 978-89-24-041248

<책소개>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단 10초도 꿈지락거리지 않고 오른손 왼손으로 이불의 양쪽 끝을 잡고 1초만에 벌떡 일어나 5초만에 이불을 차차 개 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아내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그렇게 하면 몸에서 갑자기 열이 빠져나가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큰일 날 수 있다고 극구 말합니다.

왜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초도 안 걸렸냐 하면, 잠에서 깨었다는 느낌이 싫은 거예요. 이불 속의 그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 속에서 벗어나기도 싫고 해서 그 '싫은 느낌'이 오기 전에 그냥 벌떡 일어나버리는 방법을 쓴 것이지요. 어차피 일어날 거 이불 속에서 알을 품으며 시간낭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항상 저보다 먼저 일어나기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옆에서 붙어 자도 잠들어 버리면 모르잖아요. 잠들기 전에는 '자기 사랑해' 어찌고 하면서 마주보고 자도 자다가 오줌 마려워 깨보면 각자 편한 대로 등 돌리고 잡니다.

잠들면 모릅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 굉장히 신비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의식이 또렷해지려는 그 순간에 비몽사몽(非夢似夢)하면서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으로 엿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깨어남의 신비입니다.

일어나기 '싫은 느낌'은 그 '깨어남의 신비'를 잘 모르고 무의식에서 의식으로의 강제 전환시키려는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다'는 느낌으로 뇌에 저장된 것이지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과정도 아침에 일어나는 과정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잠들어 있으면 모릅니다. 조금씩 조금씩 '깨어나야' 그 깨어남의 신비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을 '다시 벌떡 일어나라'로 정했습니다.

이런저런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움직이지 않고 드러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누우면 밑바닥만 보입니다. 세상이 온통 불평불만과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있는 것이 보이고, 일순간 그런 현상에 동화가 되면 신앙의 가치관과 목표까지도 희미해져 버리지요.

드러누워서 세상의 밑바닥만 쳐다보니 세상에 온통 더러운 것만 보이고, 사회의 부조리만 보이고 세상이 자기만 왕따시키는 것 같고, 자기만 손해 보는 것 같은 순간에 염세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드러누워 자빠져 있는 자들에게 진리이시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명령합니다.

“벌떡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눅5:24) 벌떡 일어나서 뛰어야 삽니다. 벌떡 일어나면 세상의 온갖 불평 불만 투성이 꿈과 희망으로 변화됩니다. 벌떡 일어나 바라보는 세상은 밑바닥이 아니라 위를 올려다보는 넓은 세상입니다.

저 자신도 벌떡 일어나야 하고, 한국 교회도 벌떡 일어나야 하고, 이 나라도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나라도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추천〉 이재익 목사(일본 니이가타교회)

최용우 전도사님이 쓴 글들은 깊은 산속에서 졸졸졸 흘러나오는 샘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시고 싶어지는 ‘옹달샘’ 같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아까워 몰래 숨겨 놓고 혼자만 마시고 싶을 정도로 시원하고 기가 막힌 맛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싶어 하는 몸부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이란 말이 있습니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뜻으로, 중국 한(漢)나라의 장군 조충국(趙充國)이 한 말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최용우 전도사님의 어떤 책이든 글이든 한번만 보면 재미있고 기발하며 생생하게 살아있어 영혼을 깨우는 펄떡이는 글 속으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메마르고 굳어진 이 때에 하나님께서 최전도사님을 세상에 드러내셔서 햇볕처럼 따뜻한 영성의 글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심령에 예수의 빛을 비추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진심으로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목차〉

- 1부. 다시 벌떡 일어나라
- 2부. 호연지기를 기르라
- 3부. 아름답고 행복한 삶
- 4부. 그럴수도 있겠네
- 5부. 당신은 어떤 사람이죠?
- 6부. 십자가의 가르침

29 정정당당 잘살자 (햇별13)



정정당당 잘 살자 (햇별13)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16.6.14

카테고리/ 잡지 > 문학/교양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트지 25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흑백)

페이지/336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2,400원

ISBN: 978-89-24-04084-5

<책소개>

할렐루야

정정당당하게 겨워서 이겼다면 너무 자랑스러운 승리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워 이겼다면 칭찬 받을 만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겨워서 졌다면 아름다운 패배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웠지만 졌다면 다음을 기약하게 됩니다.

정정당당한 게임은 지든 이기든 모두를 당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겨워서 이겼다면 부끄러운 승리입니다.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싸워 이기면 아유를 받게 됩니다.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겨워서 졌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싸워서 지면 마음에 증오심이 생깁니다.

정정당당하지 못한 게임은 지든 이기든 모두를 망하게 합니다.

프랑스 테니스 선수인 '코세'와 미국 선수인 '칠덴'이 데이비스컵 대회에서 경기를 할 때의 일입니다. 칠덴 선수의 강렬한 서브가 코세 선수의 그라운드 라인에 아슬아슬하게 맞았고, 심판은 공이 라인 밖으로 나갔다고 판단하고 '아웃'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코세 선수는 심판에게 걸어가 "이번 서브는 아웃이 아니라 세이프이며 라인안쪽에 떨어졌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공이 떨어진 정확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심판은 판정을 정정하여 세이프를 선언하고 상대편 칠덴 선수에게 1점을 주었습니다. 공이 떨어진 지점이 애매하여 만약 코세 선수가 가만있었다면 그냥 자신이 1점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는 애매하게 점수를 얻기보다 어디까지나 정정당당하게 싸

워서 점수를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 곧바로 코세 선수가 서브를 했을 때 칠덴 선수는 일부러 공을 받아 라인 밖으로 쳐서 코세 선수에게 1점을 얻도록 해주었습니다. 1점을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다시 1점을 되돌려준 것입니다.

관중들은 이 멋진 메너의 두 선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을 '정정당당 잘 살자'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이한 병이 화병(火病)이라고 합니다. 특정 정신적 질환 증세를 일컫는 말이며, 세계정신의학회에서도 화병의 표기를 'Hwa-Byung'이라고 합니다. 유사한 병으로 울화병(鬱火病)이 있습니다. 이 병의 원인은 '억울함'입니다. 억울한 것을 꼭 참고 견디다보니 그것이 안으로 쌓이고 쌓여 병이 된 것입니다. 왜 억울합니까? 정정당당,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특혜와 뇌물과 편법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심판자가 되어야 할 정부마저도 특정한 세력이나 지역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대놓고 편파를 저지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힘없고 백 없고 돈 없어 속 터지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불평등과 불공정과 편파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는 '올바르고 공평한 것', '악인을 처벌하고 의로운 사람의 원한을 풀어 주는 재판관의 공정한 판결', '하나님이 표준이 되는 바른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에 이 나라에 '공의'를 세울 적임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정당당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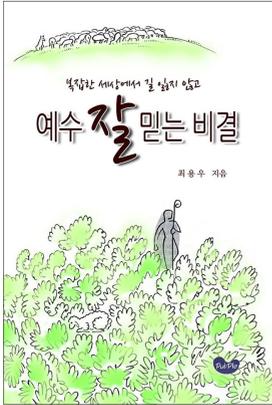
〈추천〉 김종천 목사 (에벤에셀교회 담임)

이 멋진 책을 어찌 나만 읽고 끝내겠는가? 힘주어 기쁜 마음으로 추천한다.

〈목차〉

- 1부-정정당당 잘 살자
- 2부-무한 능력
- 3부-우리엄마 곶보빵
- 4부-빛으로 더 가까이
- 5부-인간의 이해와 존중
- 6부-스스로 존재하는 신

30 예수 잘 믿는 비결 (햇별14)



예수 잘 믿는 비결 (햇별14)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16.6.14

카테고리/ 잡지 > 문학/교양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트지 25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흑백)

페이지/326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2,100원

ISBN: 978-89-24-041842

<책소개>

한번은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종말에 추수군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추수를 하려면 들판으로 가야지 어째서 교회로 오셨습니까? 남이 애써 추수해 놓은 것을 가로채는 것은 ‘도둑놈’ 아닌가요? 뭘 흠치러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갔습니다.

온갖 가짜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는지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는 혼탁한 세상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길 잃지 않고, 가짜에 속지 않으며, 진짜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유난히 ‘순수 복음’과 ‘하나님과과의 깊은 만남’에 대한 통찰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무릎으로 쓴 글을 ‘예수 잘 믿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이 세상에 내 놓습니다.

<추천 김대철 목사 (도토리교회 담임)>

최용우 전도사님은 뛰어난 관찰자이다.

그는 항상 좋은 글을 쓰기위해 일상에서 글감을 열심히 찾는다. 5년 이상 한 교회에서 가까이 지내다보니 그 열심을 자주 목격하였다. 그리고 나와 우리교회가 그의 관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 번에 이러한 글들이 ‘예수 잘 믿는 비결’이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되었다. 최전도사님의 글을 읽다보면 우리가 그냥 스쳐지나간 중요한 어떤 점이 드러난다. 그 어떤 점은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의 자물쇠를 여는 뜻밖

의 열쇠이기도 하다.

그가 다루는 주제들은 분명 가볍지 않지만 그의 글들은 복잡하거나 어렵지가 않다. 재미가 있다. 배를 잡고 웃기도 한다. 복잡함을 단순화시키는 그 만의 비결이 있는 것 같다.

이 책을 선택한 독자 분들에게 최전도사님의 글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단순화시키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정중하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목차〉

1부 -예수 잘 믿는 비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공허한 쾌락은 내던져 버리고, 단순하고 고요해지며 겸손케 되기를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당신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기어지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비결입니다.'라고 -패늘 룡(예수님 마음찾기/순전한 나드)은 말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숨기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소크라테스(Socrates)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그 '너 자신'을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보면 나 자신은 너무 형편없고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잘난 것 없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품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부족한 나를 예수님이 덮어 주셔서 세상에 돌도 없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구나! 아하~ 하고 깨닫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활기찬 +(플러스)에너지를 내며 삽니다.

반대로,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기가 나은 것이 있으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들, 남들보다 단 한 가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나, 신분이나, 나이나, 직위고하를 떠나 그 입에서 불평, 불만, 실망, 자기자랑, 자기 자부심, 자기비하 같은 -(마이너스)에너지가 나오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2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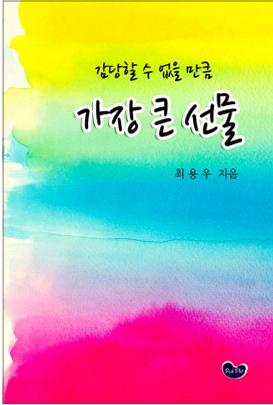
3부 -하나님을 사랑하라

4부 -예수님의 얼굴

5부 -예수 믿는 기쁨

6부 -예수님만 믿습니다

31 가장 큰 선물 (햇별15)



가장 큰 선물(햇별15)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16.7.12

카테고리/ 잡지 > 문학/교양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트지 25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흑백)

페이지/326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2,100원

ISBN: 978-89-24-041668

<책소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가장 값진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이 엄청난 선물을 거절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외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과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큰 선물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썼습니다.

<추천> 이정태 목사 (완도성실교회 담임)

최용우 전도사님의 글의 특징은 첫째로 깊은 기도의 무릎에서 나온 글들입니다. 언젠가 전도사님 댁을 방문 했을 때 기도의 방식이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신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방식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온 글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잘 새겨져 있어 읽는 이들로 하여금 진리를 사모하게 하고 진리에 이르게 합니다.

둘째로 최전도사님의 글은 삶에서 그 깨달은 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만 때로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말씀의 삶인지 막연할 때가 있다는 말들을 합니다. 전도사님의 글들은 이러한 이들에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최전도사님의 글은 깊은 묵상으로 인도합니다. 쉽게 읽어지고 간략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영적 진리와 넓은 혜안이 있으며 높은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어린 아이부터 진리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더 깊이, 넓게, 높이, 사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기에 이 책을 추천합니다.

남도의 끝자락 작은 섬에서 이정태 목사 (완도성실교회 담임)

〈목차〉

제1부-가장 큰 선물

수능(대학입시수학능력시험)을 치루는 날 아침 고3 딸에게 여기저기서 시험을 잘 보라는 의미로 선물을 막 줍니다. 옛 찹쌀떡, 인절미, 초콜릿, 한 사모님은 문제를 술술 잘 풀라고 ‘술술잘풀리는 화장지’를 한 덩어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빠인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한 후에 하나님의 ‘꿈’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시다고 한다. 너를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화가’로 만들고 싶으시다는구나. 이 꿈은 오래 전부터 너를 위해 기도할 때 마다 아빠의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것인데, 이번에 붙잡아라.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너를 반드시 oo대학에 보내 주실 것이다. 네가 ‘예 주님.’ 하고 꿈을 붙잡으면 넌 반드시 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꿈과 환상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환상이 있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꿈을 이룰 때까지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라고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인 ‘꿈과 환상’을 신문을 보다가 받았습니 다. 그리고 그때 붙잡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30년을 한결같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변함없이 달려가다가 꿈의 열매를 내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세처럼 그 입구까지 가서 멈추게 된다면 후손들이 그 열매를 따겠지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술술잘풀리는 화장지’보다도 더 인생이 잘 풀립니다. 태풍이 나를 덮쳐온다 해도 겁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원하는 사람 누구나 주십니다.

제2부-지금 나무를 심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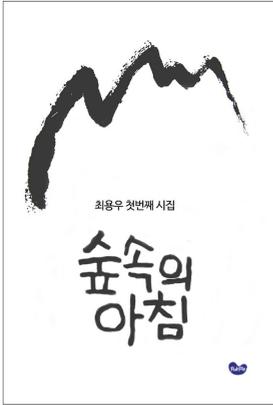
제3부-한 가지씩만

제4부-내 속에 있는 것들아

제5부-지금 행복하라

제6부-복 있는 사람

⑦ 숲속의 아침 ④판



숲속의 아침 ④판 2016.7.28.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16.7.19

카테고리/ 잡지 > 문학/교양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트지 25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흑백)

페이지/138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7,200원

ISBN: 978-89-24-042450

<책소개>

알고 보니 시란 더 이상 암호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시를 논하는 이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란 우리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삶을 기록하니 그것이 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은 제게 너무 소중한 달이었고
날밤을 세워가며 단말기에 붙어 자판 두들기는 소리를
들어야 했을 아내에겐 불면의 기간이었습니다.
84개의 자판을 두들기며 언어의 예쁜 집을 짓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예쁜 꽃을 피우며
몇 시간 동안 생각날 듯 말듯 한 단어를 기어코 찾아내
자판을 두들겼을 때, 맑은 코피 한 방울이 또르르 떨어져
마침표를 찍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인이 아닙니다. 시인 흉내만 내는 사이비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시집 비슷한 것을 내 놓으며...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4판 서문>

나의 첫 번째 시집 <숲속의 아침> 4판을 교보문고에서 만들었다. 내 이름으로 처음 만든 책이 바로 이 시집이다. 1996년 3월 10일 초판 발행일이니 결혼 한 다음 해 이다. 내 평생 가장 행복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썼던 시를 묶어서 첫 시집을 냈었다.

손 글씨로 쓴 시집을 누구 보여주기도 뭐하고 해서 소량으로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말았었다. 그렇게 끝난 책이 2000년 이후 어떤 분의 요청으로 다시 만들어 판매를 했었다.

시를 읽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에 20년이 넘도록 3판을 만들고 말았는데, 다시 기회가 와서 교보문고에서 4판을 만들었다. 세월이 지난 만큼 바뀐 맞춤법이나 미숙한 표현들을 모두 새롭게 바꾸어서 지금 읽어도 어색하지 않게 재편집하였다. 나의 첫 자식이라 그런지 가장 마음이 가는 책이다.(작가에게 책은 자식이예요^^)

〈발문〉 조덕근 목사.시인

그가 생각하는 시는 ‘그냥 삶을 기록한 그것’이다. 가장 소박하고도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시’란 삶의 기록이라는 것이 진술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의 시들은 삶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삶의 기록이 그대로 시가 되어 나온 것이다. 최용우님의 시는 우선 쉽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생활의 편린들을 간결한 언어로 기록한 일기이다.

〈목차〉

1부 -아침 시인

2부 -개척교회 목사님

3부 -아름다운 휴식

4부 -발꾸락 스무개가

새벽기도 마치고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지
방문을 열고 들어와
곤히 잠든 각시와 아기를
사랑스런 눈으로 바라 보았지.

그러다가 깜짝 놀랐지
발가락 스무개가 이불 밖으로 나와
출다고 꿈지락 꿈지락
에구! 그 어미에 그 딸!
어쩔 발 내놓고
자는 것까지 닳았는고 〈발꾸락 스무개가 전문〉

32 인생 최대의 행복 (햇별16)



인생 최대의 행복(햇별16)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16.8.16

카테고리/ 잡지 > 문학/교양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트지 25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흑백)

페이지/316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1,800원

ISBN: 978-89-24-042276

〈책소개〉

친구가 “네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뭘지 모르겠다. 보면 맨날 산에나 다니고.. 나처럼 직장에 찌들린 사람은 네가 사는 모습이 할 일 없는 한량처럼 느껴진다. 넌 뭐하고 사냐?” 하고 물었습니다.

“나? 나는 아무 일 안하고 잘 사는 사람이지. 자네 햇별같은이야기 홈페이지에 들어와 내가 쓴 글 한번이라도 읽어봤어?”

읽어봤는데 좋은 글만 잔뜩 있고 뭐... 요즘엔 어디가나 좋은 글이 널려 있어서 핸드폰만 켜면 읽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요즘엔 정말로 좋은 글이 여기저기 사방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다들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그런데 내 친구는 햇별같은이야기에 들어와서 좋은 글만 읽고 나갔나 봅니다. 그런데, 햇별같은이야기에는 좋은 글이 없습니다. 제가 좋은 글을 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디에서 글쓰기를 배운 적도 없고 하다못해 무슨 문예지 등단을 한 적도 없고 있다면 중2때 ‘소년중앙’이라는 월간지에 전국글짓기대회에서 장원을 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좋은 글을 써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주제파악 하나는 잘 합니다. 저는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글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때는 선명하게 드러내고 어느 때는 희미하게 드러내고 어느 때는 살짝 숨기고.. 제 글쓰기의 목적은 그것뿐입니다.

저는 ‘주님에 대한 글’을 쓸 만큼 학문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글’은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이 써야지 제가 쓸 글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에 대한 글’이 아니라 ‘주님의 글’을 쓰고 싶습니다. 한적한 숲길을 홀로 4시간 5시간씩 걸으면서 만난 주님, 한 시간씩 마라톤을 하면서 육체의 고통기운에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깊은 밤에 그림자처럼 다가오시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 이런 주님의 이야기를 글 속에 비누거품처럼 조금씩 조금씩 풀어내는 글을 쓸 뿐입니다. 영혼이 맑은이들은 제 글 속에 비치는 그러한 의도를 눈치 챵니다. 그리고 마치 중독된 듯 날마다 제 글을 읽는다고 합니다.

제가 쓰는 글은 그냥 보면 좋은 글처럼 보이지만 좋은 글이 아닙니다. 영혼이 떨리는 올림입니다. 주님 말씀 한 줄 얻고 싶어서 험한 산 바위를 한 시간씩 기어오르는 그 고통을... 잘 모르는 사람 눈에는 한량처럼 보이겠지요?

오 주님, 주님을 더욱 드러내고 싶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추천〉 김광현 목사 (로뎀청소년학교 교장)

“1만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몰입할 수 있는가? 10년 동안 꼬박 하루에 3시간을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가? 만약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며,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최용우 작가님은 나의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 오게 해주신 분이다. 철학적인 사색을 함께 나누기도 하였고, 깊은 신앙의 체험과 삶의 결단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가정의 아름다움을 공유하였으며, 사명자로서 가야 할 길에 대해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펼쳐 놓기도 하였다. 25년이 넘는 세월을 서로 지켜보는 것은 든든한 버팀목이 나의 등을 받쳐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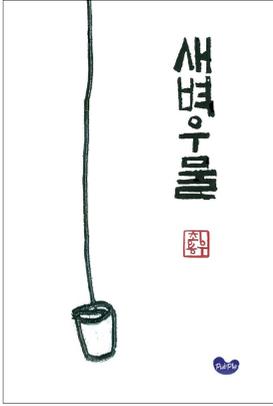
최용우 작가님은 나와서 만남 이전부터 한길을 가고 있었다. 전도하는 작가의 길을 주일학교 주보의 4칸짜리 만화로, 교도소의 휴게실 책꽂이에 꽂혀 있는 들꽃편지로, 매일 메일로 배달해 주는 햇볕같은이야기로, 일기와 시로, 말씀묵상과 경건묵상으로 교역자들을 위한 맞춤형주보들로 너무 많아 다 열거 할 수 없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전도 작가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다.

내가 최용우 작가를 만나 삶의 큰 도전을 받은 것처럼,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멋진 만남을 고대하고 있는 독자 분들에게 그분이 소유한 ‘인생 최대의 행복’을 정중히 권해 드리고 싶다.

〈목차〉

- 1부-인생 최대의 행복
- 2부-사랑 말고 다른 일
- 3부-보물과 지팡이
- 4부-생명의 기독교로
- 5부-불을 붙이자
- 6부-길을 가는 사람들

⑬ 새벽우물 ③판



새벽우물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16.8.26.(3판)

카테고리/ 잡지 > 문학/교양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트지 25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흑백)

페이지/878쪽 옆구리두께/40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28,700원

ISBN: 978-89-24-042009

<새벽우물>의 열 가지 특징

1. 지난 5년 동안 매일 한 편씩 공을 들여 정성껏 썼습니다.
2. 밝고 긍정적이며 읽으면 빙그레 웃음 지어지는 따뜻한 글입니다.
3.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글을 썼습니다.
4. 최용우 특유의 워트에 넘치는 글은 저절로 폭소를 터트리게 합니다.
5. 기독교 주간 신문에 10년 동안 매주 한 편씩 연재되고 있습니다.
6. 극동방송을 통해 매일 한편씩 수년 동안 방송되었던 글입니다.
7. 단행본 5권의 분량을 한 권에 짹짹 눌러 담았습니다.(871면)
8. 읽다보면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책입니다.
9. 수많은 기발한 설교 힌트와 예화가 무려 1400편이나 됩니다.
- 10 인터넷에 이미 수 만개의 글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습니다.

한국의 베스트셀러는 대개 3S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3S란 섹스, 센시티브(감성적), 센세이셔널(선정적)의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베스트 셀러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특성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고 봅니다. 독자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상업적 목적의 책이 위세를 떨치다 보니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지난 5년 동안 일반서점에서 팔린 종교서적 베스트셀러를 보면 1위는 법정스님의 책, 2위는 긍정의 힘, 3위는 차동엽 신부의 무지개원리, 4위는 내려놓음, 5위는 목적이 이끄는 삶 (교보문고 콘텐츠 개발팀 2010.3.19일 발표)

종교서적도 정확하게 3S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법정스님의 책은 썬티시브한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긍정의 힘, 무지개 원리, 목적이이끄는 삶은 아시다시피 '적극적인 사고방식'류의 처세 서적이고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은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하버드 출신이 그 자리를 왜 내려놓았을까? 하는 센세이셔널한 분위기 때문에 일단 독자들의 호기심을 끄는데 성공한 책입니다.

베스트셀러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손님이 들끓는 음식점의 요리가 맛이 좋듯이, 사람들이 널리 보는 책 중에는 쓸 만한 것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베스트셀러들이 과연 후세의 사람들에게도 읽혀질까? 생각해 보면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독서상우(讀書尙友)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옛사람과 벗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책을 한 권씩 만들 때마다 과연 이 책이 후세 사람들과도 벗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택도 없이 부족하고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새벽우물〉을 만들면서 마음 속에 계속 맴돌았던 한 생각은 - 얼어붙은 내 영혼 내면의 바다를 깨부수는 한 자루의 도끼와 같은 책! -그런 책을 만들고싶었습니다. 3S로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책이 아니라 - 쾅쾅 얼어 붙어버린 인간 내면의 바다에 사정없이 도끼질을 해서 구멍하나 뚫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작은 구멍을 시작으로 빙판에 쨍쨍 금이 가고 바다가 갈라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새벽우물〉의 가치가 인정되어 너도나도 한 권씩 사서보고, 오 이 책을 너도 읽으면 좋겠다 해서 선물도 하고.. 막 그러면 좋겠습니다 〈새벽우물〉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권씩 구입해 주세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권을 사서 교회 담임목사님께 한 권 선물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책이 워낙 크다보니(878페이지) 책을 만드는데 엄청난 제작비가 들었습니다. 너도나도 시원한 〈새벽우물〉한 동이씩 퍼 가 주세요^^ 물맛은 끝내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판을 치고, 믿음으로 둔갑된 성공주의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후려치는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게 해주는' 〈새벽우물〉같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책이니 많은 분들에게 사랑 받고 싶습니다.

〈새벽우물〉은 목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목사님에게 선물을 하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새벽우물〉은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선물하면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목차〉

- | | |
|---------|---------|
| 1부-호리라도 | 4부-오직예수 |
| 2부-오매불망 | 5부-한결같이 |
| 3부-부르짖음 | |

33 따뜻한 밥상3 (시편)



따뜻한 밥상3-점심밥1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16.9.9

카테고리/ 잡지 > 문학/교양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트지 25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흑백)

페이지/402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4,300원

ISBN: 978-89-24-042924

<책소개>

오늘 아침 밥 드셨습니까? 사람의 몸은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밥을 시원찮게 먹거나 깨작거리는 사람도 부실한 사람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도 밥을 묵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밥을 시원찮게 먹거나 굶는 사람은 영의 힘이 없으니 당연히 육의 힘으로 살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혼은 영과 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리켜 '양식'이라고도 하지요.

제가 어떤 잡지의 부록으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묵상집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큐티(Quiet Time)를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뜻을 내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서 묵상집이 새까맣게 되도록 글을 쓰고 날마다 삶 속에서 적용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묵상집이 100권 넘게 쌓였는데도 제 신앙은 별로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변화되겠다는 나의 결심과 노력은 나의 의지(혼)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내 영이 아닌 혼에 게 밥을 먹이는 묵상이었던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 식' 묵상이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긍정의 힘'이나 '목적의 이끄는 삶'같은 것도 비슷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안 되지요. 그게 혼만 배부르게 하는 묵상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묵상집을 버리고 단순하게 '성경'만 집중하여 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않고 그 자체로 '아멘' 혹은 '믿습니다.'하면서 인정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쪼개고 분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말씀 그 자체를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성경책만 들고 봤더니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서 활동하는 '영'이 말씀에 반응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눈으로 보고 누구인지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영으로 하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영의 기능이 약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은 자꾸 눈으로 하나님을 보며 달라고 하면서 눈에 안 보이니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까지 합니다.

의식으로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이 밥을 먹고 튼튼해지면 쉽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열심히 연습하면 피아노를 잘 치게 되는 것과 같이 영을 깨어나게 하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성경이 다른 고전이나 베스트셀러와 다른 점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문자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체화시키면 그 말씀에 내 영이 반응합니다.

그렇게 내 영에게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빛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고 주를 마시는 기도로 영에게 생기를 주며 말씀을 계속 마시면서 영에게 밥을 주면 됩니다.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면 소화는 안 되지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영을 운동시키면 몸이 영의 기운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영의 식사, 운동을 반복하면 영이 강해지고 밝게 됩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에게 밥을 주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사람이 변하지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입니다. 말씀을 억지로 적용, 실천, 반성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떠 먹었던 기록들을 모으니 양이 제법 되어서 혹 저처럼 성경을 영혼의 밥으로 먹고 싶은 분들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도움이 될까 하여 '따뜻한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한 쪽이 1분이면 입을 분량이지만 저는 최소한 30분씩 말씀 가운데 거하며 흘러나온 글을 기록했습니다. 하루에 한 쪽씩 1년 동안 볼 수 있으며 모두 7권 분량입니다.

<목차>

1월 시편1장	7월 시편79장
2월 시편19장	8월 시편89장
3월 시편32장	9월 시편100장
4월 시편43장	10월 시편115장
5월 시편57장	11월 시편119장
6월 시편69장	12월 시편137장

⑩ 설레임 ②판



설레임 -최용우 두 번째 시집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16.10.7.(2판)

카테고리/ 잡지 > 문학/교양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트지 25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흑백)

페이지/146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6,700원

ISBN: 978-89-24-043341

<책소개>

만약 이 세상에 시인(詩人)이 없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시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시인쯤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시인이 없는 세상은 자동차가 없는 세상, 집이 없는 세상, 옷이 없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자동차나 집이나 옷이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이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詩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다. 시는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내면의 소리이다.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물과 다르다. 만약 사람이 감정이 없는 물건이라면 詩가 필요 없겠지...

나는 시인이라고 불리고 싶다. 나의 두 번째 시집 '설레임'을 다시한번 재편집하여 세상에 끄집어냈다.

온통 어둡고 짜증나는 소식들뿐이어서 삶의 기쁨을 상실해버린 것 같은 암울한 이 시대에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슴속에서 아련히 떠오르는 그것은 '설레임'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담백하게 그려낸 시를 읽다 보면 어느새 이 세상이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설레임으로 가득한 곳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쉽고 유쾌하고 재미있으면서 감동적인 최용우의 두 번째 시집

<추천> 조덕근 (시인)

최용우! 그는 한때 유조선을 타고 온 세계 바다를 몸으로 체험한 적이 있는 외항 선원 출신이고, 제과제빵 기술을 배워 빵을 만들기도 했으며 '기뻐하는사람들'이라

는 선교회를 조직하여 선교쪽지도 발행하는 등 문서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수업도 받았고, 첫딸 ‘최종은’이가 첫돌이 될 무렵 주물공장에서 하루에 10시간이상 씻물을 녹이며 땀 흘려 일하면서도 맑은 서정과 시심(詩心)을 잃지 않았던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가 생각하는 詩는 ‘그냥 삶을 기록’ 한 그것이다. 가장 소박하고도 가장 본질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다. ‘시’란 삶의 기록이라는 것이 진술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의 시들은 그의 삶의 진실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다양하고도 특이한 삶의 기록이 그대로 시가 되어 나온 것이다.

최용우의 시는 우선 쉽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생활의 편린들을 꾸밈없이 정직하고 간결한 언어로 기록한 일기이다.

〈목차〉

1부. 설레임

12. 설레임 13. 바구니 14. 들꽃피는 고향으로 15. 우리 아기 16. 어느 날의 기도 17. 단순함 속으로 18. 소 19. 비우고 버리고 20. 벽 21. 침전 22. 들풀 23.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24. 개미 25. 요지경 26. 아침의 시작 27. 내온 십자가 28. 들꽃 29. 밖에 지금 누가 오고 30. 다들 어디로 가나 31. 이름 32. 비싼 카메라 ...(이하 생략)

2부. 새삼스런 발견

46. 이슬비 47. 빛 48. 개나리 49. 꽃의 계절 50. 주님의 약속 52. 푸른 오월 새벽에 53. 새삼스런 느낌 54. 기분 좋음 55. 알 수 있네 56. 옷 57. 주님께서 58. 님의 손 안에 59. 고향 60. 날개 다친 바둘기 61. 비 오는 날에 62. 생략하고 살기 63. 쓸쓸한 마음 64. 무릎 꿇어 65. 비 66. 나는 옵니다 67. 소나기 68. 바람 69. 한 덩어리 70. 빈 충만 71. 미니스커트와 목사 72. 병원 풍경 73. 새삼스런 발견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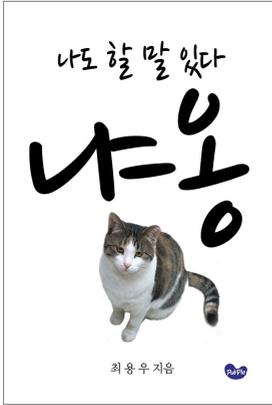
3부. 가끔 언제나

78. 아침에 주님께 80. 진. 실 81. 주님! 저는 82. 그대로 83. 내 눈 84. 제가 드릴 것은 85. 내 주님 86. 가끔 언제나 87. 행복하고 88. 지독한 그리움 89. 이름을 불러준다 90. 대추 91. 가로등 92. 하늘 93. 자유 94. 어떤 기도 95. 벼는 여물어 96. 안타까움 97. 홍시 98. 누가 내 옆에 앉으니 100. 은총의 아침 101. 마음 102. 너저들은 모를 꺼시다 103. 아침1 104. 아침2 105. 나무 106. 시간아 ...(이하 생략)

4부. 눈 오는 밤

120. 첫눈처럼 121. 개똥밥 122. 이런 날씨엔 123. 인형과 함께 잠자는 공주님 124. 어두울 수록 125. 화장실 청소 126. 까꿍 127. 이발소 128. 해우소 129. 내 마음은 130. 홀로 있으면 131. 호랑지빠귀 우는 아침 132. 눈 오는 밤 133. 빛 134. 십자가 135. 나는 밤만 되면 136. 엄마의 기도 ...(이하 생략)

34 나도 할말있다 냐옹 (햇별17)



나도 할말있다 냐옹 (햇별17)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16.10.31

카테고리/ 잡지 > 문학/교양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트지 25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흑백)

페이지/318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1,900원

ISBN: 978-89-24-04393-8

<책소개>

‘폼페이’의 최후’라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 토막 나옵니다. 그날 아침,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베수비오산을 바라보며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몇 가지씩 손에 쥐고 뛰기 시작합니다. 금괴, 돈, 보물, 장신구, 자식들, 여자의 손... 그러나 마그마가 밀려 올라오는 소리를 들으며 그 쥐었던 것마저도 놓아버리고 살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뛰니다.

그 아우성 속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지팡이 하나만 의지한 채 느릿느릿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달리던 사람들이 그 태평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빈 몸이요? 그새 모두 불타버렸습니까? 더 잃을 것이 없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오, 나는 늘 이 시간에 이 길을 산책한다고요 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가졌기에 더 가질 것이 없다고요 당신들에게는 이 시간이 환란의 시간이지만, 나에게서는 여전히 한가로운 아침 산책 시간일 뿐이요.”

만약 내 생애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기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1년 동안 글을 썼습니다.

34번째 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웃는 얼굴의 아내 이인숙, 대학생 큰딸 좋은이, 작은딸 밝은에게 아빠의 불타는 사랑을 전합니다. 졸저를 기꺼이 추천해 주신 이상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천> 이상호 목사(공주세광교회)

상강 지나 추수감사절을 앞에 둔 한 해를 갈무리하는 초겨울이다.

햇별같은이야기의 주인공 최용우님은 내가 13년을 한결같이 지켜보고 있는 글쟁이다. 꾸밈없는 그의 외모와는 달리 그의 글은 재미있는 유머가 가득하고 그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직접 쓴 글과 퍼 올리는 유익한 자료들이 무궁무진한 보물창고이다.

먼저 이번에 햇별같은이야기 시리즈 17번째 책 『나도 할 말 있다 나옹』을 출간하게 됨을 마음 다 해 축하하며 기쁘게 추천사를 쓴다. 그는 <햇별 시리즈> 17권과 <일기> 8권, <시집> 12권, <말씀기도> <경건묵상> <주보자료> 각각 10여 권씩 모두 70여 권의 책을 쓴 중견 작가이다.

인터넷 신문 ‘햇별같은이야기’는 20년 넘도록 5635호를 발행하였고 홈 가족은 무려 14000명이나 된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홈페이지에서 그의 글과 자료를 목회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많은 자료를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주님께 그저 받았으니 그저 나누어 준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자료 하나 마음대로 못 쓰고, 저작권법이라는 것으로 글 한줄 가져다 쓰기가 망설여지는 이때에 그는 ‘본 홈페이지는 조건 없이 주교가신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퍼가기, 인용, 링크 모두 허용합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 대한영!’ 하고 대놓고 광고를 한다.

최용우, 그는 외항선원으로부터 광부, 청소부, 제빵사는 물론, 여러 노동현장에서 경험한 생생한 삶과 신학, 그리고 깊은 수도원 묵상을 통해서 흐르는 생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을 축이며 해갈하도록 하는 소중한 분이다.

따라서 삶이 뒷받침 해 주는 생생하게 펄떡이는 글과 살아있는 글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책은 행복한 일상으로부터 영계의 깊은 비밀에 이르기까지 만날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이자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보양식이다.

그에게는 소박한 꿈이 하나 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 집을 지어 사역에 지친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언제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갖는 것이다.

부디 이 책을 통하여 독자 여러분이 큰 유익을 얻으며 쉼과 회복이 있기를 바란다. 썬기골 양지 이상호 목사(공주세광교회)

<목차>

- 1부. 나도 할 말 있다
- 2부. 교회와 평화
- 3부. 행복과 불행
- 4부. 가장 좋은 것을
- 5부. 십계명에 숨은 비밀
- 6부. 바람직한 인생

⑪ 어부동의 아침 ②판



어부동의 아침 -최용우 세 번째 시집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17.6.20. (2판)

카테고리/ 잡지 > 문학/교양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트지 25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100g(흑백)

페이지/150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7,600원

ISBN: 978-89-24-047578

〈책소개〉

우리 가족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충청북도 보은의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어부동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눈앞에는 대청호 푸른 물이 넘실대고 사시사철 들꽃이 마당 가득 피어나던 곳 아침이면 새소리가 맑고 밝게 들리던 곳 그 곳 호숫가를 거닐며 쓴 시를 모아 엮었습니다.

충북 보은군 회남면 법수리, 사음리 일대를 어부동이라고 하는데 정말 한문으로 어부동(魚夫洞)입니다. 이곳은 화전민들이 사는 산간벽지 오지마을이었습니다. 대전, 청주, 보은에서 오는 완행버스의 종점이 있었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어부동이라니...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 때문이었는지 1980년 대청호가 생기면서 동네 앞까지 물이 차 내수면어업이 활성화되면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진짜 어부동 마을이 되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도 생기고 민물고기를 잡아서 회를 파는 식당들이 마을을 이루게 되었고 한때 대전 사람들이 나들이 삼아 회를 먹으러 오는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청호가 대전 시민의 식수로 사용되면서 양식장이 문을 닫게 되었고 점차 식당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부동에 있는 초등학교를 임대한 마을에서 5년 동안 살다가 세종시로 이사 했습니다.

〈목차〉

1부 어부동의 아침

아침에
마당에 서니
새소리 가득하다.
그 소리가 마치
맑은 시냇물 소리 같다.

사람들
늦잠든 아침에
새들만 깨어
청명한 기도를
쫄로롱 쫄로롱 올린다.

14.참꽃 15.유치원 소풍 16.기다림꽃 17.아빠 팔베게 18.내동생 19.호박 20.개도
독 21.들꽃 22.청량고추 25.어부동 들판 26.비둘기 27.이작 동네 저작 동네 28.아
버지 부재중 29.부스러기로도 배부릅니다 30.집 없는 달팽이 32.낙엽편지 33.홍시
34.여유 35.믿음은 36.아이들의 가을 38.정수기 39.평안

2부 꽃과 아이들

42.눈 내린 아침 43.겨울 눈꽃처럼 44.참새 45.행복한 부자 46.날마다 시인 47.
눈 48.침묵기도 49.주님의 손을 50.내 머리 위에서 51.돌 52.누령이 53.개구리
54.현호색 55.봄 56.시장놀이 57.밝아오는 새벽 58.아침 풍경 59.간절한 바램 60.
어르니 어르니 61.이런 밤엔 62.꽃들도 죽으면 63.휴식 64.꽃과 아이 66.아버지
67.숲속길 68.우리가 언제 70.아침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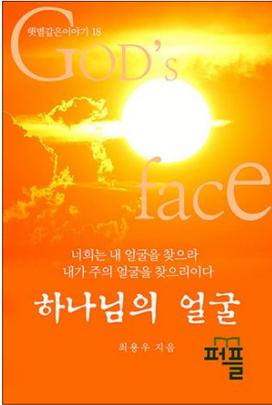
3부 풍요로운 날

94.주님과 차 한잔 95.울보 96.중심 97.놀라운 깨달음 98.웃음 99.먼지 100.아빠
비밀 101.아픈 마음 102.더욱 풍요로운 날 103.예수 마음 104.바보 105.잠자는
숲속의 아빠 106.더 무엇 107.약수터 108.그냥 사랑 109.아이들 110.물레방아
111.동굴 112.아빠와 딸 114.고추 115.거미줄 116.행복 ...(생략)

4부 천국의 아침

126.눈을 감고 127.울음 128.차이 129.좋아 130.나무 131.채마밭 132.목욕 133.
내 시 134.좋은 꽃 136.뱀 137.천국의 아침 138.이불 139.달라는 게 없구나 140.
예수님 의자 142.뒤통수 맞고 143.한번 144.빛 145.차 마시기 146.나무

35 하나님의 얼굴 (햇별18)



하나님의 얼굴 (햇별18)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17.7.5

카테고리/ 잡지 > 문학/교양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트지 25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100g(흑백)

페이지/326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2,100원

ISBN: 978-89-24-048544

<책소개>

어거스틴(Augustine 354-430)은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한사람 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60억 인구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일일이 관여하시려면 얼마나 바쁘시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을 마치 이 세상에 나 한사람 밖에 없는 것처럼 아찔한 사랑을 하신다니... 저는 도무지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좀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최고의 사랑은 1대 1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1대 1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눈앞에서 나의 얼굴을 보시고, 나의 코 앞에서 내 숨결을 느끼시고, 그것도 모자라 내 심장 속에 자리 잡고 사시면서 함께 숨을 쉬십니다.(시139:1-4,17)

하나님은 내가 눈 한번 깜빡이는 것조차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시며, 아침에 머리를 감다가 빠져버린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고 아직 머리에 남아있는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조차 날마다 세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누구를 좋아하는지, 미워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3단계를 거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반응하는 단계를 첫 사랑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처음 믿고 고백했던 ‘믿음의 첫 사랑’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났던 ‘첫 사랑’ 시기가 길든 짧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첫 사랑의 신혼이 지나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사라지고 하나님

의 사랑에 대해 무덤덤해지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데, 마치 외도를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도망다니는 ‘도망자 단계’의 신앙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 단계는 너무 친근하다 못해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 파격적인 야기(雅歌)의 사랑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은 너무나도 깊고 오묘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성경 야가서에는 너무도 깊은 사랑에 빠져서 거기서 빠져 나오기에는 절망감을 느낄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에 미쳤던 자신의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떠올려도 좋고,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속의 미치도록 황홀한 사랑의 스토리를 떠올려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마다 “내 사랑아, 너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라고 탄복하십니다. 나는 나를 시시하게 생각하고 별 볼 일 없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사람은 나 혼자 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독생자 아들 예수를 희생하셔서 까지 나를 구원하셨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경이로운 사랑입니다.

상대가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사소하지 않게 보이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껴지는 것들이 모두 다 놀라움이고, 표현되는 것들은 모두 시가 되고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신다니...

클레르보의 베르나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제대로 사랑하는 최고의 단계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 도 야까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의 대상인 나를 내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얼굴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생김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오 주여, 제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추천〉 손제산 목사 (아현교회)

대장암 3기라는 진단을 받고 계속 항암제를 투여 하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무렵,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데려 가시기를 원하며 하나하나 정리하며 고통가운데 침상에 누워 아내보고 서재에서 아무 책이나 한권 뽑아 읽어 달라고 하였습시다.

“지금부터 기쁨을 만들어 드립니다...” 하면서 오랜 전에 저자로부터 선물을 받은 〈기쁨 만들기〉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 하였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여러 개의 끈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끈을 아이들에게 나눠 주며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자! 나누어 드린 끈으로 여러분의 오른쪽 발을 묶으세요. 오늘은 왼발 하나만 사용하여 걸어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왼발만 사용하며 걸어 다니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큰 고생을 하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너무 힘들어 울상이 되어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드디어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어 선생님의 말씀 따라 묶었던 오른쪽 발을 풀게 되자 모두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은 한 친구에게 우르르 몰려 갔습니다.

“경수야, 미안해!”

“한 발로 걷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리고 보니 넌 참 대단한 친구야.....”

아이들은 경수의 손을 잡고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집에 가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다. 경수라는 아이는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거든요. <기쁨 만들기> P19

누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래 이거야! 암 환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주체 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였습니다. 깨달음이 있자 하나님은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니다.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다 난겨?”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그 하나님 대단하구먼.”

문득 안산에서 목회할 때 저자가 예배를 인도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설교하려 강단에 섰을 때 갑자기 “으하하하” 크게 웃으셨습니다. 어떤 영문인지 몰라 모두 의아해 하고 있을 때 “으하하하” “으하하하” 한번 웃고 두 번 웃고 또 웃으니 성도님들 모두 같이 “으하하하” 웃으셨습니다. 그날 설교는 웃다가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님들은 서로 마주 보면 “으하하하” 웃음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순식간에 다 읽었습니다. 얼굴 가득 미소가 저절로 나오고 가슴 찢힌 감동이 있는가 하면 “이거구나” 깨달음을 줄 때가 가득 합니다. 깔깔대는 순박한 청순함이 묻어있고 “으하하하” 박장대소하는 웃음을 주는 글도 있습니다.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꾸밈없는 삶의 진실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기쁜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서해안 바닷가 야현교회에서 손제산 목사

〈목차〉

1부 하나님의 얼굴

1.하나님이 있다면 2.하나님은 영이십니다 3.하나님은 무한이십니다 4.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5.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6.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7.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8.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9.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10.하나님은 선하십니다 11.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12.하나님의 기쁨 13.믿음의 분량 14.믿음의 분량을 늘리는 방법 15.믿음의 분량에 대한 오해 16.믿음의 분량이 중요합니다 17.둘 두 개로 결혼한 이야기 18.예수님을 뵙는 것 같아요 19.왜 이겨야 돼? 20.가장 잔인한 동물 21.자신감과 믿음감1 22.자신감과 믿음감2(생략)

2부 싸우라

49.해산의 고통 50.필리버스터 51.왜 예수를 믿는가? 52.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나? 53.진짜 성공을 바라노라 54.지혜로운 선택 55.돈키호테와 햄릿 56.차태현과 여배우들 57.우리의 싸움 58.바벨탑과 싸우라 59.평등주의와 싸우라 60.개인주의와 싸우라 61.물질주의와 싸우라 62.소비주의와 싸우라 63.상대주의와 싸우라 64.개혁주의와 싸우라 65.인간의 욕구 66.유일한 길(생략)

3부 열 두가지 열매

97.우리나라 최고 부자의 질문 98.부자들의 사명 99.보바 예수 100.대지약우 예수 101.모순역설 예수 102.사랑요절 예수 103.하나님의 사랑 104.내가 하고 싶은 말 105.참 사람들의 경고 106.육적 치매 107.영적 치매 108.예수를 믿어도 별 수 없더라 109.전도를 쉽게 하는 방법 110.물 한방울(생략)

4부 하나님의 사랑

145.하나님의 사랑1 146.하나님의 사랑2 147.하나님의 사랑3 148.구름에 달가듯이 149.햇볕쨍한 창가에서 150.참기름 한 병 151.10억 현금 152.요한 신앙1 153.요한 신앙2 154.요한 신앙3 155.요한 신앙4 156.새 하늘과 새 땅 157.나는 성경이 재미없다 158.자포자기와 자기포기 159.그 순간 160.개 돼지 161.지혜로운 사람 162.밭고랑 밭이랑 163.산다는 것은 뭐고(생략)

5부 물러가라

193.친구의 기다림 194.조물주와 인간의 차이 195.내가 가장 못났기 때문에 196.입을 크게 짝 벌려 197.후회하지 않으려면 198.일곱가지 가증한 죄 199.공작같은 교만성은 물러가라(생략)

6부 구원은 공짜가 아니다

241.예수님과 정치1 242.예수님과 정치2 243.작은 돌부리 244.피카소 그림 245.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246.우리 위해 오실 예수님 247.가장 오래된 집 248.꼴등해도 좋은 것 20가지 249.구명 인생 250.언제 구원 받았나?(생략)

36 햇빛일기 (일기8)



햇빛일기-또 하루를 참 잘 살았다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17.8.1

카테고리/ 잡지 > 문학/교양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트지 25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흑백)

페이지/394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4,100원

ISBN:978-89-24-049329

<책소개> 또 하루를 참 잘 살았다

데이비드 소로우는 “일기는 생각을 담기에 가장 좋은 그릇이다. 일기는 추수가 끝난 들판의 이삭줍기와 같고, 만약 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들에 남아 썩고 말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오만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만 잡생각’ 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오만가지 생각 중에 단 한 생각만이라도 붙잡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 12줄 200자 원고지 딱 두 장 분량만 큼씩 썼습니다.

저의 삶이 거의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인지라 글 또한 그냥 평범한 삶의 편린 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것 같은 작은 일들, 그리고 주변의 사물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말을 걸어보고, 사색하면서 쓴 366편의 순수한 기록입니다.

<목차>

1월 신년산행

2월 가족달력

햇별이 창문으로 쨍 하고 들어와 거실에 따뜻하게 비추는 날 아내와 좋은이가 거실에 엮드려 도란도란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2월 가족달력을 그린다. 그림의 주제는 단연 ‘고양이’이다.

“요 가운데는, 강약국에 있는 순한 고양이



한 마리 크게 그리고.. 왼쪽에는 우리 집 마늘창고에 사는 얼룩이를 그려라.”

“여기 오른쪽에는 내가 핸드폰 안에 키우는 고양이를 그려야징..”

좋은이가 고양이 세 마리를 똑딱 그린다. 아고~ 고양이들이 아주 통통하게 살아 올랐구나. 엄마도 뭔가 그리고 싶었던지 빈 여백에 <겨울왕국>영화에 나오는 눈사람 ‘올라푸’를 그렸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리자 좋은이가 얼른 동그렇게 수정을 해 준다.

20년 넘은 우리 집의 전통 ‘가족달력’을 언제까지 더 만들지는 잘 모르겠다. 아이들이 독립을 하면 끝나겠지.

3월 차 문이 안 닫혀

4월 진달래꽃

5월 오래된 나무

6월 패랭이 꽃

7월 내 나이는 백살

8월 의림지

9월 같은데 다르다

10월 전월산

11월 꽃향기 가득한 집

우리 집에 여성동무들이 세 명이나 살기 때문에 가끔 화장품 냄새만 났었는데, 요즘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산국향이 은은하게 난다. 만약 나 혼자 살았다면 귀귀한 꼬랑내만 나겠지? 꽃향기가 나니 삶의 질이 확 상승한 것 같다. 음 하하

2차대전 직후에 미국의 어떤 장군이 “꽃을 좋아하는 민족은 미래가 밝다”고 말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독일의 한 마을에서 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었다. 포격으로 지붕이 날아가버린 집의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 부부 사이에 예쁜 꽃 한송이가 컵에 꽂혀있었다.

그 모습을 본 장군은 “폐허에서도 식탁에 꽃을 올려놓는 독일의 앞날은 밝다.” 과연 그 후로 독일은 화려하게 부활하였고 동,서독으로 나뉘었던 나라가 통일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꽃을 좋아해야 빨리 통일이 될 텐데..

12월 연기가 올라가는 집



cyw*kr

37 따뜻한 밥상5 (마-막)



따뜻한 밥상5 -저녁밥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17.8.22

카테고리/ 잡지 > 문학/교양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트지 25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흑백)

페이지/400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4,300원

ISBN: 978-89-24-048957

〈책소개〉

오늘 아침 밥 드셨습니까? 사람의 몸은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밥을 시원찮게 먹거나 깨작거리는 사람도 부실한 사람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도 밥을 묵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밥을 시원찮게 먹거나 굶는 사람은 영의 힘이 없으니 당연히 육의 힘으로 살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혼은 영과 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리켜 '양심'이라고도 하지요.

제가 어떤 잡지의 부록으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묵상집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큐티(Quiet Time)를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뜻을 내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서 묵상집이 새까맣게 되도록 글을 쓰고 날마다 삶 속에서 적용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묵상집이 100권 넘게 쌓였는데도 제 신앙은 별로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변화되겠다는 나의 결심과 노력은 나의 의지(혼)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내 영이 아닌 혼에 게 밥을 먹이는 묵상이었던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 식' 묵상이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공정의 힘'이나 '목적'이 이끄는 삶 같은 것도 비슷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안 되지요. 그게 혼만 배부르게 하는 묵상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묵상집을 버리고 단순하게 '성경'만 집중하여 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않고 그 자체로 '아멘' 혹은 '믿습니다.' 하면서 인정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쪼개고 분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말씀 그 자체를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성경책만 들고 봤더니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서 활동하는 '영'이 말씀에 반응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눈으로 보고 누구인지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영으로 하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영의 기능이 약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은 자꾸 눈으로 하나님을 보며 달라고 하면서 눈에 안 보이니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까지 합니다.

의식으로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이 밥을 먹고 튼튼해지면 쉽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열심히 연습하면 피아노를 잘 치게 되는 것과 같이 영을 깨어나게 하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성경이 다른 고전이나 베스트셀러와 다른 점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문자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체화시키면 그 말씀에 내 영이 반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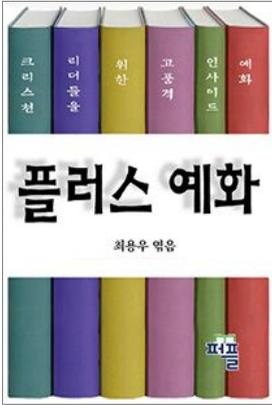
그렇게 내 영에게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빛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고 주를 마시는 기도로 영에게 생기를 주며 말씀을 계속 마시면서 영에게 밥을 주면 됩니다.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면 소화는 안 되지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영을 운동시키면 몸이 영의 기운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영의 식사, 운동을 반복하면 영이 강해지고 밝게 됩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에게 밥을 주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사람이 변하지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입니다. 말씀을 억지로 적용, 실천, 반성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떠 먹었던 기록들을 모으니 양이 제법 되어서 혹 저처럼 성경을 영혼의 밥으로 먹고 싶은 분들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도움이 될까 하여 '따뜻한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한 쪽이 1분이면 입을 분량이지만 저는 최소한 30분씩 말씀 가운데 거하며 흘러나온 글을 기록했습니다. 하루에 한 쪽씩 1년 동안 볼 수 있으며 모두 7권 분량입니다.

〈목차〉

1월 마1:18-마5:5	7월 마20:28-마23:25
2월 마5:6-마6:11	8월 마23:27-마26:41
3월 마6:12-마7:22	9월 마26:52-54-막1:2
4월 마7:24-마11:21-22	10월 막1:4-5-막3:4
5월 마11:25-마15:19-20	11월 막3:6-막4:31-32
6월 마5:28-마20:27	12월 막4:33-34-막6:2-3

⑭ 플러스 예화 ②판



플러스 예화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17.9.6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유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흑백)

페이지/490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7,000원

ISBN: 978-89-24-049732

〈책소개〉

이 책에 실린 예화는 두란노에서 매월 펴내는 월간〈생명의삶+〉〈묵상과 적용〉코너에 17개월 동안 썼던 예화를 모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큐티 묵상집인 〈생명의삶+〉에 원고를 쓰는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묵상과 적용’ 코너의 글에 감동을 받고 여기저기 인용을 하고 설교 예화로 사용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밤새워 커피 흘려가며 글을 쓴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미 지면으로 발표된 글을 따로 책으로 묶는 이유는 햇별같은이야기를 <http://cyw.pe.kr> 오랫동안 사랑해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가족 같은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난 15년을 하루같이 햇별같은이야기 사역을 재미있게 감당해 올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첫째는 하나님이며 두 번째는 바로 햇별같은이야기 독자분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펔전 목사는 설교에 예화를 사용하는 일곱가지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청중들에게 흥미를 주고 주목을 끌기 위하여

둘째, 설교를 활기 있고 생생하게 만들기 위하여

셋째, 교리나 혹은 애매하게 이해하고 있는 의무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넷째, 논리적인 사고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다섯째, 진리를 기억하여 깨닫게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여섯째,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일곱째, 전혀 무관심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하여

스펠전은 예회는 설교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고 듣는 이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 비취질 수 있도록 돕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실 때 많은 예화와 비유를 통하여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크리스천 리더들을 위한 고품격 인사이트 예화를 통해 설교를 플러스 하세요.

〈목차〉

1. 시편 시29:1-11 아주머니 전도하기

길 건너편에 있는 문구점 아주머니를 전도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문구점 아주머니는 가게 안에 부적을 붙여 놓을 만큼 미신에 집착하시는 분이라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주머니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작전을 세웠습니다. 우선 만나면 무조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공손하게 인사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가끔 집 앞을 청소할 때 문구점 앞까지 깨끗이 쓸었습니다. 또 자주 문구점에 들러서 문구를 하나씩 사면서 좋은 점을 칭찬했습니다.

나름대로 공을 들이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아주머니가 교회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교회의 다른 여 집사님이 전도를 해서 모시고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성격이 다혈질이어서 말실수도 많이 하고 행실도 바르지 못해서 평판이 그다지 좋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을까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사님이 주일 아침에 그 문구점에 달려와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당장 교회 갑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문구점 아주머니의 손을 잡아끌고 왔던 것입니다. 폭풍의 위력이 멀리 가테스 광야(사막)에까지 미쳐서 광야가 진동한 것처럼,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미약한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히4:12).

그 일로 저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데 주저하거나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 민수기

3. 이사야

4. 아모스

5. 누가복음

6. 로마서

7. 고린도전후서

8. 빌립보서

9. 데살로니가전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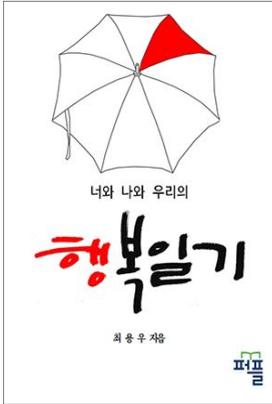
10. 디모데전후서

11. 베드로전후서

12. 요한1,2,3서

13. 부활, 성탄절 묵상

38 행복일기 (일기9)



행복일기 (일기9)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18.1.23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르떼 210g 유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396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4,200원

ISBN: 978-89-24-051940

〈책소개〉 너와 나와 우리 열심히 행복을 찾자

이 세상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本性)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에서 국민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 즉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모임에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행복은 참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은 딱히 정해진 어떤 정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책임이나 걱정거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행복이라 했고, 어떤 이는 화장실이 두개 있는 집을 가지는 것을 행복이라 했고, 또 인기, 명성, 권력, 돈 그리고 건강을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 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수학 1등급 맞는 것이 행복이라 했고, 뭔지 모르지만 지금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육체적 ‘욕망’을 따르는 외적 성취를 행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행복은 마음에 달려 있다. 행복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이다. 고로 욕망에 따른 행복이든, 마음에 평화를 누리는 행복이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행복 찾기를 하자... 였습니다.

이 책은 지난 1년 동안 매일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행복’을 찾아 기록한 365편의 일기입니다.

〈목차〉

1월 행복이 넘쳐요 -신발

갑자기 기온이 푹 떨어져 온도가 영하 11도라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신발이 거실에 들어와 있다. 교회 갈 때 밖에 나가 신발을 신으면 차갑기 때문에 아내가 미리 거실에 들여놓은 것이다.

우리 집은 시골집이라 방문을 열고 나가면 그냥 난장처럼 춥다. 신발도 밖의 기온에 따라 땡땡 얼어버린다. 그런데 아내가 신발을 미리 집안에 들여놓은 덕분에 따뜻한(?) 신발을 신고 교회에 다녀왔다. 나는 신발을 하나 사면 마르고 닳도록 신는 편이다. 아내는 아이들이 안 신는 신발을 신는다.

좋은이는 신발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다. 문제는 밝은이다. 신발장에 밝은이 신발이 가득하다. 밝은이는 계절마다 상황마다 용도마다 거기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며 열심히 신발을 사 나른다. 못 마땅한 모습으로 그런 밝은이를 바라보고 아내가 한마디 했다. “발은 두 개 뿐인데 뭘 신발이 이렇게 많아? 니가 지내냐?”

2월 따사로운 햇볕에 -기분 좋으다

오랜만에 세종도서관에 갔더니 1층 서고가 크게 확장되어 있었고 새 책이 많이 늘어나 있었다. 기독교 코너에 내 책이 3권 더 들어왔다. 어떤 기준으로 책을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책 다섯권이 쪽 쪽 혀있는 것을 보니 되게 기분 좋고 아 ~ 주 좋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빠를 작가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집 콧대 높은 여성 동무들에게 보여주려고 사진을 찍었다. “아빠, 글을 언제나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쓰세요. 아빠는 글을 미화시켜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쓰면 난리가 난다. 왜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느냐.. 너무 리얼하게 묘사하면 어떡하냐는 등.. 식구들 마음에 들게 글 쓰기는 아 ~ 주 힘들다.

3월 따라갈 수 없는 고수

4월 행복한 시간

5월 치킨이 맛있는 이유

6월 오늘처럼 좋은 날

7월 쥐와 고양이



8월 힘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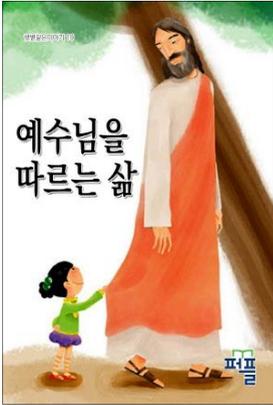
9월 햇볕에 이불

10월 고양이 가족

11월 옆에 앉고 싶다

12월 예수님 얼굴

39 예수님을 따르는 삶 (햇별19)



예수님을 따르는 삶 (햇별19)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18.2.23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328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2,200원

ISBN: 978-89-24-052503

〈책소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흔히 많은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얼굴부터 고통스런 표정을 짓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그동안 추구하던 세상 재미와 오락, 취미생활과 퇴근 후 한잔 씩 마시던 술도 못 마시고 만나던 친구들도 더 이상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뭔가 궁상맞고, 슬프고, 비장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배 아파 하셔서 그걸 막으시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대적 마귀가 더 잘 압니다. 그리하여 대적 마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약간의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얻는 즐거움과 기쁨에 비하면 그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를 따라 살면서 치루어야 될 대가는 상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비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지난 일년 동안 그와 관련된 글을 썼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 살았는지 돌이켜 보면 부끄러움뿐입니다. 그러나 덕분에 늘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의 신앙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어린 아이처럼 응석을 부리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글을 쓰는 지난 일년 동안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추천〉 한용일 목사(주님의교회)

최근 유명 시인의 감추어졌던 비밀이 폭로되면서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어두운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가나 소설가, 시인의 작품은 독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그분들의 사생활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작가의 정신세계가 글속에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삶이 아름다우면 글 속에서 큰 감동과 교훈을 얻게 되지만, 삶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문장이 아무리 뛰어나도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최용우 전도사님은 분명 삶이 아름다운 분입니다.

많은 책들을 읽고, 많은 책들을 쓰셨지만, 언제나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겸손한 분이요, 아내가 앉을 자리에 방석이 없음을 보고 자신의 방석을 맡없이 내어 주는 따뜻한 남편이요, 두 딸을 가진 딸 바보 아버지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묵상과 기도를 쉬지 않는 영성가요, 교회에서는 먼저 인사하는 분이요, 식사 후에 식기를 놓을 때에 모든 빈 그릇을 씻기 편하게 분리하는 우리교회 습은 일꾼입니다. 등산과 달리기를 좋아하고, 커피를 사랑하는 그의 글 속에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넉넉한 편안함과 반전의 웃음으로 해학이 담겨 있어 책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섯 가지의 삶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시간관리, 물질관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대해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쁜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꾸민순서〉

1부. 예수님을 따르는 삶

1. 예수님을 따르는 삶 2. 이중적인 삶 3. 이분법적 사고 4.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 5.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 6. 두 가지 다른 해석 7. 온 세상의 하나님 8.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9. 하나님은 어느 쪽에 10. 세상으로 보냄 받은 교회 11. 유기체로서의 인간 12. 삶의 우선 순위 13. 하나님의 자비 14. 대한민국 거짓말 공화국 15.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16. 구도자의 삶 17. 각성하라 깨어 있으라(생략)

2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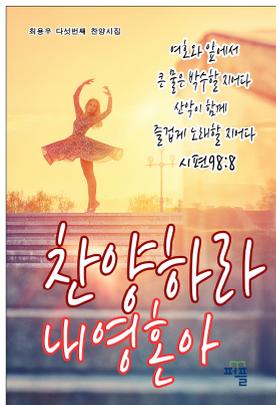
3부. 기도하는 삶

4부. 빛나는 삶

5부. 행동하는 삶

6부. 예배드리는 삶

40 찬양하라 내영혼아 (시5)



찬양하라 내영혼아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18.10.23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르떼 210g 유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398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4,300원

ISBN: 978-89-24-057720

<책소개>

어느 날 책방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주위 사물에게 귀를 기울였더니 벽시계가 짹 짹 하는 소리가 ‘할렐 루야 찬양 할렐 루야 찬양 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참 신기해서 조용히 귀를 더 기울였더니 컴퓨터 자판키의 딸각 딸각 하는 소리가 ‘주님 영광 영광...’ 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내 책상 위의 책, 스펠드, 의자, 프린터, 연필꽂이, 컵... 모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사람인 나만 주맹이가 쪽 나와가지고 뾰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나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대로 ‘책상이 찬양하고 컴퓨터가 찬양하고 스피커가 찬양하고..’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알고 봤더니 다윗이 저보다 먼저 사물들이 찬양한다는 것을 알고 글을 썼더군요. 시편 148편을 보면 천사들, 별들, 바다의 생물들, 나무들, 동물들, 왕과 왕자들, 남자와 여자들, 노인과 젊은이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한다고 나오니다. 바다의 용들까지도 찬양한다(7절)고 합니다.

내가 찬양을 하지 않으니 다른 피조물들의 찬양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니 다른 찬양하는 피조물들의 찬양 소리가 귀에 들리고 그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송구영신예배 외
2. 무조건 찬양합니다 외

3. 졸지도 주무시지도 외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이 늦은 밤에 뭘 하는가?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또 기도하셨는데
나는 잠 안 오는 이 밤에
또 무슨 근심 걱정을 그리하여 잠도 못 자는가?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마귀를 물리치셨는데
나는 졸음마귀의 공격 한 방에 지금 뺏으려고 하네.

4. 골고다 소리 외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
똑딱 똑딱 손목이 부서지는 소리 우두둑
내 죄에 못질하는 소리 쿵 쿵
심장 터지는 소리 펑 펑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우르르릉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 쿵쿵
휘장이 찢어지는 소리 째 아
어둠이 걷히는 소리 아 악
들어라, 골고다의 망치 소리를
보아라 골고다의 피 눈물을

5. 다른 사람들 외

6. 내려놓고 외

7. 야고보의 찬양 외

8. 아버지의 영광 외

9. 만남 찬양 외

10. 나 못하는 것 외

11. 그분의 이름 외

12. 어린아이처럼 외

41 따뜻한 밥상4 (잠-전)



따뜻한 밥상3-점심밥2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18.11.21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398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4,300원

ISBN: 978-89-24-058253

〈책소개〉

오늘 아침 밥 드셨습니까? 사람의 몸은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밥을 시원찮게 먹거나 깨작거리는 사람도 부실한 사람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도 밥을 묵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밥을 시원찮게 먹거나 굶는 사람은 영의 힘이 없으니 당연히 육의 힘으로 살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혼은 영과 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리켜 '양심'이라고도 하지요.

제가 어떤 잡지의 부록으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묵상집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큐티(Quiet Time)를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뜻을 내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서 묵상집이 새까맣게 되도록 글을 쓰고 날마다 삶 속에서 적용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묵상집이 100권 넘게 쌓였는데도 제 신앙은 별로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변화되겠다는 나의 결심과 노력은 나의 의지(혼)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내 영이 아닌 혼에 게 밥을 먹이는 묵상이었던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 식' 묵상이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공정의 힘'이나 '목적'이 이끄는 삶 같은 것도 비슷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안 되지요. 그게 혼만 배부르게 하는 묵상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묵상집을 버리고 단순하게 '성경'만 집중하여 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않고 그 자체로 '아멘' 혹은 '믿습니다.' 하면서 인정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쪼개고 분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말씀 그 자체를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성경책만 들고 봤더니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서 활동하는 '영'이 말씀에 반응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눈으로 보고 누구인지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영으로 하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영의 기능이 약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은 자꾸 눈으로 하나님을 보며 달라고 하면서 눈에 안 보이니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까지 합니다.

의식으로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이 밥을 먹고 튼튼해지면 쉽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열심히 연습하면 피아노를 잘 치게 되는 것과 같이 영을 깨어나게 하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성경이 다른 고전이나 베스트셀러와 다른 점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문자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체화시키면 그 말씀에 내 영이 반응합니다.

그렇게 내 영에게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빛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고 주를 마시는 기도로 영에게 생기를 주며 말씀을 계속 마시면서 영에게 밥을 주면 됩니다.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면 소화는 안 되지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영을 운동시키면 몸이 영의 기운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영의 식사, 운동을 반복하면 영이 강해지고 밝게 됩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에게 밥을 주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사람이 변하지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입니다. 말씀을 억지로 적용, 실천, 반성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떠 먹었던 기록들을 모으니 양이 제법 되어서 혹 저처럼 성경을 영혼의 밥으로 먹고 싶은 분들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도움이 될까 하여 '따뜻한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한 쪽이 1분이면 입을 분량이지만 저는 최소한 30분씩 말씀 가운데 거하며 흘러나온 글을 기록했습니다. 하루에 한 쪽씩 1년 동안 볼 수 있으며 모두 7권 분량입니다.

〈따뜻한 밥상〉 시리즈는 총 7권입니다.

제1권 아침밥1 - 창세기1장 - 역대상11장 까지 400쪽 14300원

제2권 아침밥2 - 역대상12장 - 말라기(시편 잠언 전도서 제외) 398쪽 17300원

제3권 점심밥1 - 시편 전체 402쪽 144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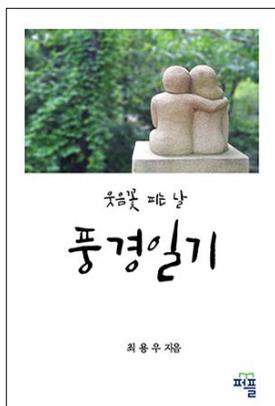
제4권 점심밥2 - 잠언 전도서 398쪽 14300원

제5권 저녁밥1 - 마태복음 - 마가복음 400쪽 14300원

제6권 저녁밥2 - 누가복음 - 요한복음 398쪽 17300원

제7권 저녁밥3 - 사도행전-요한계시록 398쪽 17000원

42 풍경일기 (일기10)



풍경일기 - 웃음꽃 피는 날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19.1.23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400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4,300원

ISBN: 978-89-24-060034

〈책소개〉 웃음꽃 피는 날의 한 작은 풍경이 되고 싶어

역겹의 시간 중에 2018년이라고 부르는 365일을 잘 살았습니다. 그동안 지구상에 왔다가 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2018년 365일을 저와 같이 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종특별시 금남면 용포리 쑥티마을이라는 곳, 역적이 나온 마을이라고 왕의 명으로 동네를 불태워버려서 쑥만 쑥쑥 자라는 황무지가 되었다가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마을이 생기면서 ‘쑥티마을’이라고 했다는 슬픈 사연이 있는 이 공간, 제가 이곳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이쁘고, 어느 때는 너무 미운 평생 짝꿍인 이안숙과, DNA검사를 해 보지 않아도 딱 보면 “아. 그 아빠에 그 딸이야. 하는 짓거리를 보면...” 하는 짓거리도 똑같고 모습도 아버를 쑥 빼닮은 두 딸 최좋은 최밝은과 오순도순 아웅다웅

세종특별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충남 연기군 면소재지’인 어느 촌구석 2층집의 1층, 창밖으로는 벽 밖에 안 보이는 작은 책방에서 전국과 전 세계를 향하여 〈햇볕 같은이야기〉라는 메일 편지와 〈들꽃편지〉라는 월간지를 만들고 매일 글을 써서 책을 만드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는 최용우라는 사람.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시간과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곳’이라는 장소가 만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도 기적적이고 이 장소도 기적적이고 일어나는 모든 일이 기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기적 같은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풍경들을 수채화처럼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년 동안 내 삶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과, 사건들과, 우연들과, 나무들, 산, 하늘, 고양이, 골목길에 떨어진 빈 깡통 하나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사진을 찍어 풍경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제 글에 주인공으로 출연해 주신 모든 분들 모든 사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쪽 좋은 인연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차〉

1월 고양이와 항아리

우리 집에 슬그머니 들어와 사는 길고양이 '아리'가 제법 많이 컸다. 사람만 보면 항아리 뒤로 숨어 우리가 성은 '항'이요 이름은 '아리' 항아리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지금은 몸집이 너무 커서 항아리 뒤에 숨어도 다 보인다.

새해 첫날부터 아내의 감기 때문에 의원에 갔더니 감기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감기'가 의사들을 다 먹여 살리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진료를 받고 약을 지어 집에 왔다. 마당의 고양이가 후다닥 도망을 치다가 장독대 위에서 멈추어서서 돌아본다. 고양이와 항아리의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열린 찍었다. 고양이는 우리가 적이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마당으로 내려온다. 아주 짧은 순간의 시간 사이에 일어난 어떤 일이다. 나는 이 순간의 풍경을 '사진'으로 남겼다.

2월 항아리 뒤에

잘 숨어서 이름이 '아리'인 길고양이가 요즘 우리 가족들의 기쁨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새벽부터 창문 밖에서 나오거리며 빨리 창문을 열고 아는 척 해달라고 야단이다. 쉽게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잡아서 안으면 도망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폭 안긴다. 그러면서 고개를 들고 눈을 맞춘다. 입으로는 계속 그릉 그릉 거리며 그루밍을 한다. 아리를 데리고 놀다가 밖에 내 놓고 창문을 닫으려고 하면 창문을 닫지 못하도록 발로 움켜잡는다. 웃겨.

3월 바리스타 이인숙

4월 엄마와 딸

5월 손 잡아주기

6월 나이만 먹어가네

7월 장마 시작

8월 사상 최고 기온

9월 주차장 풀베기

10월 길가의 나팔꽃

11월 다니엘기도회

12월 천변



43 예수 나의 형통 (햇별20)



예수 나의 형통 (햇별20)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4.3.15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르떼 210g 유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330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2,200원

ISBN: 978-89-24-060997

<책소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못하고, 사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되고, 늘 양보하고 손해 보면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이란 뭔가 수도사들처럼 검은 옷을 입고 칙칙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지 못하려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외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도 십자가 대속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이기도 해서 지난 일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형통’에 대해 묵상하였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나의 형통이라는 것이며, 형통은 어쩌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경적, 영적인 원리를 알고 적용했을 때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통’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디 이 책을 꼼꼼히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법칙을 통해 우리 모두 형통한 사람들이 되자구요^^

<추천 권혁성 목사 (익산 한마음교회 담임)>

최용우 전도사님은 20대 젊은 청년시절에 만나서 50대 장년이 된 지금까지 30년 이 넘는 세월동안 벗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형님입니다. 30년 전에도 전도지 뭉치를 들고 다니더니, 30년 후에도 여전히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전도지 뭉치(?)를 들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저는 한결같은 사람,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이런 친구가 좋습니다.

〈햇볕같은이야기〉는 경기도 의왕시 어느 빌라 지하실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초창기 하이텔 단말기를 사용하던 시절 가상의 공간에 글을 쓴다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시작된 〈햇볕같은이야기〉가 25년 동안 계속되어 19권의 책이 나오고 20번째 책에 이렇게 추천사를 쓸 기회가 주어졌으니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최전도사님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없던 시절에 앞으로의 세상은 보이지 않는 가상의 공간에서 대부분의 일처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교회마저도 ‘사이버교회’가 생길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의 말이 현실로 이루어진 세상에 살고 있으니 그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옳았던 것입니다.

최전도사님은 원래 문서선교사입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들꽃편지〉라는 개인 문서지를 만들어 무료로 나누어 주었고 문서가 나오는 날에는 사람들이 좁은 집에 모여 라면 끓여 먹으며 제본작업, 발송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들꽃편지〉가 매월 배달이 됩니다. 저는 가끔 〈들꽃편지〉를 복사를 해서 들고나가 병원, 아파트, 대학 주변에 전도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꽃편지〉를 읽을 때마다 제가 더 행복을 느끼고 기분이 좋습니다.

최전도사님의 글은 참 쉽고 재미있습니다. 읽다보면 우울했던 마음이 금새 활짝 개인 날씨처럼 환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최전도사님께 특별한 글 쓰시는 은사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글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전도사님의 좋은 글들이 전 세계 적으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최전도사님의 책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려나가는 책이 될 것입니다. 〈햇볕같은이야기〉 〈들꽃편지〉가 각 가정에 신문처럼 매일 전해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본 최전도사님은 만날 때마다 늘 행복하게 웃는 모습입니다. 늘 재미있고 헤어지면 금방 또 보고 싶어지는 분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분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쓴 〈예수 나의 형통〉에도 그런 성품이 배어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쪼록 〈예수 나의 형통〉을 많은 분들이 읽게 되기를 바라며 기쁜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목차〉

- 1장 예수 나의 형통
- 2장 형통을 받지 못하는 이유
- 3장 형통을 끌어오는 방법
- 4장 형통이 저절로 오는 사람
- 5장 형통의 법칙
- 6장 하나님께서 두고보지 않으시는 것

44 천번을 부른주님 내입에는 찬양만^(시6)



천번을 부른주님 내입에는 찬양만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19.5.22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1044쪽 옆구리/50.1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34,600원

ISBN: 978-89-24-062342

<책소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8:1)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어두운 기운이 저를 감싸면서 오싹함과 두려운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기운은 더욱 요동을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주님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불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어두운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주여---” 하고 부르는 소리가 하늘로 광선처럼 쭉 뻗어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어두운 기운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늘과 연결되는 통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3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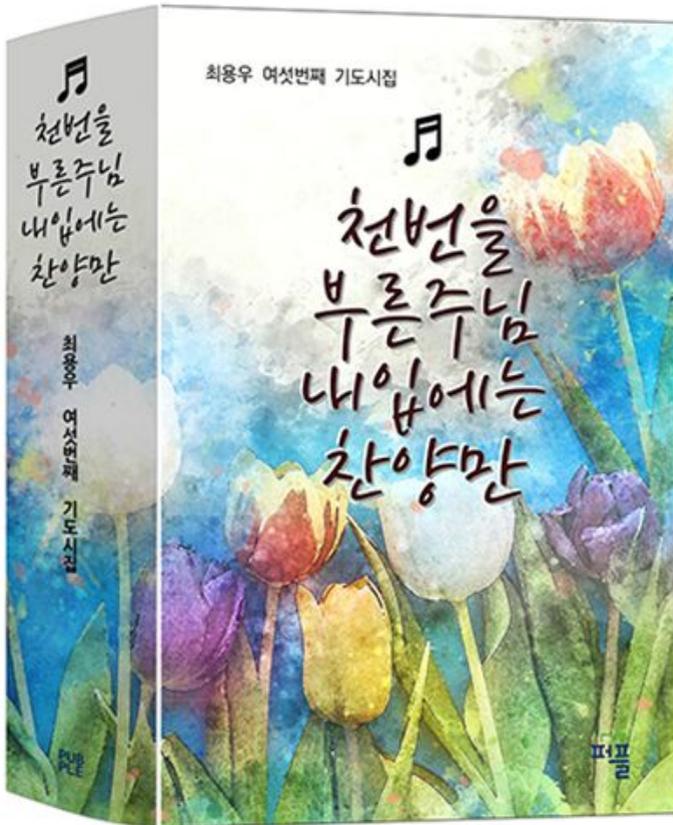
주님!-- 하고 부른 다음에 가만히 기다리면 하늘로부터 어떤 감동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주님을 일천번을 부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크고 은밀한 일을 기록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해서 쓴 것입니다. 한편씩 글을 쓸 때마다 크고 은밀한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작은 책으로 엮어 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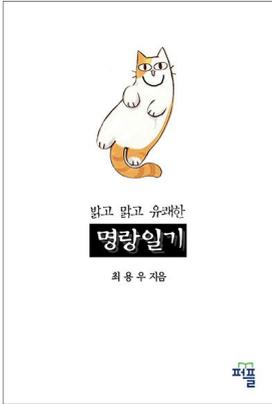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목차>

1. 백번을 부른주님 내눈에는 눈물만
2. 이백번을 부른주님 내귀에는 감사만
3. 삼백번을 부른주님 내코에는 향기만
4. 사백번을 부른주님 내얼굴엔 웃음만
5. 오백번을 부른주님 내손에는 박수만
6. 육백번을 부른주님 내발에는 헌신만
7. 칠백번을 부른주님 내심장엔 뜨거움만
8. 팔백번을 부른주님 내마음엔 기도만
9. 구백번을 부른주님 내영혼엔 기쁨만
10. 천열다섯번을 부른주님 내입에는 찬양만



45 명랑일기 (일기11)



명랑일기 - 밝고 맑고 유쾌한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0.2.28.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396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5,200원

ISBN: 978-89-24-069075

〈책소개〉 밝고 맑고 유쾌한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소녀의 발걸음이 마치 나비처럼 가볍습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천사 같은 표정입니다. 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손이 말려 펼 수 없는 장애인이고, 아버지는 제가 하도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애초에 엄마 손을 잡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두 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서로 행복하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좋은 아빠의 모습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남편 공부, 아빠 공부를 했지요.

아이들에게 실수를 할 때마다 “미안하다. 아빠가 초보라서 그래. 아빠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보고 배울 아빠가 없었단다. 아빠 엄마가 있는 너희들이 부럽다.”

어느 날 나의 아빠는 어떤 분이셨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셨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준 것은 돌아가시기 직전 초등학교 4학년이던 나를 불러 앉혀 놓고 “절대로 잊지 마라. 너는 해주씨 손롱공파고 아버지 이름은 최운경, 큰아버지 이름은 최순경 고향은 해주이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적어놓은 것이 아니니 저는 이 정도 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 ‘해주씨 종친회 뿌리찾기’를 통해 아버지 돌림자와 고향과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대충’ 족보를 정리하였습니다. ‘대충’이라고 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나의 자손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나의 두 딸은 아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고 평생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궁금해 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살았던 날들을 짧게나마 글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슬픔이나 아픔으로 남아있는 어떤 기억들에 대해 이 다음에 ‘아, 그때 아빠의 생각은 이랬었구나.’ 본인들이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 부모를 이해할 수도 있겠죠. 이 다음에 아빠 책을 읽으면서 작고 아름답고 소소한 추억들을 떠올리며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가질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동기로 시작한 일기쓰기였는데, 벌써 11번째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책은 ‘명랑일기’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어릴 적에 많이 봤던 ‘명랑만화’가 재미있었던 기억도 있고, ‘맑고 밝고 유쾌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나의 생각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명랑’인 것 같은 이유도 있습니다.

〈목차〉

1월 명랑일기

조선의 왕(王)들에 대한 기록은 왕조실록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수많은 드라마의 소재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백성들의 생활은 어떠했을까? 선조 왕 때 전라도 담양 땅에 살던 미암 유희춘이라는 분이 10년 동안 쓴 ‘미암일기’가 당시 백성들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는 한 수레 분량의 일기를 썼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하면서 ‘난중일기(亂中日記)’를 썼다. 중학교때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 중 쓴 일기가 무엇인지 묻는 시험 문제에 아무 생각 없이 ‘명랑일기’라고 썼다가 국사선생님께 뒤지게 맞은 적이 있다. 그때 일이 생각나 올해 일기 제목을 ‘명랑일기’라 지어봤다. 수십년이 지난 뒤에 소심한 복수(?)

2월 도배

3월 여행

4월 웃음

5월 생수

6월 나 어디로 가라고

7월 하모니카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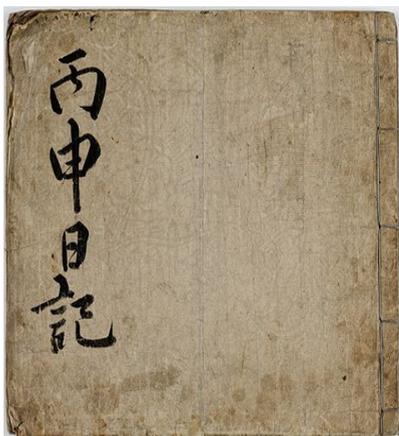
8월 재미

9월 대한민국은 섬

10월 아프다

11월 청설모

12월 향아리



46 들꽃편지1권



들꽃편지 제1권 -고마리꽃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0.6.17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508쪽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8,600원

ISBN: 978-89-24-

〈책소개〉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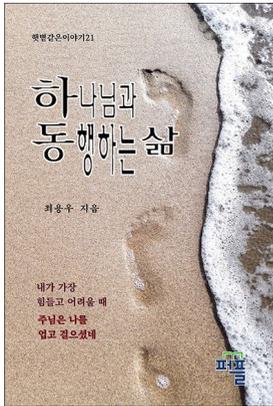
〈들꽃편지〉는 만남의 설레임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띄우는 작은 꽃 한송이 같은 편지입니다. 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쓴 진짜 편지였습니다. 할 말도 많아지고 페이지도 더 늘어난 지금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만 마음은 여전히 연필에 침 문혀 푹푹 눌러 쓰고 있습니다.

〈들꽃편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활영성' '쉼' '나눔'을 추구하며,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고 따라 사는 소박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보면 하나님의 미소가 빙그레번지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회입니다. 〈들꽃편지 제1권〉은 1990년 1월 창간호부터 1992년 11월 제61호까지 2년10개월 동안 발행한 61회분을 모았습니다.

1990년은 발행인 최용우 나이 27세였으며, 기독교 주간신문(크리스찬포스트)기자로 잠깐 있으면서 손바닥만 한 개인 월간지를 창간하여 마스터 인쇄로 매월 1000부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들꽃편지〉의 시작입니다. 주로 '노방 전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쉬운 내용으로 간단하게 편집했습니다. 1990-91년 노방전도단을 조직하여 매주 노방전도를 나갈 때는 주간으로 발행했습니다.

47 하동-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햇별21)



하동-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0년12월 31일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320쪽 옆구리/15.4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4,300원

ISBN: 978-89-24-060997

〈책소개〉

저는 산책을 하다가 공원 의자에 앉아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유치원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것일까요? 엄마랑 시장에 가는 것일까요? 아빠에게 가는 것일까요? 그거야 알 수 없지만 다정한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행복’을 그림으로 그리라면 저 모습이지 싶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큰 주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것이 바로 동행이지...”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저를 속 시원하게 해 줄 책이나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뜬구름 잡는 식의 ‘개념적’ 글이 많고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된다’... 커더라... 식의 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에덴동산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에 대한 ‘동행기록’입니다. 저는 구약성경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동행한 깊은 이야기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듭니다.

〈추천 황금열 목사(생명나무교회)〉

오랫동안 지켜본 최용우 전도사는 소탈한 성격에 꾸밈없이 진솔 하였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였다. 그의 인간적 매력을 표현하자면 마치 깊은 숲속 옹달샘에서 떠온

물로 상큼한 봄나물에 오래 묵은 재래식 된장을 넣어 끓인 구수함이 배어나오는 것 같다. 그 누구와도 거리감이나 차별함이 없는 친근함과 사랑이 넘치는 인격의 소유자였다.

햇별같은이야기 시리즈 21번째 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진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마음, 삶을 깨우치게 하여 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내용이다. 책을 읽고 최전도사를 다시 보게 되었다. 시대를 바르게 읽고 성경에서 답을 제시하는 그의 깊고 깊은 통찰력은 어디에서 나올까 생각해 보았다.

그는 세상에 때 묻지 않으려 자신과 부단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의 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엿보였다. 바른 복음만이 한국교회를 세울(회복)할 수 있다는 일념이 보였다. 그의 글에는 서재에 박혀서 방대한 양의 독서를 하고, 기도의 방에서 아콕처럼 씨름하는 모습과, 산행을 비롯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잔뜩 묻어 있었다.

<햇별같은이야기>를 30년 동안 한눈팔지 않고 이끌어온 저력으로 21번째 펴내는 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린 종의 신앙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결정체요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여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 믿어 확신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추천한다. -강원도 정선 생명나무교회 담임목사 황금열

<목차>

1장 하나님과 동행

1.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2. 솔직한 고백 3. 하나님을 깊이알기 4. 할 수 있을까? 5. 인격이신 하나님 6. 하나님 아버지 7. 조용히 부름 8. 하나님의 음성 9. 하나님의 존재 인식 10.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나는 사람 11. 시끄러움과 조용함 12. 뿔레뿔레 13. 고상함과 여상함 14. 초연하신 하나님 15. 인내하시는 하나님 16. 여상하신 하나님 17. 안식하시는 하나님 18. 잠잠하신 하나님(이하 생략)

2장 성경읽기

49. 타는 목마름 50. 잘못된 성경읽기 51. 지식적인 성경읽기 52. 감정적인 성경읽기 53. 성경에 읽히기 54. 간혀있는 성경 55. 사랑 성경 56. 동행 성경 57. 임마누엘 성경 58. 파노라마 성경 59. 성경은 하나님의 책 60. 마음으로 성경보기 61. 성경 1독 하기 62. 망원경으로 성경읽기 63. 현미경으로 성경읽기(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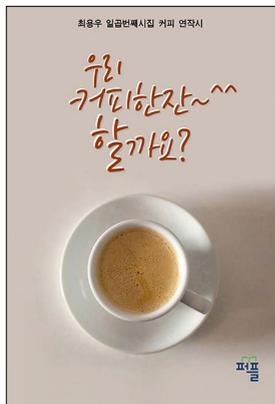
3장 대화와 정결

4장 가문의 영광

5장 지혜와 기도

6장 심판과 회복

48 우리 커피한잔 할까요? (시7컬러)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커피 연작시)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2021.1.20

카테고리/ 시.에세이 /한국시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페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168쪽 옆구리/8.6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1,300원

ISBN: 978-89-24-077605

〈책소개〉 저는 커피 마시는 시인(詩人)입니다

아내는 저를 ‘여보’하고 부릅니다. 아이들은 ‘아빠’라 부르고, 교회에 가면 ‘전도사님’이라 부르고, 웅이 할머니는 ‘애기아빠’라고 부르고, 식당에 가면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인쇄소에 가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동네 이장님은 ‘작가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불리고 싶은 이름은 ‘시인(詩人)’이에요. 왜냐고요? 시인이 얼마나 근사한 사람인지 아세요?

1.사람들은 “여기는 내 땅이야. 저기는 내 산이야.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땅, 내 산을 샀지 음허허허허” 하고 자랑을 합니다.

시인은 “그러세요? 땅이랑 산은 등기를 해서 당신이 소유하세요. 그러나 풍경은 내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땅과 산과 자연을 즐기고 노래하고 산소를 마시는 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2.사람들은 “나는 국회의원이야, 나는 사장이야, 나는 대통령이야. 나는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명예도 있어 우하하하하하” 하고 자랑을 합니다.

시인은 “그러세요? 권력과 재력과 명예는 당신이 다 가지세요. 그러나 내 마음까지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모시적삼 걸치고도 천하가 내 것이고, 거문고 타면서 떡을 해 먹고, 달을 보면서 그네를 타는 여유와 자유는 내가 누려야겠소이다.”

3.사람들은 “나는 큰교회의 엄청난 목사야, 나는 큰절의 거대한 주지야, 나는 14만 4천명의 절대 교주야 부럽지? 오호호호...” 하고 자랑을 합니다.

시인은 “그러세요? 교회당이든 성전이든 사찰이든 사원이든 열심히 지으세요. 그러

나 아무리 큰 건물을 지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만은 못할 것입니다.
그 오두막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시인(詩人)입니다.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시인입니다. 영혼이 맑은 시인입니다. 하나님과 농담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시인입니다. 부디 저를 커피 시인이라 불러 주세요. 그건 그렇고 우리 언제 커피한잔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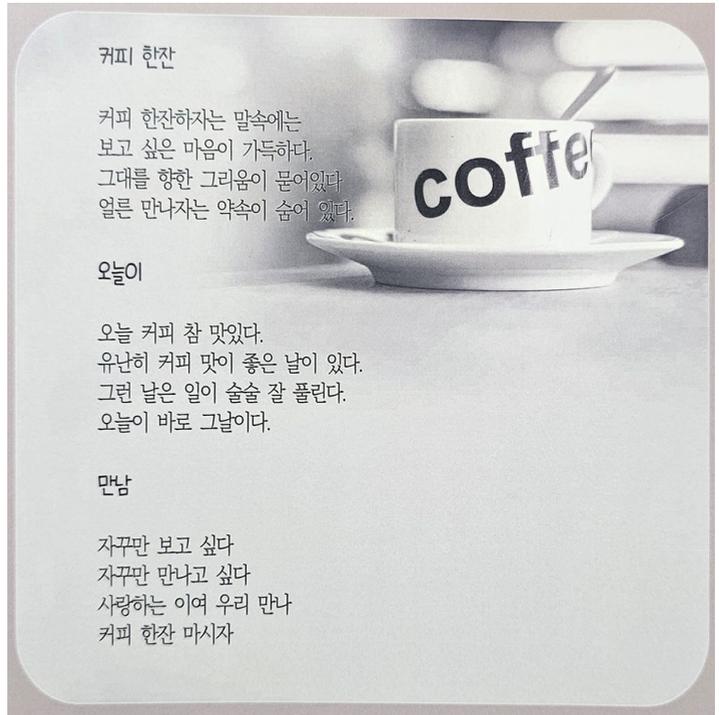
커피 시인 최용우가 초청합니다.

〈추천〉

커피 한잔하지는 말속에는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그대를 향한 그리움이 묻어있다. 얼른 만나자는 약속이 숨어 있다.
오늘 커피 참 맛있다. 유난히 커피 맛이 좋은 날이 있다.
그런 날은 일이 술술 잘 풀린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자꾸만 보고 싶다. 자꾸만 만나고 싶다.
사랑하는 이여, 우리 만나 커피 한잔 마시자.
376편의 커피 연작시와 아름다운 컬러 사진이
잘 내린 커피처럼 맛있게 어울어진 예쁜 커피책입니다.

〈목차〉

- 1. 커피 맛으로
- 2. 저요
- 3. 커피 맛은
- 4. 행복 맛
- 5. 냉수와 커피
- 6. 외로움
..(중략)
- 107. 따뜻한 커피
- 108. 커피 타임
- 109. 감사 기도
- 110. 만약
- 111. 사랑
...(중략)
- 374. 내 마음
- 375. 좋다
- 376. 안녕



49 바보일기 (일기12컬러)



바보일기-재미있고 행복한(일기12)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1.2.25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394쪽 옆구리/18.7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23,900원

ISBN: 978-89-24-078640

<책소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 표준으로 판단해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매우 슬기롭다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생각을 내던져 버리고 차라리 바보가 되십시오. 그래야 정말 슬기로운 사람이 됩니다.”(현대어성경 고린도전서3:18)

노자(老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명칭하고 명칭하여라. 속세 사람들은 빛나고 빛나는데 나 홀로 어둡고, 속세 사람들은 똑똑하고 똑똑한데 나 홀로 어리숙하여 아득하기가 바다 같구나. 쓸쓸하여라. 나는 멈출 곳이 없는 자 같구나. 사람들은 모두 쓸모가 있는데 나 홀로 바보 같고 비루하구나.” (노자20장)

이렇게 한탄(?)하던 바보같은 노자는 아직도 살아 있어 동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데, 당대에 빛나고 똑똑하던 그 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는가?

또 한 해를 재미있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애기치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멈추어 서게 하여 잠시나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된 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또 열심히 이 시대의 풍경을 수채화처럼 기록했습니다. 49번째 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에 출연해 주신

주연과 조연들,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기쁨을 주더니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진 길고양이 삼색이에게 그동안 고마움을 전합니다.

〈목차〉

1월 꽃을 그리워하는 달 -새로운 녀석 길고양이 삼색이가 대대로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우리 집 마당에 새로운 녀석이 나타나 삼색이와 구역다툼을 하고 있다. 새로 온 고양이는 아직 어린 고양이이다. 삼색이 밥그릇에 대놓고 머리를 쳐박고 서로 밀치며 밥을 먹는다.

다른 고양이 같으면 삼색이가 단번에 내쫓아버릴텐데, 이 새끼 고양이는 할머니가 손자를 예뻐하는 것처럼 봐주는 것일까? 그렇게 모질게 내쫓지는 않는 것이 신기하다. 그런데 마치 어린아이가 용알이를 하는 것처럼 앙앙앙앙앙 소리를 내면서 뛰어다닌다. 그동안 어디서 얻어먹고 다녔는지 토실토실 건강하다. 열려진 창문으로 집안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호기심도 많은 것 같다. 아내와 아이들은 저놈을 어떻게 길들여서 한번 만져보자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있다.

2월 꽃 보러 가는 달

3월 꽃 찾아 떠나는 달

4월 꽃 보고 웃는 달 -연장된 수명은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63빌딩은 계단이 1251개라고 한다. 백암산 백학봉 올라가는 계단은 1670계단이니 건물로 치면 최소한 80층은 된다는 뜻이다. 웬만한 인내심 없이는 스마일~ 하면서 올라가기 힘들다.

다행히 200계단마다 알람판이 붙어있고 칼로리 소모량과 늘어난 수명이 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다. 초4인 황현동이가 자꾸 뒤로 쳐지기에 200계단씩 끊어서 올라가며 쉬었다. 늘어나는 생명을 계산하는 재미가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1670계단을 다 올랐다. “이야... 드디어 수명이 두 시간 연장 되었다. 현동이 너는 두 시간 연장된 소중한 생명을 어디에 쓸래?”

“엄마한테 핸드폰 두 시간 더 하게 해달라고 할래요.”

5월 철쭉꽃 보는 달

6월 꽃길을 걷는 달

7월 비에 젖은 꽃 보는 달

8월 밝은이 러브하우스 구하는 달

9월 밝은이 이사하는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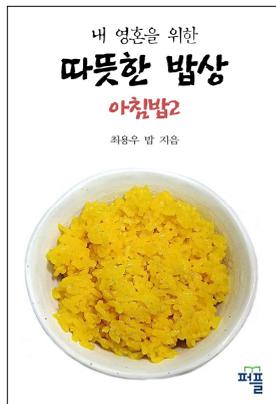
10월 코스코스꽃 보러 가는 달

11월 꽃지는 달

12월 눈꽃을 보는 달



50 따뜻한 밥상2 (대상-말)



내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아침밥2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1.4.13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398쪽 옆구리/18.9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7,300원

ISBN: 978-89-24-080346

<책소개>

<성경 해석은 신학자들이 할 일이고 나는 다만 성경을 먹어야겠습니다. 이 책은 성경을 해석한 책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읽다 보면 영혼이 배가 불러지는 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입니다. 조미료(신학적 교리적 해석) 치지 않고 성경을 날 것 그대로 '아멘'으로 요리하였습니다. 밥은 스스로 떠먹는 것이고 나는 다만 밥상을 차릴 뿐입니다.>

가르침이 적혀 있는 이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끊임없이 외워라. 그 가르침을 놓고 낮이든 밤이든 늘 명상하여라. 가르침을 끊임없이 곱씹어 보아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네 앞길이 평탄하리라.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안 되는 일이 없으리라.(현대 여성경 여호수아1:8)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시1:2)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정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복이 오는 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돈을 왕창 버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인한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값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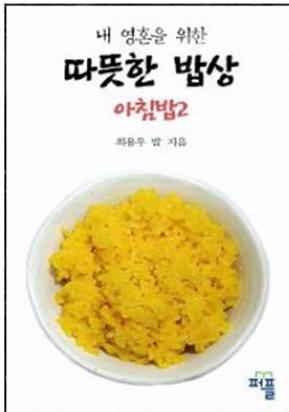
그렇게 뜨개질을 하듯 한 땀 한 땀 묵상한 말씀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제가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말씀한 절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참으로 그윽하고 향기롭습니다. 날마다 이런 복된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목차>

- 1월 대상12장-대하13장-
- 2월 대하14장-스6장
- 3월 스7장-욥4장
- 4월 욥5장-욥34장
- 5월 욥35장-사19장
- 6월 사20장-사50장
- 7월 사51장-렘16장
- 8월 렘17장-렘50장
- 9월 렘51장-겔26장
- 10월 겔27장-호3장
- 11월 호4장-미3장-
- 12월 미4장-말4장

<따뜻한 밥상> 시리즈는 총 7권입니다.

- 제1권 아침밥1 - 창세기1장 - 역대상11장 까지 400쪽 14300원
- 제2권 아침밥2 - 역대상12장 - 말라기(시편 잠언 전도서 제외) 398쪽 17300원
- 제3권 점심밥1 - 시편 전체 402쪽 14400원
- 제4권 점심밥2 - 잠언 전도서 398쪽 14300원
- 제5권 저녁밥1 - 마태복음 - 마가복음 400쪽 14300원
- 제6권 저녁밥2 - 누기복음 - 요한복음 398쪽 17300원
- 제7권 저녁밥3 - 사도행전-요한계시록 398쪽 17000원



POD

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아침밥2

최용우 지음 | 퍼플 | 2021년 04월 13일 출간

정가 : 17,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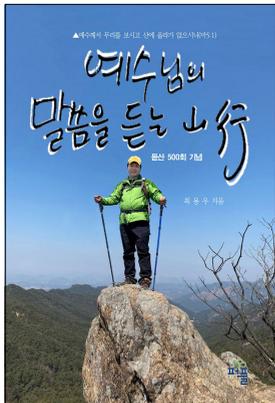
판매가 : **17,300원** [0%↓ 0원 할인]

통합포인트 : [기본적립] 510원 적립 [3% 적립] [안내](#)

성경해석은 신학자들이 할 일이고 나는 다만 성경을 먹어야겠습니다. 이 책은 성경을 해석한 책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읽다보면 영혼이 배가불러지는 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입니다.

조미료(신학적, 교리적 해석)치지 않고 성경을 날것 그대로 '아멘'으로 요리하였습니다. 밥은 스스로 떠 먹는 것이고 저는 다만 밥상을 차렸을 뿐입니다.

51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컬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1.5.6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534쪽 옆구리/25.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31,800원

ISBN: 978-89-24-08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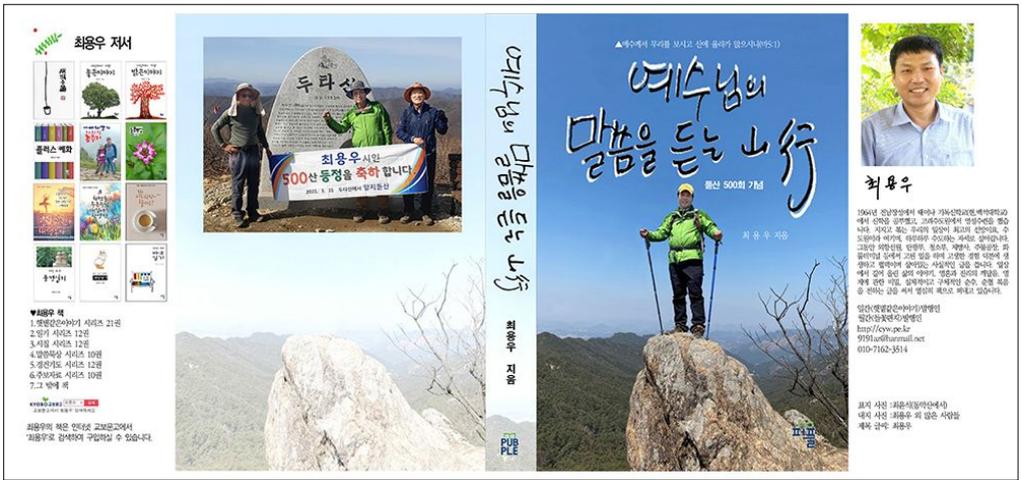
〈책소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마5:1-2)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줄여서 ‘듣산’입니다.

산에 오르면 많은 유익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때로는 바람으로 오시기도 하고, 새 소리로 오시기도 하고, 흘러가는 구름으로 오시기도 하고, 오셔서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걷는 주님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생 큰딸이 무엇이든 ‘가족 행사’를 하고 글로 쓰는 방학 숙제를 해야 한다기에 “그럼 우리 ‘가족 등산’을 하자” 해서 2004년 1월 10일 친구 김대철 목사님 가족과 함께 8명이 〈제1회 가족 등산〉으로 대전 식장산(580m)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가족 등산〉은 두 달에 한 번씩 몇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아내도 잘 안 가려 하고 아이들도 학교 다니기에 바빠 가족이 다 참여하는 〈가족 등산〉은 1년에 두세 번 정도밖에 갈 수 없었고 ‘홀로 산행’을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51회 가족 등산〉부터는 이름을 〈듣산〉으로 바꾸고 ‘홀로 산행’도 횡수에 포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종특별시 금남면 용포쑈티마을(충남 연기군 금남면)으로 이사 온 이후 동네 뒷산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학이 날아가는 산이라 하여 비학산(飛鶴山)인데 가장 높은 봉우리 ‘일출봉’까지 정확하게 2.5km이고 왕복하면 5km입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비학산에 올랐더니 1주 1산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의 높은산 300’ 목록을 작성해서 1년에 50산 정도를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4년 시작한 등산이 17년 만에 500회가 되었습니다. 500회 기념으로 그동안 산행 자료를 편집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자료를 잘 모아 놓아서 지난 몇 달 동안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편집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최완택 목사님의 614회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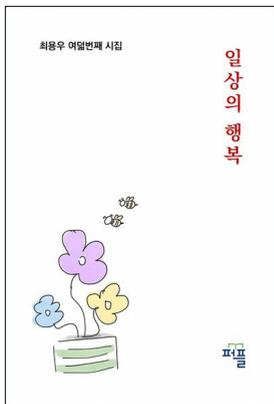
오랜 세월 동안 시마다 때마다 산행에 동행한 모든 산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500회 등산을 하는 동안 한 번의 사고도 없었고,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중간에 포기한 적도 없이 100% 완등 하였습니다.

〈목차〉

1. 시작하는 글
2. 차례
3. 등산1-500 산행기
4. 오른 500산 지도
5. 찾아보기
6. 한국의 높은산 300 목록



52 일상의 행복 (시8컬러)



일상의 행복 -최용우 여덟 번째 시집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1.7.8

카테고리/ 시.에세이 /한국시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210쪽 옆구리/10.4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3,600원

ISBN: 978-89-24-083224

〈책소개〉 평화로운 일상 그리고 행복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잠시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서
햇볕을 쬐며 심호흡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길고양이 꼬맹이가 나타나
내 앞에서 벌러덩 드러누워 이리뒹굴 저리 뒹굴 한다.
고양이가 배를 보여주며 뒹구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애교를 부리는 행동이다.
강아지와 달리 복종의 개념이 없는 고양이는
배를 보여주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경계심이 강한 길고양이가
한 1년 우리 집 식구들에게 밥을 얻어 먹더니
이제는 내 앞에 와서 스스럼없이 친근감을 표시하는 구나,
나는 별 관심이 없다는 듯 시크한 표정을 지으며
이 말할 수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즐긴다.



이 시집은 특별한 형식 없이
아무 때나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그저 단순하게 받아 적어놓은 시 중에서 한 권 분량을 추렸다.
그래서 그저 단순하게 읽고 잊어버리면 된다.

〈목차〉

1장 봄, 어느 날 -48편의 봄에 쓴 시

10.봄비 11.도토리 껍질 12.봄 13.그대와 14.꽃과 그리움 15.이별 16.매화 17.사 략들은 18.나는 죄인 19.숙제 20.커피 21.터벅터벅 22.청춘 23.약수터 24.가는 길 25.꽃샘추위 26.부활의 아침 27.이대로 28.애교 29.보석 30.참 진달래 31.천둥 번 개 32.새벽 33.피프리와 상수리 34.흐름 35.만남 36.시에게 37.귀빵땡이 38.첫사 랑 39.새 40.배웅 41.발 42.도토리 43.수확 44.어쩔 그렇게 45.우하하하 46.나의 삶 47.쥐며느리 48.내 생일 49.고생 50.개꿈 51.단소 52.빈터 53.팽이 54.오줌 55.겨울 56.귀 파기 57.코 파기

2장 여름, 갑자기 -48편의 여름에 쓴 시

60.여름 한낮에 61.청계천 62.만세 63.선거 64.컴퓨터 65.달팽이 66.식사 기도 67.인타까움 68.보리밥 69.맷소사 70.빵 71.어둠 72.평화로움 73.두레박 74.다른 의미 75.소나무 76.식욕 77.눈물빵 78.단추와 바늘 79.강아지풀 80.번지점프 81. 여섯그루 소나무 82.저녁노을 83.금붕어 84.시원하겠다 85.우산 86.파도와 바람 87.똥배 88.총각 89.해 봤니? 90.모기와 파리 91.연기 92.불법 주차 93.네가 있어 서 94.박꽃 95.우리 이모 96.만들레 97.소나기 98.바다와 하늘 99.몽게구름 100 구름같은 꿈 101.왁자지껄 102.숨은 진실 찾기 103.더워 104.오늘도 105.어떤 목 사님의 일주일 106.복숭아 107.수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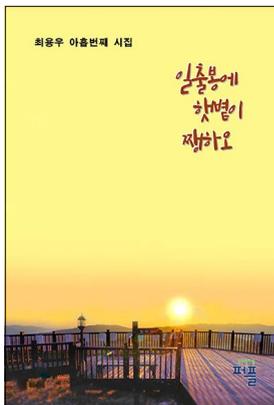
3장 가을, 천천히 -48편의 가을에 쓴 시

110.가을빛 축제 111.어느 날 112.눈물 113.대박 114.한밤중에 115.양치질 116. 채송화 117.사랑하는 까닭에 118.시 쓰기 119.휴식 120.뽕나무 121.염소와 바돌 기 122.감 사웠습니다 123.콩 반쪽 124.잡초와 생명력 125.욕설 126.매미 127.오 물오물 128.몽클 129.욕심 130.꿇밥 131.호호호 132.나는 주님의 도화지 133.이 게 뭘까 134.기회 135.바나나 136.연꽃 137.토끼 138.수건 139.꽃속에 140.분 수 141.청소부 하나님 142.일일일식 143.위로 144.생명이신 주님 145.실패한 대 통령 146.항문 147.슬픔 다람쥐 148.육개장 149.감 150.행복 151.도토리 152.도 토리 세 알 153.잃어버린 도토리 15.별찾기 155.고구마 밥 156.생강차 157.모과

4장 겨울, 따뜻한 -48편의 겨울에 쓴 시

160.나이 161.함박눈 162.진짜 가짜 163.입과 귀 164.잘잘잘 165.고드름 166.오 늘의 일기 167.다시 일어섭니다 168.작심삼일 169.새 날 170.깨달음 171.부끄러 움 172.치킨 173.깊은 우물 174.답 175.노예 176.서로사랑 177.꽃 178.모락모락 179.시계와 시간 180.수평선 181.눅차 182.살아 있어 183.목포 가자 184.형통 185.그게거거 186.새벽 종소리 187.호박 188.숨을 집 189.보름날 190.이사 191. 나 192.빈 들판을 바라보며 193.미세먼지 194.도토리묵 195.천국 196.3.1운동 100년 197.바다 198.감사 199.연 날리기 201.첫사랑 202.분홍색...

53 일출봉에 햇별이 쟁하오 (시9컬러)



일출봉에 햇별이 쟁하오(컬러)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1.9.17

카테고리/ 시.에세이 /한국시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210쪽 옆구리/10.4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3,600원

ISBN: 978-89-24-085549

〈책소개〉 비학산 일출봉 시인의 산중 연가(山中戀歌)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쑥티마을

계룡산에서 흘러내린 용수천이 금강과 이어지는 포구마을

그래서 계룡산의 용(龍)과 포구(浦口)의 포를 따서 용포리.

그리고 역적이 나와 한때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 버려져서 쑥만 자라던 곳이라 하여 이름이 ‘쑥티’인 슬픈 마을에 내가 산다.

우리 마을 뒷산은 학을 닮은 산 비학산(飛鶴山)이다. 지금도 해마다 학이 날아와 등지를 틀고 알을 낳는다.

2006년 가을에 이곳으로 이사 와서 뒷산에 올라가 보았다. 가장 높은 봉우리인 ‘일출봉’(228m)까지 집에서부터 정확하게 왕복 5km였다. 등산로도 희미하고 잡풀을 헤치고 올라갔던 산을 잊고 있었는데, 충남 연기군이었던 이곳에 행정복합-세종시가 새로 들어서면서 2008년부터 일출봉 종합개발이 시작되었다.

수 많은 일꾼들이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무를 베고 꽃을 심고 데크를 만들어서 근사한 비학산 일출봉 공원을 만들었다. 그 즈음부터 비학산 일출봉을 오르면서 한번 오를 때마다 한 편씩 시(詩)를 썼다.

이 시집은 2006.10.28.일부터 2019.6.1.까지 13년 동안 194회 등산을 하면서 쓴 194편의 시를 모았다.

〈목차〉

1부. 연기 비학산 -비학산이 연기군일 때 쓴 시

2부. 꽃이랑 비학산 -비학산에 피는 꽃 詩

134 최용우 책

3부. 세종 비학산 -비학산이 세종시가 된 후 쓴 시
4부. 벌레랑 비학산 -비학산의 벌레, 동물, 곤충들

춘애(春愛)

복사꽃
흐드러지게 피었네
꽃향기에 취하네
꽃비를 맞네

오!
나는 왜마다
봄의 연인이 되어
복사꽃 사랑을 하네



비학산 올라가는 길 언덕에 복사꽃이 피어 아내가 꽃자를 위해 밭 솟이 었는다. (2008.4.3)

10 일출봉에 햇빛이 켜하오

벵자꽃

하얀 벵자꽃 피어
햇빛에 반짝이고
잠새들은 가시 사이를
요리조리 잘도 피해 다니네.

벵자 가시를 보면
예수님 머리에 면류관
피 묻은 가시관이 생각나
하얀 벵자꽃이 붉게 물드네.



비학산 올라가는 길에 만나는 흰 바닐라 송라리가 벵자나무이다. 화왕계 흰 벵자나무와 무성계 흰기 가시들을 보니 면류관이 생각난다. 흰 바닐라 사지 면류관을 생각하더니... (2008.5.1)

1부, 연기 비학산 11

작약꽃

아내가
여인의 붉은 입술 같은
작약 꽃잎을 따 말린다.

작약 꽃잎 차를 마시면
여인의 달달하고 환유한
키스 맛이 날 것만 같다.



꽃이 고개 넘어가는 길에 만나는 어린 딸머리 집에는 온갖 꽃들이 가득하다. 그 중에 작약꽃이 가장 크고 많았다. (2008.5.8)

12 일출봉에 햇빛이 켜하오

개망초꽃

적 하얀 꽃
미치도록 흐드러진
저 꽃 이름이 무엇이었?
망초꽃 그것도
개망초 꽃이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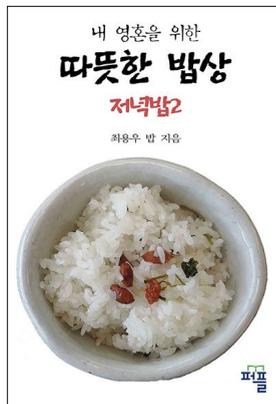
처럼 예쁜 꽃을
이름이 왜 그런가요?
일본놈들이
우리나라 망하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해발되었으니
다른 예쁜 이름으로
왜 안 바꾸지요?
그렇게나 말입니다.

꽃이 고개 넘어 흰 밭에 개망초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개망초꽃은 땅을 울게 해주는 식물이며 제단 후라이를 날아 개단꽃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이 침략하여 한국에 콩고루 퍼져있는 꽃처럼 한국이 콩고루 망하라고 불린 '개망초꽃'이라는 이름이 식물 도록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아직도 그냥 개망초꽃으로 부른다. 어쩌면 풍류로 (2008.6.19)

1부, 연기 비학산 13

54 따뜻한 밥상6 (눅-요)



내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저녁밥2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1.10.15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398쪽 옆구리/18.9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7,300원

ISBN: 978-89-24-086379

<책소개>

<성경 해석은 신학자들이 할 일이고 나는 다만 성경을 먹어야겠습니다. 이 책은 성경을 해석한 책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읽다 보면 영혼이 배가 불러지는 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입니다. 조미료(신학적 교리적 해석) 치지 않고 성경을 날 것 그대로 '아멘'으로 요리하였습니다. 밥은 스스로 떠먹는 것이고 나는 다만 밥상을 차릴 뿐입니다.>

가르침이 적혀 있는 이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끊임없이 외워라. 그 가르침을 놓고 낮이든 밤이든 늘 명상하여라. 가르침을 끊임없이 곱씹어 보아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네 앞길이 평탄하리라.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안 되는 일이 없으리라.(현대 여성경 여호수아1:8)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시1:2)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정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복이 오는 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돈을 왕창 버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인한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값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뜨개질을 하듯 한 땀 한 땀 묵상한 말씀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제가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말씀한 절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참으로 그윽하고 향기롭습니다. 날마다 이런 복된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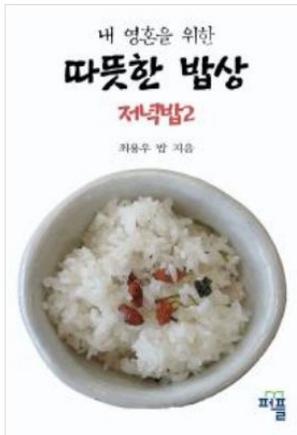
〈목차〉

- 1월 녹1장-4장
- 2월 녹5장-8장
- 3월 녹9장-12장
- 4월 녹13장-16장
- 5월 녹17장-21장
- 6월 녹21장-24장
- 7월 요1장-4장
- 8월 요5장-8장
- 9월 요9장-12장
- 10월 요13장-15장
- 1월 요16장-18장
- 12월 요19장-21장



〈따뜻한 밥상〉 시리즈는 총 7권입니다.

- 제1권 아침밥1 - 창세기1장 - 역대상11장 까지 400쪽 14300원
- 제2권 아침밥2 - 역대상12장 - 말라기(시편 잠언 전도서 제외) 398쪽 17300원
- 제3권 점심밥1 - 시편 전체 402쪽 14400원
- 제4권 점심밥2 - 잠언 전도서 398쪽 14300원
- 제5권 저녁밥1 - 마태복음 - 마가복음 400쪽 14300원
- 제6권 저녁밥2 - 누가복음 - 요한복음 398쪽 17300원
- 제7권 저녁밥3 - 사도행전-요한계시록 398쪽 17000원



POD

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저녁밥2

최용우 지음 | 펴플 | 2021년 10월 15일 출간

정가 : 17,300원

판매가 : **17,300원** [0%↓ 0원 할인]

통합포인트 : [기본적립] 510원 적립 [3% 적립] 안내

성경해석은 신학자들이 할 일이고 나는 다만 성경을 먹어야겠습니다.
이 책은 성경을 해석한 책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읽다보면 영혼이
배가불러지는 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입니다.
조미료(신학적, 교리적 해석)치지 않고 성경을 낱것 그대로 '아멘'으로
요리하였습니다. 밥은 스스로 떠 먹는 것이고
저는 다만 밥상을 차렸을 뿐입니다.

55 예동-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햇별22)



예동-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1.11.5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326쪽 옆구리/15.4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4,600원

ISBN: 978-89-24-087239

<책소개>

우리 삶의 가장 좋은 본보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견적인 분이시라면,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직접 사시는 것을 보여 주신 가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님과 똑같이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예수님처럼'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밥 먹고, 예수님처럼 싸고, 예수님처럼 자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재벌 2세'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된 나를 구원하여 부요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가난한 예수님처럼 살 수 없지만, 가난한 나는 가난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형상과 성정을 가지고 살다가 죽임당하신 다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기록입니다. 구름 속에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신약성경을 읽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추천> 최광열 목사 (하늘교회)

이야기가 세상을 구원한다. 이야기는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있다. 중세의 암흑시대를 걷어낸 것도 사실은 이야기의 힘이다. 르네상스는 이야기에서 시작하였다. 라

56 들꽃편지2권



들꽃편지 제2권 -썩부쟁이꽃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1.11.30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504쪽 옆구리/23.7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21,100원

ISBN: 978-89-24-08857-1

〈책소개〉 들꽃편지 제2권 -썩부쟁이꽃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만남의 설레임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띄우는 작은 꽃 한송이 같은 편지입니다. 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쓴 진짜 편지였습니다. 할 말도 많고 페이지도 더 늘어난 지금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만 마음은 여전히 연필에 침 문혀 꼭꼭 눌러 쓰고 있습니다.

〈들꽃편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활영성' '쉼' '나눔'을 추구하며,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고 따라 사는 소박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미소가 빙그레 번지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회입니다. 〈들꽃편지 제2권〉은 1992.12월 제62호부터 1995.2월 제128호까지 2년 2개월 동안 발행한 67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낮에는 하루에 800부가 넘는 신문 배달을 하며 야간에는 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공부를 하면서 선교회를 이끌어가다가 신학교에서 만난 이쁜 자매와 결혼을 하고 서울 강남에 개척한 알곡교회의 전도사로 부임했던 시기입니다. 신학공부와 교회사역과 선교회사역을 병행하기가 힘들어 잠시 쉬면서 양재동에 있는 화물터미널에서 1년 동안 짐꾼으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꽃편지〉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교회 주보〉와 똑같은 내용에 이름만 다르게 편집해서 들꽃편지를 발행하였습니다.

월간 <들꽃편지> 제62호-제128호 표지 모음



이웃과 더불어 어울려 노는 것은 어린이의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이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은 어린이의 정서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은 어린이의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1982.12
제62호(12월호) 표지

62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1983.11
제63호(11월호) 표지

63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1983.12
제64호(12월호) 표지

64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1983.10
제65호(10월호) 표지

65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1983.10
제66호(10월호) 표지

66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1983.03
제67호(3월호) 표지

67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1983.03
제68호(3월호) 표지

68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1983.06
제69호(6월호) 표지

69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1983.13
제70호(13월호) 표지

70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1983.02
제71호(2월호) 표지

71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1983.07
제72호(7월호) 표지

72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1983.7
제73호(7월호) 표지

73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1983.71
제74호(71월호) 표지

74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1983.10
제75호(10월호) 표지

75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1983.7.25
제76호(7.25월호) 표지

76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1983.1
제77호(1월호) 표지

77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1983.8
제78호(8월호) 표지

78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1983.10
제79호(10월호) 표지

79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1983.8
제80호(8월호) 표지

80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1983.11
제81호(11월호) 표지

81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1983.10
제82호(10월호) 표지

82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1983.12
제83호(12월호) 표지

83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1983.10
제84호(10월호) 표지

84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1983.11
제85호(11월호) 표지

85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은 정말 아름답다.

1983.10
제86호(10월호) 표지

86

57 겨울 묵상 (컬러)



겨울 묵상 -최용우 계절 묵상1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1.12.27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218쪽 옆구리/10.8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3,900원

ISBN: 978-89-24-

〈책소개〉 일상 사진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리얼리티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중학생 때부터 야시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가 달린 핸드폰이 나오면서부터 저의 핸드폰 선택 기준은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 였습니다.

PC컴퓨터가 대중화되면서 컴퓨터를 켤 때마다 바탕화면에 성경구절이 들어간 사진이 자동으로 뜨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Jesus365' 라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누구든지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기만 하면 매일 아침 7시에 자동으로 컴퓨터 바탕화면이 바뀌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직접 찍어서 포토샵 작업으로 성경구절을 일일이 넣어서 제공하였습니다. 윈도우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어 'Jesus365' 프로그램이 무력화되어버릴 때까지 10년 넘게 수십만독자의 컴퓨터 바탕화면을 제가 찍은 사진으로 매일 바꾸어 준 것입니다.

이제 'Jesus365' 사역을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찍은 사진 중에 800장을 골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묶어 보았습니다.

저의 사진은 평범한 일상에서 찍은 자연스런 사진이 많습니다. 파인더를 들여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만든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진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리얼리티 세상을 시인의 마음으로 묵상하였습니다.

〈겨울 묵상〉은 12월, 1월, 2월 사진을 모았습니다.



일상의 리얼리티 -서문을 대신하여 -최용우

거창하고 요란한 사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실은 평범한 일상에 숨어있습니다. 저 바닥에 떨어진 동백, 거미가 쳐 놓은 거미줄, 보도블럭 사이의 민들레꽃, 무심코 핀 호박꽃 한 송이를 가만히 들여다 보아도 저 속에 하늘의 신비한 비밀이 숨어있는 것을 단번에 발견 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고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매일 만나고 보는 평범한 일상이며, 다른 하나는 그 일상을 사고(思考)하는 나입니다. 숲속을 걸어가는 시인, 고고학자, 나무꾼은 완전 다른 세 가지의 세계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서도 만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리얼리티 -추천사를 대신하여 정용섭 (대구성서아카데미 원장)

저는 마당이 있는 시골 단독 주택에 살기에 거미줄을 자주 봅니다. 거미는 처마밑이나 나무 사이, 또는 창문에 걸쳐서 거미줄을 칩니다. 그들의 거미줄 짓기 신공을 보노라면 저의 영혼 깊은 곳에서 어떤 전율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쳐놓은 거미줄은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햇살의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습도에 따라서 미묘하게 다른 형태로 변합니다. 그런 미세한 차이를 실제로 느껴보셨는지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평범한 일상과 풍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경험하셨는지요? 저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 능력은 곧 하나님의 현실(reality of God)입니다. 그 하나님의 현실은 “생명의 리얼리티”(reality of life)입니다.

이주 세심하면서도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나무에 관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헤르만 헷세에게서 보듯이 (『헤르만 헷세의 나무들』 참조) 일상의 여러 순간에 마주친 생명의 소소한 리얼리티를 구도적인 태도로 사진과 묵상글로 묶어낸 이가 바로 최용우 님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차〉

- 1부 향아리
- 2부 연탄
- 3부 동백꽃
- 4부 차돌



⑮ 맛있는주보+파일 (주보1컬러)



맛있는 주보+파일 (주보자료1권)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2.1.5. (재판)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220쪽 옆구리 두께 /10.9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4,000원

ISBN: 978-89-24-09068-0

〈책소개〉 매주 주보 만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절대 빈곤의 시대에는 양을 많이 주는 식당이 좋은 식당이었다면, 먹는 문제가 해결된 지금은 맛있는 식당을 좋은 식당이라 하며 거리불문하고 찾아잡니다. 교회 주보도 맛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를 가장 잘 알수있는 방법은 그 교회의 주보를 보면 됩니다. 주보에는 그 교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목표는 무엇이며, 목회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성도들의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는 그 교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주보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주보를 잘 만들어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게 읽을 수 있는 주보를 만들도록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아예 주보의 한 면을 편집하여 파일로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맛있는 주보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주보’ 주보를 안 만들 수도 없고.. 기존의 주보가 예배순서와 예배시간 안내와 광고, 헌금자 명단밖에 없어서 썰렁하지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요약이나 칼럼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매주 그 짧은 글 하나 쓰려고 해도 하루 종일 끙끙거리게 됩니다. 그렇게 애를 써서 만들어 놓은 주보가 주일예배를 마치고 나면 버려져 수북히 쌓이는 것을 보면 속상하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 버리는 주보가 아닌, 보고 나서 모아두고 싶을 만큼 내용이 알차고 보기 좋고 영양가 만점인 맛있는 주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보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맛있는주보 소개〉

매주 주보 만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주보를 안 만들 수도 없고.. 기존의 주보가 예배순서와 예배시간 안내와 광고, 헌금자 명단밖에 없어서 썰렁하지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요약이나 칼럼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매주 그 짧은 글 하나 쓰려고 해도 하루종일 끙끙거리게 됩니다. 그렇게 애를 써서 만들어 놓은 주보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버려져 수북히 쌓이는 것을 보면 속상하지요? 그래서 제가 한 번보고 버리는 주보가 아닌, 보고 나서 모아두고 싶을 만큼 내용이 알차고 보기 좋고 영양가 만점인 맛있는 주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주보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쪽. 예수칼럼 -김준곤, 김남준, 엄두섭, 최용우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예수칼럼은 선지자적 영감과 시적 감성으로 쓰여진 잠언록이며,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새벽 나팔소리입니다.

1쪽. 햇별같은이야기 -최용우

밝고 긍정적이며 읽으면 빙그레 웃음 지어지는 따뜻한 글.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쓴 글. 기독교 주간 신문에 10년 동안 연재, 극동방송을 통해 수년 동안 방송되었던 재미있고 익살맞으며 감동적인 최용우의 글.

2쪽. 행복한 기도시간 -최용우

기도 시간은 견뎌내야 하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가슴 설레이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행복한 기도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는 실제적이고 재미있는 기도 칼럼.

2쪽. 예화

예수님도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예화)로 말씀하셨습니다. 감동적이고 교훈적이면서 신선하고 새로운 기독교 예화를 엄선하여 한편씩 실었습니다.

3쪽. 칼럼 -최용우, 이정수, 기타

샘물칼럼11, 기독교교전-그리스도를 본받아12, 절기자료, 기타

4쪽. 웅달샘 -최용우

기독교 신앙의 핵심주제(키워드) 100가지를 선정하여 각각 주제별로 이해하기 쉽고 보기 좋게 14줄로 요약하고 관련 성경구절을 일일이 찾아서 붙였습니다.

4쪽. 십계명 -최용우 외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달려가면서도 쉽게 읽고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십계명을 간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짙막한 인생의 십계명들을 정리했습니다.*

책 안에 '맛있는 주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멋있는주보+파일 (주보2컬러)



멋있는 주보+파일 (주보자료2권)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2.1.12. (재판)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220쪽 옆구리 두께 /10.9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4,000원

ISBN: 978-89-24-09107-6

〈책소개〉 멋있는 주보를 받으세요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주보를 만들어오는 전통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해오던 습관대로 변함없이 늘 똑같은 주보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처럼 교회 주보도 좀 멋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가장 잘 알수 있는 방법은 그 교회의 주보를 보면 됩니다. 주보에는 그 교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목표는 무엇이며, 목회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성도들의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는 그 교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주보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주보를 잘 만들어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멋있는 주보를 만들도록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아예 주보의 한 면을 편집하여 파일로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멋있는 주보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멋있는 주보〉 주보는 교회의 얼굴이요 이미지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주보나 회보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보는 데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지요 주보는 문화의 거울이요 그릇입니다. 잘 만들어진 한 장의 주보는 말없이 그 교회를 멋지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그저 예배순서나 구역보고, 헌금자 명단 같은 천편일률적인 내용으로 꾸미고 있어서 성도들이 주보에 애착을 가질만한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보의 단점을 보강하고 주보의 내용을 풍성하게 꾸밀 수 있는 멋진 주보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멋있는 후보 소개〉

후보는 교회의 얼굴이요 이미지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후보나 회보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보는 데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지요. 후보는 문화의 거울이요 그릇입니다. 잘 만들어진 한 장의 후보는 말없이 그 교회를 멋지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그저 예배순서나 구역보고, 헌금자 명단 같은 천편일률적인 내용으로 꾸미고 있어서 성도들이 후보에 애착을 가질만한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후보의 단점을 보강하고 후보의 내용을 풍성하게 꾸밀 수 있는 멋진 후보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1쪽. 예수칼럼 -김준곤, 김남준, 엄두섭, 최용우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예수칼럼은 선지자적 영감과 시적 감성으로 쓰여진 잠언록이며,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새벽 나팔소리입니다.

1쪽. 햇별같은이야기 -최용우

밝고 긍정적이며 읽으면 빙그레 웃음 지어지는 따뜻한 글.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쓴 글. 기독교 주간 신문에 10년 동안 연재, 극동방송을 통해 수년 동안 방송되었던 재미있고 익살맞으며 감동적인 최용우의 글.

2쪽. 주님과 만남 -최용우

문제는 주님과와의 만남입니다. 주님과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쉽게 만나는 100가지 방법을 매주 한가지씩 알려드립니다.

2쪽. 예화

예수님도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예화)로 말씀하셨습니다. 감동적이고 교훈적이면서 신선하고 새로운 기독교 예화를 엄선하여 한편씩 실었습니다.

3쪽. 칼럼 -최용우, 이정수, 기타

샘물칼럼4, 가정칼럼4, 기독교예절6, 기독교고전12, 절기자료, 기타

4쪽. 웅달샘 -최용우

기독교 신앙의 핵심주제(키워드) 100가지를 선정하여 각각 주제별로 이해하기 쉽고 보기 좋게 14줄로 요약하고 관련 성경구절을 일일이 찾아서 붙였습니다.

4쪽. 십계명 -최용우 외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달려가면서도 쉽게 읽고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열 가지 계명을 간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

책 안에 '멋있는 후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폼나는주보+파일 (주보3컬러)



폼나는 주보+파일 (주보자료3권)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2.1.19. (재판)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220쪽 옆구리 두께 /10.9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4,000원

ISBN: 978-89-24-09140-3

〈책소개〉 정말 폼나는 주보입니다

절대 빈곤의 시대에는 양을 많이 주는 식당이 좋은 식당이었다면, 먹는 문제가 해결된 지금은 맛있는 식당을 좋은 식당이라 하며 거리불문하고 찾아갑니다. 교회 주보도 폼이 나야 됩니다. 어떤 교회를 가장 잘 알수있는 방법은 그 교회의 주보를 보면 됩니다. 주보에는 그 교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목표는 무엇이며, 목회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성도들의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는 그 교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주보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주보를 잘 만들어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폼이 나게 읽을 수 있는 주보를 만들도록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아예 주보의 한 면을 편집하여 파일로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폼이 나는 주보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폼나는 주보〉 성도들이 주보를 외면하는 이유는 주보에 별로 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순서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볼 일이 없고, 헌금자 명단은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나면 끝이고, 광고는 광고 시간에 인도자가 말로 다 해주니 일부러 안 봐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주보에 매주 신선하고 알찬 내용의 글이 있다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보를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디자인은 시각적인 효과를 뇌에 각인시키지만, 글은 지성을 자극하고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보는 것보다 읽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폼나는 주보〉는 보여주는 디자인의 요소보다 어떤 내용을 읽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근사하고 폼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폼나는 후보 소개〉

성도들이 후보를 외면하는 이유는 후보에 별로 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순서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불일이 없고, 헌금자 명단은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 나면 끝이고, 광고는 광고시간에 인도자가 말로 다 해주니 일부러 안 봐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후보에 매주 신선하고 알찬 내용의 글이 있다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후보를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디자인은 시각적인 효과를 뇌에 각인시키지만, 글은 지성을 자극하고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보는 것보다 읽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폼나는 후보는 보여주는 디자인의 요소보다 어떤 내용을 읽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근사하고 폼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 예수칼럼 -김준곤, 김남준, 엄두섭, 최용우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예수칼럼은 선지자적 영감과 시적 감성으로 쓰여진 잠언록이며,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새벽 나팔소리입니다.

2. 햇별같은이야기 -최용우

밝고 긍정적이며 읽으면 빙그레 웃음 지어지는 따뜻한 글.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쓴 글. 기독교 주간 신문에 10년 동안 연재, 극동방송을 통해 수년 동안 방송되었던 재미있고 익살맞으며 감동적인 최용우의 글.

2. 행복한기도시간 -최용우

기도시간은 견뎌야 하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가슴 설레이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행복한 기도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는 실제적이고 재미있는 기도칼럼.

2. 예화

예수님도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예화)로 말씀하셨습니다. 감동적이고 교훈적이면서 신선하고 새로운 기독교 예화를 엄선하여 한편씩 실었습니다.

3. 칼럼 -최용우, 이정수, 이한규 기타

셋별칼럼9, 샘물칼럼7, 기독교고전12, 가정칼럼4, 절기자료, 기타

4. 아하, 그렇구나 -최용우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것은 왜 이럴까? 저것은 왜 저럴까? 궁금했던 내용들을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속 시원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성도님들과 신앙 상담 했던 내용 중에서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도 추려서 실었습니다.

4. 십계명-최용우 외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달려가면서도 쉽게 읽고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열 가지 계명을 간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짙막한 인생의 십계명들을 정리했습니다.*

책 안에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탐나는주보+파일 (주보4컬러)



탐나는 주보+파일 (주보자료4권)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2022.1.28.(재판)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페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220 쪽옆구리 두께 /10.9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4,000원

ISBN: 978-89-24-09186-1

〈책소개〉 정말 탐을 낼 만한 주보입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이며 하나님은 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성경책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구원의 도리가 명확하게 명시된 성경책이 없었다면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기독교 진리는 소멸되었거나 변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뿐 아니라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하나님을 체험한 내용들을 책으로 남겨 놓습니다.

또한 교회마다 '주보'를 발행합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어떤식으로든 주보를 발행 하는데, 이는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렇다면 이왕에 만들 주보라면 누구나 탐낼 그런 멋진 주보를 만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탐나는주보가 멋진 주보를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편집했습니다.

〈탐나는 주보〉는 ①성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 불을 지르는 예수칼럼! ②포근하고 따뜻하게 심령가운데 저절로 녹아드는 햇볕같은이야기 ③기독교는 만남의 종교 - 주님과 만나는 100가지 방법 ④공감률 100%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감동적인 예화, 칼럼 ⑤매월 한 권씩 소개하는 불후의 명작 -기독교 고전 소개 ⑥기독교 절기에 맞추어 짙막하게 절기의 의미와 유래를 소개 ⑦우리나라 최고의 기독교 칼럼니스트 이한규. 이정수목사님 칼럼 ⑧성경 66권을 매주 한 권씩 재미있게 인터뷰 ⑨그대로 적어서 책상머리에 붙여놓을 수 있는 십계명 씨리이즈 -이러한 내용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정말 탐나지 않으세요?

〈탐나는 후보 소개〉

〈탐나는후보〉는 ①성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 불을 지르는 예수칼럼! ②포근하고 따뜻하게 심령가운데 저절로 녹아드는 햇별같은이야기 ③기독교는 만남의 종교 - 주님과 만나는 100가지 방법 ④공감률 100%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감동적인 예화, 칼럼 ⑤매월 한 권씩 소개하는 불후의 명작 -기독교교전 소개 ⑥기독교 절기에 맞추어 짙막하게 절기의 의미와 유래를 소개 ⑦우리나라 최고의 기독교 칼럼니스트 이한규. 이정수목사님 칼럼 ⑧성경 66권을 매주 한 권씩 재미있게 인터뷰 ⑨그대로 적어서 책상머리에 붙여놓을 수 있는 십계명 씨리리즈 - 이러한 내용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정말 탐나지 않으세요?

1. 예수칼럼 -김준곤, 김남준, 최용우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예수칼럼은 선지자적 영감과 시적 감성으로 쓰여진 잠언록이며,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새벽 나팔소리입니다.

2. 햇별같은이야기 -최용우

밝고 긍정적이며 읽으면 빙그레 웃음 지어지는 따뜻한 글.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쓴 글. 기독교 주간 신문에 10년 동안 연재, 극동방송을 통해 수년 동안 방송되었던 재미있고 익살맞으며 감동적인 최용우의 글.

2. 주님과만남 - 최용우

문제는 주님과와의 만남입니다. 주님과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쉽게 만나는 100가지 방법을 매주 한가지씩 알려드립니다.

2. 예화

예수님도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예화)로 말씀하셨습니다. 감동적이고 교훈적이면서 신선하고 새로운 기독교 예화를 엄선하여 한편씩 실었습니다.

3. 칼럼 -최용우, 이정수, 이한규 기타

햇별칼럼12, 샘물칼럼8, 기독교교전읽기12, 절기자료, 기타

4. 성경인터뷰 -최용우

성경 66권을 매주 한 권씩 인터뷰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육히원칙에 맞추어 기사를 작성하듯이 글을 썼습니다. 읽기만 해도 성경이 파악됩니다.

4. 십계명-최용우 외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달려가면서도 쉽게 읽고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열 가지 계명을 간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짙막한 인생의 십계명들을 정리했습니다.*

책 안에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양육주보+파일 (주보5컬러)



양육 주보+파일 (주보자료5권)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2.2.10.(재판)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220 쪽옆구리 두께 /10.9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4,000원

ISBN: 978-89-24-09249-3

〈책소개〉 교인들을 성도로 양육하는 주보입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이며 하나님은 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성경책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구원의 도리가 명확하게 명시된 성경책이 없었다면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기독교 진리는 소멸되었거나 변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하나님을 체험한 내용들을 책으로 남겨 놓습니다.

또한 교회마다 '주보'를 발행합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어떤식으로든 주보를 발행 하는데, 이는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렇다면 이왕에 만들 주보라면 누구나 탐낼 그런 멋진 주보를 만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 주보가 멋진 주보를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편집했습니다.

〈양육 주보〉는 주보의 내용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여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한다.”는 주제에 맞추어 글의 수준을 확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주일예배를 드려주는 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게으른’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하나 없는 쪽정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세계는 그 깊이가 이 세상에서는 견줄 것이 없는 무한 광대한 세상임에도 몇 년 교회 다닌 것으로 이미 다 알아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인들이 읽어야 될 화끈한 내용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양육 후보 소개〉

〈양육후보〉는 후보의 내용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여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한다.”는 주제에 맞추어 글의 수준을 확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주일예배를 드려 주는 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게으른’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 하나 없는 쪽정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세계는 그 깊이가 이 세상에서는 견줄 것이 없는 무한 광대한 세상임에도 몇 년 교회 다닌 것으로 이미 다 알아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인들이 읽어야 될 화끈한 내용으로 편집하였습니다.

1. 예수칼럼 -김준곤, 김남준, 최용우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예수칼럼은 선지자적 영감과 시적 감성으로 쓰여 진 잠언록이며,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새벽 나팔소리입니다.

2. 햇별같은이야기 -최용우

밝고 긍정적이며 읽으면 빙그레 웃음 지어지는 따뜻한 글.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쓴 글. 기독교 주간 신문에 10년 동안 연재, 극동방송을 통해 수년 동안 방송되었던 재미있고 익살맞으며 감동적인 최용우의 글.

2. 깊은기도 -최용우

깊은 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영적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깊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기도회 때 전했던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것만 골라 짤막하게 요약했습니다.

2. 예화

예수님도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예화)로 말씀하셨습니다. 감동적이고 교훈적이면서 신선하고 새로운 기독교 예화를 엄선하여 한편씩 실었습니다.

3. 칼럼 -최용우, 이정수, 이한규 기타

새별칼럼12, 샘물칼럼12, 하나님의 이름11, 절기자료, 기타

4. 아하, 그렇구나 -최용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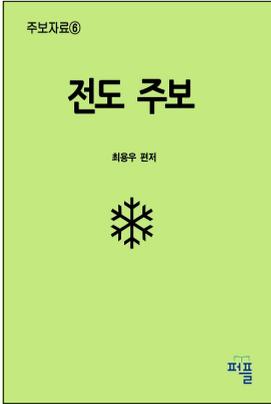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것은 왜 이럴까? 저것은 왜 저럴까? 궁금했던 내용들을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속시원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성도님들과 신앙상담 했던 내용 중에서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도 추려서 실었습니다.

4. 십계명-최용우 외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달려가면서도 쉽게 읽고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열 가지 계명을 간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짤막한 인생의 십계명들을 정리했습니다.*

책 안에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전도주보+파일 (주보6컬러)



전도 주보+파일 (주보자료6권)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2022.2.20.(재판)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220 쪽옆구리 두께 /10.9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4,000원

ISBN: 978-89-24-09278-3

〈책소개〉 무조건 전도하재! 죽기살기로 전도하재!

주일예배를 마치고 그대로 버려진 주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보를 잘 만들면 버리지 않을텐데...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주보,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주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6년전 처음 만든 주보가 ‘전도 주보’였습니다.

주보를 한번만 보고 버리기에는 주보 만드느라 들어간 비용과 시간과 정성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주보를 전도지처럼 만들어 교회에서 사용한 다음 집에 가면서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5년이 지나다 보니 첫째 뒤통도 모르고 만들었던 전도 주보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전도 주보’를 새롭게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전도하재! 죽기살기로 전도하재! 남을 살려야 내가 산대!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겠는데, 사실 적당한 전도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진 전도지는 불신자들에게 외면 반기에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주보는 일부러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보편적이고 쉬운 문장을 사용하였습니다. 복음은 선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확 드러내버렸고, 더불어 불신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감성적인 글을 4편씩 담았습니다. 전도주보를 통해 대대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새신자가 넘쳐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요동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 후보 소개〉

무조건 전도하자! 죽기살기로 전도하자! 남을 살려야 내가 산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겠는데, 사실 적당한 전도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진 전도지는 불신자들에게 외면 받기에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후보〉의 내용을 일부러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보편적이고 쉬운 문장을 사용하였습니다. 복음은 선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확 드러내버렸고, 더불어 불신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감성적인 글을 담았습니다.

1. 전도편지 -전도닷컴(<http://jeondo.com>)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사진 1장과 함께 감성적인 전도문구를 담았고, 전도지를 받았을 때 첫 문구인 ‘예수 믿으세요’ 타이틀이 눈에 그냥 확 꽂히게 편집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뚜렷한 고덕체 타이틀은 인간의 망막에 강하게 새겨져 잠재의식 속에 잠재될 것입니다. 전도지를 건네주었을 때 받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타이틀만 눈으로 보아도 일단 성공입니다.

2. 십자가목상 -최용우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고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자 진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그 어떤 것도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2. 햇별같은이야기 -최용우

밝고 긍정적이며 읽으면 빙그레 웃음 지어지는 따뜻한 글.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쓴 글. 기독교 주간 신문에 10년 동안 연재, 극동방송을 통해 수년 동안 방송되었던 재미있고 익살맞으며 감동적인 최용우의 글.

3. 전도지 - 최용우 외

매주 다른 내용의 전도지가 1년 52주 동안 나갑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후보를 매주 꾸준히 전해주기만 해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복음의 내용을 읽게 됩니다.

4. 창조의 세계 -최용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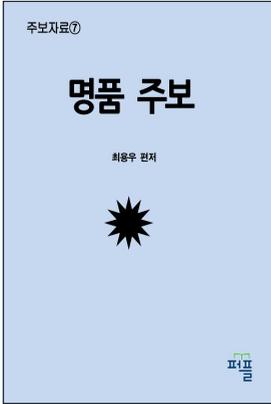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의 신비하고 신기한 여러가지 현상들과 동식물들의 이야기를 짚막하게 전해줍니다. 읽다보면 너무 재미있어서 저절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됩니다. 비신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4. 십계명-최용우 외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달려가면서도 쉽게 읽고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열 가지 계명을 간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짚막한 인생의 십계명들을 정리했습니다.*

책 안에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명품주보+파일 (주보7컬러)



명품 주보+파일 (주보자료7권)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2.2.24. (재판)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220 쪽옆구리 두께 /10.9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4,000원

ISBN: 978-89-24-09311-7

〈책소개〉 명품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주는 주보

오랫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에게서는 아름답고 부드러우며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향기가 납니다. 따뜻하고 자유로우며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이 느껴집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포근해지고 행복해지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안될 것 같은 위엄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막힘이 없고 자연스러우며 개구쟁이 같은 천진난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입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사랑, 그 밝은 빛이 내 안에 가득 충만하게 차 오르면 우리는 다만 그분 안에서 조용히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은 나이가 들면 정금같이 빛나는 '명품신앙'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명품주보는 '명품신앙'이라는 주제로 편집했습니다.

아마추어는 단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프로는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마추어에게는 변명이 허용되지만 프로에게는 변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 프로의 세계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훈련의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봉사과 섬김의 일이든 맘먹는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달란트)위에 끊임없는 자기훈련과 노력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변명만 늘어놓는 아마추어 신앙이 아니라 명품을 만들어 내는 프로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명품주보〉는 하나님 앞에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한편 한편의 글을 읽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다보면 명품인생, 명품 신앙인이 되어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명품 후보 소개〉

아마추어는 단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프로는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마추어에게는 변명이 허용되지만 프로에게는 변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 프로의 세계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훈련의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봉사와 섬김의 일이든 맘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달란트)위에 끊임없는 자기훈련과 노력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변명만 늘어놓는 아마추어신앙이 아니라 명품을 만들어 내는 프로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명품후보〉는 하나님 앞에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한 편 한 편의 글을 읽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다보면 명품인생, 명품 신앙인이 되어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1. 내영혼이주를찬양 -최용우

우리 안에서 주님을 인식하는 곳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깨어나면 신앙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영혼을 깨우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는 실제적인 기도詩. 그냥 읽기만 해도 주님이 바로 옆에서 들으시는 것 같은 기도詩를 성화(聖畵)와 함께 첫 면에 실었습니다.

2. 십자가묵상 -최용우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고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자 진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그 어떤 것도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2. 햇별같은이야기 -최용우

밝고 긍정적이며 읽으면 빙그레 웃음 지어지는 따뜻한 글. 철저히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쓴 글. 기독교 주간 신문에 10년 동안 연재, 극동방송을 통해 매일 한편씩 수년 동안 방송되었던 재미있고 감동적인 글.

3. 칼럼 -최용우. 이정수. 이한규 기타

깊은신앙 14편. 샘물칼럼11편. 샹별칼럼11편. 절기자료

4. 명품신앙 -최용우

명품 신앙으로 명품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52가지 거룩한 영적습관을 각각 원고지 3장 분량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십계명 -최용우 외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달려가면서도 쉽게 읽고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열 가지 계명을 간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지침이 될 만한 십계명들을 매주 한편씩 전해드립니다. *

책 안에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좋은주보+파일 (주보8컬러)



좋은 주보+파일 (주보자료8권)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2.2.28.(재판)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220 쪽옆구리 두께 /10.9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4,000원

ISBN: 978-89-24-09357-5

〈책소개〉 매주 주보 만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는 사회의 지탄받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한사람 한사람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크게 화려하거나 드러나지는 않지만 조용하고 묵묵히 신앙의 본질과 본분을 다 하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주보자료〉는 교회의 주보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보 사이에 끼워 넣어 주보를 풍성하게 해주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4면 주보를 만들고 있다면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 주보의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알차고 유익한 내용을 담은 4면을 더하여 8면으로 만들어 주는 자료입니다.

2.본 주보자료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A4용지를 반으로 접은 형태의 주보에 맞추어 만들었습니다. 한번 접는 2단 주보를 만드는 교회에서는 그냥 가운데 끼우시면 되고, 두 번 접는 3단 주보를 만드는 교회는 한면은 교회에서 사용하고 한 면은 주보자료의 내용을 붙여넣기하여 사용하세요.

3.주보파일을 연 다음에 교회 이름이나 적당한 타이틀이나 뭐든 자기교회 것으로 바꾸시고, 주보의 다른 부분도 필요하면 바꾸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보를 복사하거나 집에서 프린트로 뽑는 소규모 작은교회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칼라프린터로 뽑으면 폼 나도록 칼라 그림을 한 컷씩 넣었습니다.

4.자료의 글꼴은 한글 기본글꼴만 사용하였습니다. 각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보기좋은 글꼴을 이용하여 취향대로 바꾸시고, 주보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서 소속 교단의 교리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오타는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좋은 후보 소개〉

우리는 사회의 지탄받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한사람 한사람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크게 화려하거나 드러나지는 않지만 조용하고 묵묵히 신앙의 본질과 본분을 다 하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좋은후보〉는 좋은 신앙인이 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고 도전을 주는 좋은 영성의 글들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한 주일에 6편 52주 300편의 주옥같은 글들을 매주 꾸준히 읽다보면 가랑비에 옷이 적시듯 그렇게 좋은 신앙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좋은후보〉로 좋은 후보를 만들고 좋은 기독교인이 되어 보세요.

1. 내영혼이주를찬양 -최용우

우리 안에서 주님을 인식하는 곳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깨어나면 신앙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영혼을 깨우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는 실제적인 기도詩. 그냥 읽기만 해도 주님이 바로 옆에서 들으시는 것 같은 기도詩를 성화(聖畫)와 함께 첫 면에 실었습니다.

2. 깊은기도 -최용우

깊은 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영적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깊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매일아침기도회 때 전했던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것만 골라 짤막하게 요약했습니다.

2. 햇별같은이야기 -최용우

밝고 긍정적이며 읽으면 빙그레 웃음 지어지는 따뜻한 글.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쓴 글. 기독교 주간 신문에 10년 동안 연재, 극동방송을 통해 매일 한편씩 수년 동안 방송되었던 재미있고 감동적인 글.

3. 칼럼 -최용우, 이정수, 이한규 기타

좋은신앙글 12편. 샘물칼럼12편. 샹별칼럼12편. 절기자료

4. 좋은신앙 -최용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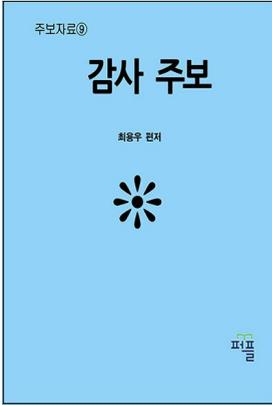
좋은신앙으로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52가지 거룩한 영적 조언을 각각 원고지 3장 분량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십계명 -최용우 외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달려가면서도 쉽게 읽고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열 가지 계명을 간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지침이 될 만한 십계명들을 매주 한편씩 전해드립니다. *

책 안에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감사주보+파일 (주보9컬러)



감사 주보+파일 (주보자료9권)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2022.3.7 (재판)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220 쪽옆구리 두께 /10.9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4,000원

ISBN: 978-89-24-09369-8

〈책소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는 주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8)하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인데 ①기쁨 ②기도 ③감사입니다. 저는 이중에 ③감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①기쁨 ②기도는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 깊이 묵상하다가 이번 주보의 주제를 ‘감사’로 정했습니다. 감사주보를 사용하는 교회마다 감사의 쓰나미가 몰려와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즐겁고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고후5:17)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 표현이 ‘감사’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감사입니다.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과 비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하게 됩니다. 〈감사주보〉는 1년 동안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귀에 감사가 박히도록 반복합니다.

책 안에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감사 후보 소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즐겁고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고후5:17)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 표현이 ‘감사’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감사입니다.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과 비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하게 됩니다. 〈감사주보〉는 1년 동안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귀에 감사가 박히도록 반복합니다.

1. 내영혼이주를찬양 -최용우

우리 안에서 주님을 인식하는 곳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깨어나면 신앙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영혼을 깨우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는 실제적인 기도詩. 그냥 읽기만 해도 주님이 바로 옆에서 들으시는 것 같은 기도詩를 첫 면에 실었습니다.

2. 일본기도 -최용우

1분 동안 순식간에 읽을 수 있도록 한 짧은 호흡의 기도문입니다. 반드시 소리를 내서 읽어야 합니다. 소리는 관념이 실체가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화살기도라고도 하는 이런 발성기도는 악한 영의 진지를 초토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3. 햇별같은이야기 -최용우

밝고 긍정적이며 읽으면 빙그레 웃음 지어지는 따뜻한 글.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쓴 글. 기독교 주간 신문에 10년 동안 연재, 극동방송을 통해 매일 한편씩 수년 동안 방송되었던 재미있고 감동적인 글.

4. 칼럼 -최용우, 이정수, 이한규 기타

감사의 글 15편, 샘물칼럼12편, 셋별칼럼12편, 절기자료

5. 범사감사-감사예화를 짧게 각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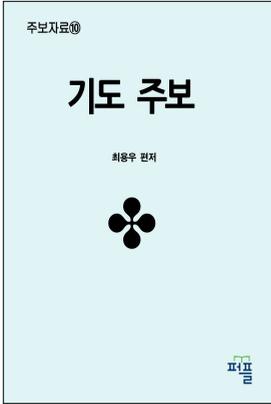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실화 중심의 짧은 간증 이야기를 통해 울고 웃고 감동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6. 십계명 -최용우 외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달려가면서도 쉽게 읽고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열 가지 계명을 간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지침이 될 만한 십계명들을 매주 한편씩 전해드립니다. *

책 안에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기도주보+파일 (주보10)



기도 주보+파일 (주보자료10권)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2022.3.16 (재판)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220 쪽옆구리 두께 /10.9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4,000원

ISBN: 978-89-24-09411-4

〈책소개〉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는 주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8)하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인데 ①기쁨 ②기도 ③감사입니다.

지난해 〈감사주보〉를 만들었고 올해 주보는〈기도주보〉입니다. 기도와 감사는 서로 떼 수 없는 마치 부부 같은 짝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도가 식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주보는 일년 내내 ‘기도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합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기도의 불이 붙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를 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의 쇠락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분석되고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기도’가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려면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주보는 한국교회에 다시한번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동기부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현금’으로 주시지 않고 ‘기도’라는 수표로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백지수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쓰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후보 소개〉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를 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의 쇠락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분석되고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기도’가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려면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주보는 한국교회에 다시한번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동기부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현금’으로 주시지 않고 ‘기도’라는 수표로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백지수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쓰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 유명한 기도詩 -최용우

거목 사이를 걷다보니 어느새 거목이 되어 있더라는 어느 유명한 시의 한 구절처럼,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눈물로 고백한 기도 詩의 숲을 거닐다 보면, 어느새 그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읽기만 해도 주님이 바로 옆에서 들으시는 것 같은 기독교 유명 인물들의 名詩를 첫 면에 실었습니다.

2. 일본기도 -최용우

1분 동안 순식간에 읽을 수 있도록 한 짧은 호흡의 기도문입니다. 반드시 소리를 내서 읽어야 합니다. 소리는 관념이 실체가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화살기도라고도 하는 이런 발성기도는 악한 영의 진지를 초토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3. 햇별같은이야기 -최용우

밝고 긍정적이며 읽으면 빙그레 웃음 지어지는 따뜻한 글. 철저히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쓴 글. 기독교 주간 신문에 10년 동안 연재, 극동방송을 통해 매일 한편씩 수년 동안 방송되었던 재미있고 익살맞고 감동적인 글.

4. 기도 칼럼 -최용우, 이정수, 이한규 기타

깊은 기도의 세계에 대한 글, 샘물칼럼, 셋별칼럼, 절기자료

5. 향상기도-기도예화를 짧게 각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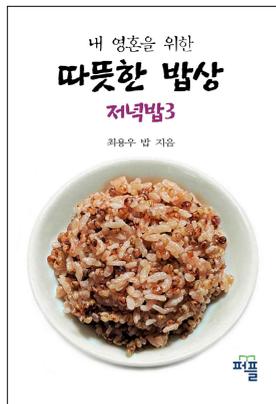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실화 중심의 짧은 간증 이야기를 통해 울고 웃고 감동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6. 기도 십계명 -최용우 외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달려가면서도 쉽게 읽고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계명을 간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십계명들을 매주 한편씩 전해드립니다. *

책 안에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58 따뜻한 밥상7 (행-계)



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저녁밥3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2.5.27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398쪽 옆구리/18.9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7,000원

ISBN: 978-89-24-09631-6

<책소개>

<성경 해석은 신학자들이 할 일이고 나는 다만 성경을 먹어야겠습니다. 이 책은 성경을 해석한 책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읽다 보면 영혼이 배가 불러지는 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입니다. 조미료(신학적 교리적 해석) 치지 않고 성경을 날 것 그대로 '아멘'으로 요리하였습니다. 밥은 스스로 떠먹는 것이고 나는 다만 밥상을 차릴 뿐입니다.>

가르침이 적혀 있는 이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끊임없이 외워라. 그 가르침을 놓고 낮이든 밤이든 늘 명상하여라. 가르침을 끊임없이 곱씹어 보아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네 앞길이 평탄하리라.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안 되는 일이 없으리라.(현대 여성경 여호수아1:8)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시1:2)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정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복이 오는 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돈을 왕창 버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인한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값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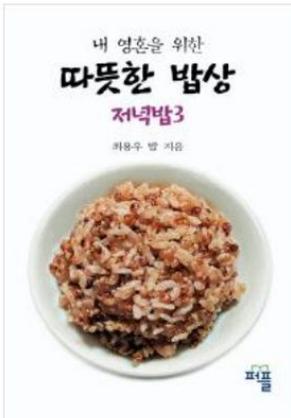
그렇게 뜨개질을 하듯 한 땀 한 땀 묵상한 말씀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제가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말씀한 절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참으로 그윽하고 향기롭습니다. 날마다 이런 복된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목차〉

- 1월 사도행전 1장 -14장
- 2월 사도행전 15장 -28장
- 3월 로마서 1장 -16장
- 4월 고린도전서 1장 -14장
- 5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후서 13장
- 6월 갈라디아서 1장 -에베소서 6장
- 7월 빌립보서 1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
- 8월 디모데전서 1장 -빌레몬서 1장
- 9월 히브리서 1장 -13장
- 10월 야고보서 1장 -베드로후서 3장
- 11월 요한일서 1장 -요한계시록 6장
- 12월 요한계시록 7장 -22장

〈따뜻한 밥상〉 시리즈는 총 7권입니다.

- 제1권 아침밥1 - 창세기1장 - 역대상11장 까지 400쪽 14300원
- 제2권 아침밥2 - 역대상12장 - 말라기(시편 잠언 전도서 제외) 398쪽 17300원
- 제3권 점심밥1 - 시편 전체 402쪽 14400원
- 제4권 점심밥2 - 잠언 전도서 398쪽 14300원
- 제5권 저녁밥1 - 마태복음 - 마가복음 400쪽 14300원
- 제6권 저녁밥2 - 누가복음 - 요한복음 398쪽 17300원
- 제7권 저녁밥3 - 사도행전-요한계시록 398쪽 17000원



POD

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저녁밥3

최용우 지음 | 퍼플 | 2022년 05월 27일 출간

정가 : 1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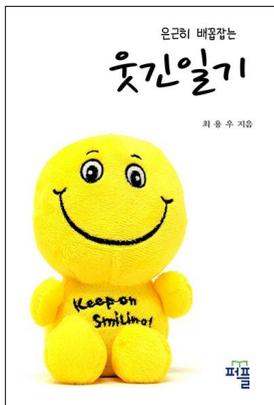
판매가 : **17,000원** [0%↓ 0원 할인]

통합포인트 : [기본적립] 510원 적립 [3% 적립] 안내

성경해석은 신학자들이 할 일이고 나는 다만 성경을 먹어야겠습니다. 이 책은 성경을 해석한 책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읽다보면 영혼이 배가불러지는 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입니다.

조미료(신학적, 교리적 해석)치지 않고 성경을 날것 그대로 '아면'으로 요리하였습니다. 밥은 스스로 떠 먹는 것이고 저는 다만 밥상을 차렸을 뿐입니다.

59 웃긴일기 (일기13컬러)



웃긴일기-온근히 배꼽잡는(일기13)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2022.6.29.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396쪽 옆구리/18.8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23,800원

ISBN: 978-89-24-09754-2

<책소개>

코로나(Corona)는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는 사람의 몸을 거대한 축구장이고 한다면 그 운동장 한가운데 사과 한 개를 떨어뜨려 놓은 정도로 작은 세균입니다. 그 작은 세균이 지구를 마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으스스대던 인간들의 처지가 참 웃긴 세상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주일성수'를 완전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가톨릭이나 이슬람도 수백만명씩 모이던 바티칸이나 메카의 성지순례를 완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절들도 산문을 닫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신(神)들도 코로나는 무서운 것 아닐까요? 생각해 보면 참 웃긴 세상입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인간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쏟아서 지구상에 있는 천문학적인 돈을 다 끌어 담고 있습니다. 인간 위에 코로나, 코로나 위에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참 웃긴 세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한해를 그래도 허허실실 웃으면서 코로나 안 걸리고 잘 살았네요. 그 생생한 현장의 기록들을 또 한권의 책으로 엮어냅니다.

<목차>

1월 웃긴 세상

2월 골목 길

3월 봄비

4월 벚꽃엔딩4

5월 권총과 장총

6월 싸움닭

60 들꽃편지3권



들꽃편지 제3권 -산부추꽃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2.8.30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508쪽 옆구리/23.7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21,100원

ISBN: 978-89-24-10019-8

〈책소개〉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만남의 설레임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띄우는 작은 꽃 한송이 같은 편지입니다. 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쓴 진짜 편지였습니다. 할 말도 많아지고 페이지도 더 늘어난 지금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만 마음은 여전히 연필에 침 문혀 푹푹 눌러 쓰고 있습니다.

〈들꽃편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활영성' '쉼' '나눔'을 추구하며,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고 따라 사는 소박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미소가 빙그레 번지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회입니다. 〈들꽃편지 제3권〉은 1995.3월 제129호부터 1998.1월 제183호까지 2년 10개월 동안 발행한 55호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첫째 딸이 태어나 우유값 벌기 위해 안산에 있는 쇠를 녹여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 입사하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에서 3년동안 살았던 시기입니다. 국가적으로는 IMF가 터져서 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환란의 때에 저의 가족을 잠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놓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월급은 꼬박꼬박 나왔었거든요. 안산으로 이사를 가서 개척교회인 〈늘푸른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 전도 주보를 만들면서 같은 내용을 이름만 바꾸어 두 종류로 편집하는 방법으로 〈들꽃편지〉를 만들었습니다.

월간〈들꽃편지〉 제129호-제183호 표지모음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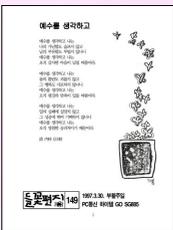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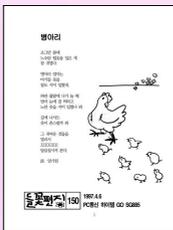
147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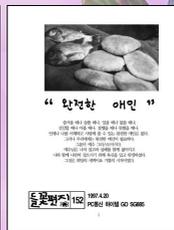
149



150



151



152



153

61 들꽃편지4권



들꽃편지 제4권 -동자꽃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2.9.13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512쪽 옆구리/24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21,300원

ISBN: 978-89-24-100730

〈책소개〉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만남의 설레임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띄우는 작은 꽃 한송이 같은 편지입니다. 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쓴 진짜 편지였습니다. 할 말도 많고 페이지도 더 늘어난 지금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만 마음은 여전히 연필에 침 문혀 꼭꼭 눌러 쓰고 있습니다.

〈들꽃편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활영성' '쉼' '나눔'을 추구하며,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고 따라 사는 소박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미소가 빙그레 번지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회입니다. 〈들꽃편지 제4권〉은 1998.3월 제184호부터 2000.1월 제215호까지 1년 11개월 동안 발행한 32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PC통신이라는 새로운 소통 도구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천리안, 하이텔에 열광하던 시기입니다. 우체국에서 빌려주는 단말기로 하이텔에 접속하였습니다. 저는 〈기뻐하는사람들〉 동우회를 만들어 시삽(운영자)로 활동하면서 기독교 동우회 중에 2번째로 큰 모임으로 만들었습니다. 노상에서 이루어지던 '전도'가 새로운 가상의 '사이버 세상'에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저는 문서선교를 인터넷 선교로 전환하여, 사이버 새벽예배를 매일 인도하였고 가상의 교회인 〈들꽃피는교회〉를 준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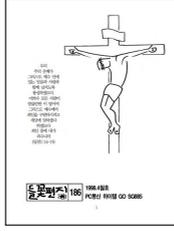
월간<들꽃편지> 제184호-제215호 표지모음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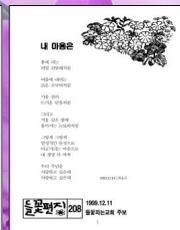
205



206



207



208

62 일상의 기쁨 (시10컬러)



일상의 기쁨 -최용우 열번째 시집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2022.10.4

카테고리/ 시.에세이 /한국시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210쪽 옆구리/10.4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3,400원

ISBN: 978-89-24-10130-0

〈책소개〉 평화로운 일상... 그리고 기쁨

인간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매일 만나고 보는 주위의 평범한 일상이며,
다른 하나는 그 일상을 사고(思考)하는 '나'이다.
숲속을 걸어가던 시인, 고고학자, 나무꾼은
완전 다른 세 가지의 숲길을 걸어가던 것이다.
날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며 두리번거린다.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기쁨'을 찾지 못하면
그 어디서도 기쁨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일상에서 찾은 평범하면서도 시시하면서도
가만히 마음을 열어주고 보듬어주는 詩.

이 시집은 특별한 형식 없이
아무 때나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그저 단순하게 받아 적어놓은 시 중에서
한 권 분량을 추렸다.
그래서 그저 단순하게 읽고 잊어버리면 된다.



〈목차〉

1장 만남 -너를 만나니 좋아 -48편의 시

10.만남 11.감자 12.마스크 13.코로나 14.남녀의 대화 15.만남 16.새벽 빗소리
17.발명 18.꽃간 19.단풍잎 20.고독 21.기쁨 22.봄 23.빵 24.나뭇가지 25.노을
26.별 27.책을 버리며 28.비 29.모기 30.길 31.방귀 32.허수아비는 33.전화번호
34.아고고 35.사랑은 36.두 마음 37.나라도 38.가족 39.참새 40.길 잃은 할아버지
41.나비 42.꽃 한송이 43.코끼리 44.한숨 45.신기하다 46.다짐 47.꽃들은 48.노예
49.비 50.사기꾼 51.아침 52.행복한 사람 53.설거지 54.아직 55.만족 56.지혜 57.
터미널 시인

2장 행복 -나는 그냥 너무 행복해 -48편의 시

60.행복 61.코골이 62.손님 63.커피생각 64.골목길 65.성자 66.시인 67.서점 68.
거스러미 69.좋다 70.잠들기 전 기도 71.풍경 72.슬픈 꽃 73.뭘지? 74.소와 강아
지 75.장마 76.금덩이 77.영원 78.달리기 79.네비게이션 80.외로움 81.한탄 82.치
자꽃 83.번지점프 84.땀띠 85.땀 86.매미 87.눈과 눈갈 88.내일은 89.기침 소리
90.하나님의 숨소리 91.속삭이는 소리 92.춤추는 소리 93.떨어지는 소리 94.코로나
95.은행 96.아멘 97.사탕 98.동전 99.산에 올라 100.터진 입 101.고맙다 102.여남
공학 103.커플 104.이슬과 서리 105.내가 만약 106.낮달맞이꽃 107.때롱

3장 감사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48편의 시

110.감사 111.낙엽 112.눈물 113.아픔 114.말 115.선인장꽃 116.야발 117.드라
마 118.하얀 십자가 119.가자 120.갓난아기1 121.갓난아기2 122.슬픔 123.눈떠
124.내 마음 125.당신에게 가는 길 126.산 127.좌절금지 128.비 129.삶과 죽음
130.이게 뭐야 131.뇌출혈 132.안개 133.병원에는 134.시합 135.고양이 136.삼합
137.분명히 138.시 139.숨 140.천국과 지옥 141.섬김 142.신발정리 143.김소월
144.망초꽃 145.어떤 사람 146.몸.이 아픈 것은 147.저 개 148.꽃이니까 149.날고
싶다 150.먹고 싶은 것 151.아카씨와 여학생 152.자유 153.죽을 만큼 154.미련
155.판단 156.삐대 157.문득

4장 위로 -예수만이 참된 위로자 -48편의 시

160.위로 161.생각대로 162.책의 운명 163.에어컨 164.고라니 165.햇살 166.함
께 걷는길 167.바보 168.막막 169.예배 170.아침이슬 171.보름달 172.수목화
173.태풍 174.종달새 175.삼익국화 176.매미 177.여름밤 178.밤비 179.폭염 180.
도움 181.소화기 182.구제 183.개구리4 184.달맞이 185.연못 186.주차장 187.잠
188.소썩새 189.유산 190.인연 191.어둠 192.우리 집 193.나는 194.행복 195.즐겁게
19.6영(0) 197.세월 198.평안 199.성공 200.열매 201.판단 202.인생 203.고향
204.욕심 205.밤 206.하루 207.얼굴

63 들꽃편지|5권



들꽃편지 제5권 참꽃호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2.10.19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528쪽 옆구리/23.8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21,900원

ISBN: 978-89-24-10192-8

〈책소개〉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만남의 설레임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띄우는 작은 꽃 한송이 같은 편지입니다. 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쓴 진짜 편지였습니다. 할 말도 많아지고 페이지도 더 늘어난 지금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만 마음은 여전히 연필에 침 문혀 푹푹 눌러 쓰고 있습니다.

〈들꽃편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활영성' '쉼' '나눔'을 추구하며,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고 따라 사는 소박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미소가 빙그레 번지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회입니다. 〈들꽃편지 제4권〉은 2000.2월 제216호부터 2001.9월 제231호까지 1년 8개월 동안 발행한 16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제가 IMF 기간 3년 동안 직장생활을 마치고 안산 선부동에서 〈들꽃피는교회〉 개척 준비를 하며 예배를 드리다가 인천 청천동 믿음교회로 잠시 갔습니다. 약 6개월 후 드디어 온 가족을 이끌고 충북 보은군 대청호 상류에 있는 '갈릴리마을'로 이사하여 환대 사역을 시작한 시기입니다.

저는 학교 2층 교실 한 칸에 마련된 책방에서 열심히 글을 쓰며 〈들꽃편지〉를 한 달에 두 번씩 만들고 주일에는 〈들꽃피는교회〉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월간 <들꽃편지> 제216호-제231호 표지모음



216



217



218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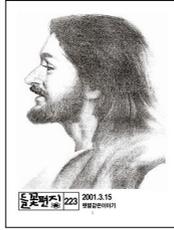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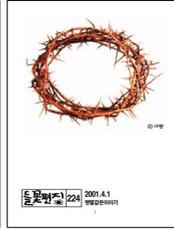
221



222



223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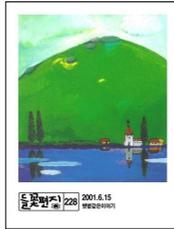
225



226



227



228



229



230



231



64 들꽃편지6권



들꽃편지 제6권 금계국꽃호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1.11.30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504쪽 옆구리/23.7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21,000원

ISBN: 978-89-24-10266-6

〈책소개〉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만남의 설레임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띄우는 작은 꽃 한송이 같은 편지입니다. 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쓴 진짜 편지였습니다. 할 말도 많아지고 페이지도 더 늘어난 지금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만 마음은 여전히 연필에 침 문혀 푹푹 눌러 쓰고 있습니다.

〈들꽃편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활영성' '쉽' '나눔'을 추구하며,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고 따라 사는 소박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미소가 빙그레 번지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회입니다. 〈들꽃편지 제6권〉은 2000.2월 제232호부터 2001.10월 제249호까지 1년 9개월 동안 발행한 18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충북 보은군 대청호 상류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쉬을 위해 방문하는 분들을 돕는 환대 사역을 하던 때입니다. 저는 학교 2층 교실 한 칸에 마련된 책방에서 열심히 글을 쓰며 〈들꽃편지〉를 한 달에 두 번씩 만들고 주일에는 〈들꽃 피는교회〉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아내는 한남대학교 대학원에, 큰딸은 판암초등학교에, 작은딸은 리라우치원에 다니며 날마다 대전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대청호 마흔아홉 구비길을 꼬불꼬불 한 번에 40분씩 버스를 타고 멀미도 하지 않고 씩씩하게 통학을 했습니다.

월간<들꽃편지> 제232호-제249호 표지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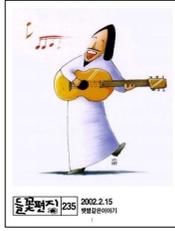
232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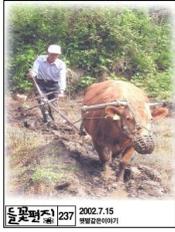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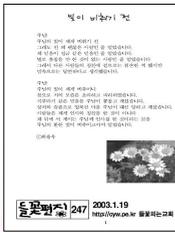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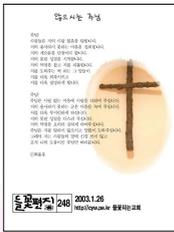
245



246



247



248



249



65 들꽃편지7권



들꽃편지 제7권 민들레호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2년 12월 14일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508쪽 옆구리/22.9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21,100원

ISBN: 978-89-24-10373-1

〈책소개〉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만남의 설레임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띄우는 작은 꽃 한송이 같은 편지입니다. 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쓴 진짜 편지였습니다. 할 말도 많아지고 페이지도 더 늘어난 지금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만 마음은 여전히 연필에 침 문혀 푹푹 눌러 쓰고 있습니다.

〈들꽃편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활영성' '쉽' '나눔'을 추구하며,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고 따라 사는 소박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미소가 빙그레 번지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회입니다. 〈들꽃편지 제7권〉은 2003.2월 제250호부터 2003.11월 제290호까지 10개월 동안 발행한 40호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충북 보은군 대청호 상류에 어부동 마을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쉬을 위해 방문하는 분들을 돕는 현대 사역을 하던 때입니다. 저는 학교 2층 교실 한 칸에 마련된 책방에서 열심히 글을 쓰며 월간〈들꽃편지〉를 만들고 주일에는 〈들꽃 피는교회〉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매일 한 편씩 글을 써서 인터넷 이-메일로 발송하는 〈햇별같은이야기〉가 2000회 발행을 하였고, 개인적으로는 '수도원' 공부를 시작했으며, 정원 목사님과과의 만남을 통해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 올라 오는 수많은 글을 열심히 받아 적었던 시기입니다.

66 들꽃편지8권



들꽃편지 제8권 엉겅퀴꽃호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3년 1월 11일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508쪽 옆구리/22.9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21,100원

ISBN: 978-89-24-10478-3

〈책소개〉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만남의 설레임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띄우는 작은 꽃 한송이 같은 편지입니다. 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쓴 진짜 편지였습니다. 할 말도 많고 페이지도 더 늘어난 지금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만 마음은 여전히 연필에 침 문혀 푹푹 눌러 쓰고 있습니다.

〈들꽃편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활영성' '쉽' '나눔'을 추구하며,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고 따라 사는 소박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미소가 빙그레 번지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지입니다. 〈들꽃편지 제8권〉은 2003.11월 제291호부터 2004.10월 제343호까지 1년 동안 발행한 40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충북 보은군 대청호 상류에 어부동 마을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십을 위해 방문하는 분들을 돕는 현대 사역을 하던 때입니다. 저는 학교 2층 교실 한 칸에 마련된 책방에서 열심히 글을 쓰며 월간〈들꽃편지〉를 만들고 주일에는 〈들꽃 피는교회〉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대전에서 버스를 타고 40분 이상 꼬불꼬불 들어와야 하는 오지에서 거의 매일 빈힘없이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집과 책방을 왔다갔다 하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고, 오후에는 동네를 얼렁거리며 할머니들과 친하게 지냈고, 호숫가에서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고 비밀한만남을 가졌던, 저에게는 은총과 같은 숨겨진 시기였습니다.

67 들꽃편지9권



들꽃편지 제9권 분꽃호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2023년 2월 8일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508쪽 옆구리/22.9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21,100원
 ISBN: 978-89-24-10576-6

〈책소개〉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만남의 설레임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띄우는 작은 꽃 한송이 같은 편지입니다. 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쓴 진짜 편지였습니다. 할 말도 많아지고 페이지도 더 늘어난 지금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만 마음은 여전히 연필에 침 문혀 푹푹 눌러 쓰고 있습니다.

〈들꽃편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활영성' '쉼' '나눔'을 추구하며,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고 따라 사는 소박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미소가 빙그레 번지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회 지입니다. 〈들꽃편지 제9권〉은 2004.10월 제344호부터 2006.1월 제407호까지 1년 2개월 동안 발행한 40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충북 보은군 대청호 상류에 어부동 마을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쉬을 위해 방문하는 분들을 돕는 환대 사역을 하다가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5년만에 충남 공주시 반포면 산림박물관 옆에 있는 〈산골마을〉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환대 사역을 시작했던 때입니다.

황토로 지어진 120평의 아름다운 공간에서 개인 방문이나 단체로 수련회를 오는 팀들을 섬겼습니다. 바로 옆에 수목원이 있어서 계절마다 온갖 종류의 꽃 사진을 찍었고 수목원 뒷산 능선을 따라 도는 산행코스가 정말 환상적인 곳이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며 만들어 전국에 띄웠던 〈들꽃편지〉를 모았습니다.

68 들꽃편지10권



들꽃편지 제10권 천인국꽃호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3년 3월 11일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페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504쪽 옆구리/22.9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21,100원

ISBN: 978-89-24-10720-3

〈책소개〉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만남의 설레임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띄우는 작은 꽃 한송이 같은 편지입니다. 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쓴 진짜 편지였습니다. 할 말도 많고 페이지도 더 늘어난 지금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만 마음은 여전히 연필에 침 문혀 푹푹 눌러 쓰고 있습니다.

〈들꽃편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활영성' '쉼' '나눔'을 추구하며,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고 따라 사는 소박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미소가 빙그레 번지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회입니다. 〈들꽃편지 제10권〉은 2006.1월 제 408호부터 2007.1월 제455호까지 1년 동안 발행한 48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충남 공주시 반포면 산림박물관 옆에 있는 〈산골마을〉에서 6개월간의 짧은 협력사역을 마치고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쑥티마을에 집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2학년인 아이들이 너무 먼 통학 거리에 지쳐서 힘들어 하기에 일정 기간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살기로 하고 작은 면소재지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몇몇 목회자들이 모이는 목요기도회 모임을 인도하였고, 기독교피정의집 사역을 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폐교를 무수히 찾아다녔으나 적당한 장소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만들어 전국에 띄웠던 주간〈들꽃편지〉1년분을 모았습니다.

69 들꽃편지|11권



들꽃편지 제11권 과꽃호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3년 4월 10일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506쪽 옆구리/22.9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21,100원

ISBN: 978-89-24-10829-3

<책소개>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만남의 설레임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띄우는 작은 꽃 한송이 같은 편지입니다. 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쓴 진짜 편지였습니다. 할 말도 많아지고 페이지도 더 늘어난 지금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만 마음은 여전히 연필에 침 문혀 푹푹 눌러 쓰고 있습니다.

<들꽃편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활영성' '쉼' '나눔'을 추구하며,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고 따라 사는 소박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미소가 빙그레 번지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회입니다. <들꽃편지 제11권>은 2007.1월 제456호부터 2008.11월 제478호까지 2년 동안 발행한 24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쑥터마을에 살면서 저는 교회 이름만 바꾸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보 1년분을 미리 편집하여 파일로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주보>사역을 시작했고, 새로 바뀐 찬송가645곡의 ppt 자료를 만드는 엄청난게 지루한 일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약 1천여 교회가 사용한 주보 자료는 <들꽃편지>에 매월 똑같은 내용을 실었습니다. 찬송가 파워포인트도 공씨디에 구워서 약1천여 개를 전국으로 무료 발송하였습니다.

아내는 꽃을 따서 꽃차를 만드는 <인숙꽃방>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매월 만들어 전국에 띄웠던 월간<들꽃편지>2년분을 모았습니다.

월간<들꽃편지> 제456호-제478호 표지모음

꽃새의 한옥

한옥은 조선시대 궁궐과 양반가에서 살던 집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려서 지어졌다. 한옥의 특징은 나무를 많이 썼다는 것이다. 한옥의 구조는 기둥과 대를 연결하여 지붕을 받치고 있다. 한옥의 아름다움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한옥은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상징이다.

2007.10.15 발행
http://lyp.com.kr 발행권자(주)

456

외국인 순종

순종은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다. 그는 1912년부터 1926년까지 재위했다. 순종은 일본의 압력으로 궁중 생활을 강요당하며, 궁중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순종은 1926년 7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순종은 조선의 마지막 임금으로서, 민족의 수난기를 겪어낸 인물이다.

2007.10.15 발행
http://lyp.com.kr 발행권자(주)

457

개미

개미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개체를 이루고 있는 동물이다. 개미는 집단 생활을 하며,分工을 잘 한다. 개미는 땅속에서 생활하며, 먹이를 운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개미는 인간에게도 많은 도움을 준다. 개미는 자연의 작은 신비이다.

2007.10.15 발행
http://lyp.com.kr 발행권자(주)

458

이름

이름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름은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이름은 부모의 사랑과 기대를 담고 있다. 이름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007.10.15 발행
http://lyp.com.kr 발행권자(주)

459

겨울 길

겨울 길은 차가운 바람과 눈이 내리는 길이다. 겨울 길은 단정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겨울 길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 겨울 길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좋은 기회이다.

2007.10.15 발행
http://lyp.com.kr 발행권자(주)

460

가도 등업

가도 등업은 산악 운동의 한 종류이다. 가도 등업은 산악 지형을 오르내리며, 체력을 단련시키는 효과가 있다. 가도 등업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좋은 기회이다.

2007.10.15 발행
http://lyp.com.kr 발행권자(주)

461

양 옆에 있는

양 옆에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함께하는 것이다. 양 옆에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 옆에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豊滿하게 만들어 준다.

2007.10.15 발행
http://lyp.com.kr 발행권자(주)

462

꽃 노릇

꽃 노릇은 꽃이 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꽃 노릇은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좋은 기회이다. 꽃 노릇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좋은 기회이다.

2007.10.15 발행
http://lyp.com.kr 발행권자(주)

463

견

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물이다. 견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 견은 사람의 삶을 더豊滿하게 만들어 준다.

2007.10.15 발행
http://lyp.com.kr 발행권자(주)

464

가슴 등

가슴 등에는 사랑과 슬픔이 담겨 있다. 가슴 등에는 우리의 감정을 담고 있다. 가슴 등에는 우리의 삶을 더豊滿하게 만들어 준다.

2007.10.15 발행
http://lyp.com.kr 발행권자(주)

465

푸른논

푸른논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곳이다. 푸른논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좋은 기회이다. 푸른논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좋은 기회이다.

2007.10.15 발행
http://lyp.com.kr 발행권자(주)

466

가슴의 눈

가슴의 눈은 우리의 감정을 보여주는 곳이다. 가슴의 눈은 우리의 감정을 더豊滿하게 만들어 준다. 가슴의 눈은 우리의 삶을 더豊滿하게 만들어 준다.

2007.10.15 발행
http://lyp.com.kr 발행권자(주)

467

가슴의 등

가슴의 등에는 우리의 감정을 담고 있다. 가슴의 등에는 우리의 삶을 더豊滿하게 만들어 준다. 가슴의 등에는 우리의 삶을 더豊滿하게 만들어 준다.

2007.10.15 발행
http://lyp.com.kr 발행권자(주)

468

고백

고백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물이다. 고백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 고백은 사람의 삶을 더豊滿하게 만들어 준다.

2007.10.15 발행
http://lyp.com.kr 발행권자(주)

469

동네의 길

동네의 길은 차가운 바람과 눈이 내리는 길이다. 동네의 길은 단정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동네의 길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

2007.10.15 발행
http://lyp.com.kr 발행권자(주)

470

목동노이

목동노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곳이다. 목동노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좋은 기회이다. 목동노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좋은 기회이다.

2007.10.15 발행
http://lyp.com.kr 발행권자(주)

471

목향

목향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물이다. 목향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 목향은 사람의 삶을 더豊滿하게 만들어 준다.

2007.10.15 발행
http://lyp.com.kr 발행권자(주)

472

가슴의 등

가슴의 등에는 우리의 감정을 담고 있다. 가슴의 등에는 우리의 삶을 더豊滿하게 만들어 준다. 가슴의 등에는 우리의 삶을 더豊滿하게 만들어 준다.

2007.10.15 발행
http://lyp.com.kr 발행권자(주)

473

꽃동노이

꽃동노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곳이다. 꽃동노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좋은 기회이다. 꽃동노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좋은 기회이다.

2007.10.15 발행
http://lyp.com.kr 발행권자(주)

474

사랑의 양귀비

사랑의 양귀비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곳이다. 사랑의 양귀비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좋은 기회이다. 사랑의 양귀비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좋은 기회이다.

2007.10.15 발행
http://lyp.com.kr 발행권자(주)

475

연하의 포도주

연하의 포도주는 사랑과 슬픔을 담고 있다. 연하의 포도주는 우리의 감정을 더豊滿하게 만들어 준다. 연하의 포도주는 우리의 삶을 더豊滿하게 만들어 준다.

2007.10.15 발행
http://lyp.com.kr 발행권자(주)

476

가슴의 등업

가슴의 등업은 산악 운동의 한 종류이다. 가슴의 등업은 산악 지형을 오르내리며, 체력을 단련시키는 효과가 있다. 가슴의 등업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좋은 기회이다.

2007.10.15 발행
http://lyp.com.kr 발행권자(주)

477

천국

천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물이다. 천국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 천국은 사람의 삶을 더豊滿하게 만들어 준다.

2007.10.15 발행
http://lyp.com.kr 발행권자(주)

478



70 들꽃편지12권



들꽃편지 제12권 장미꽃호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3년 5월 10일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페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504쪽 옆구리/22.9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21,100원

ISBN: 978-89-24-10916-0

〈책소개〉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만남의 설레임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띄우는 작은 꽃 한송이 같은 편지입니다. 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쓴 진짜 편지였습니다. 할 말도 많아지고 페이지도 더 늘어난 지금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만 마음은 여전히 연필에 침 문혀 꼭꼭 눌러 쓰고 있습니다.

〈들꽃편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활영성' '쉼' '나눔'을 추구하며,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고 따라 사는 소박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미소가 빙그레 번지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회 지입니다. 〈들꽃편지 제12권〉은 2008.12월 제479호부터 2010.10월 제501호까지 2년 동안 매월 발행한 23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주보자료〉시리즈 〈품나는 주보〉(2009년), 〈탐나는주보〉(2010년)를 만들었습니다. 주보 자료의 내용은 〈들꽃편지〉에 매월 똑같이 실었습니다. 2009년 4월부터 동네에 있는 빈집을 한 채 빌려 예쁘게 꾸며서 〈햇별같은집〉이라는 자그마한 피정의 집을 시작하여 많은 분들이 조용히 쉬어가셨습니다. 특히 좋은이(중)와 밝은이(초)의 친구들이 아지트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매월 만들어서 전국에 띄웠던 월간〈들꽃편지〉2년분을 모았습니다.

71 들꽃편지13권



들꽃편지 제13권 도라지꽃호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3년 6월 12일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512쪽 옆구리/23.0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21,300원

ISBN: 978-89-24-11019-7

〈책소개〉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만남의 설레임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띄우는 작은 꽃 한송이 같은 편지입니다. 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쓴 진짜 편지였습니다. 할 말도 많아지고 페이지도 더 늘어난 지금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만 마음은 여전히 연필에 침 문혀 푹푹 눌러 쓰고 있습니다.

〈들꽃편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활영성' '쉼' '나눔'을 추구하며,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고 따라 사는 소박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미소가 빙그레 번지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회입니다. 〈들꽃편지 제13권〉은 2010.11월 제502호부터 2012.9월 제524호까지 1년 10개월 동안 매월 발행한 22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주보자료〉시리즈 〈양육주보〉(2011년)를 만들었습니다. 주보 자료의 내용은 〈들꽃편지〉에 매월 똑같이 실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주보자료를 빼고 다시 원래대로 들꽃편지를 편집하였습니다.

2009년 4월부터 동네에 있는 빈집을 한 채 빌려 예쁘게 꾸며서 〈햇별같은집〉이라는 자그마한 피정의 집을 시작하여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내는 꽃차를 만드는 〈인숙꽃방〉사역을, 저는 도서출판〈들꽃편지〉사역을 통해 10여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이 시기에 매일 만들어서 전국에 띄웠던 월간〈들꽃편지〉를 모았습니다.

72 들꽃편지14권



들꽃편지 제14권 작약꽃호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2023년 7월 6일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508쪽 옆구리/23.0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21,200원

ISBN: 978-89-24-11116-3

〈책소개〉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 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 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햇볕같은이야기(<https://cyw.pe.kr>) 발행인 최용우가 일상 속에서 건져 올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와, 주변 사람들의 글, 그리고 너무 난해하고 지적인 말씀 연구가 가득한 이 시대에, 방금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팔딱 거리는 싱싱한 묵상의 말씀, 속 깊은 신앙적인 고민들을 거침없이 털어놓은 ‘광야에 서 외치는 자의 편지’입니다.

〈들꽃편지〉는 만남의 설레임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띄우는 작은 꽃 한송 이 같은 편지입니다. 들꽃편지는 ‘생활영성’ ‘쉼’ ‘나눔’을 추구하며, 그런 풍요로움 을 느끼고 따라 사는 소박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미소가 빙그 레 번지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 지입니다. 〈들꽃편지 제14권〉은 제525호(2012.10월)부터 제543호 (2014.4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매월 발행한 19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주보자료〉시리즈 전도주보(12)명품주보(13) 좋은주보(14)를 만들어서 전국의 약 1천여 교회에 제공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온 가족이 대전에 있는 청소년교회인 도토리교회에 출석하면서 섬겼습니다.

이 시기에 매월 만들어서 전국에 띄웠던 월간〈들꽃편지〉를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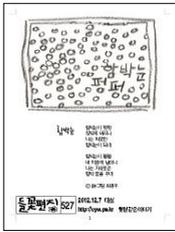
월간<들꽃편지> 제525호-제543호 표지모음



525



526



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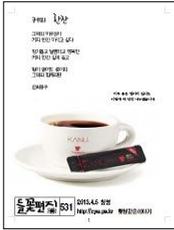
528



529



530



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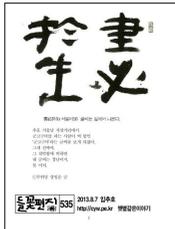
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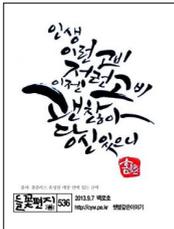
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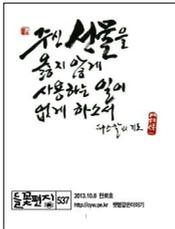
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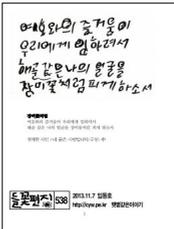
535



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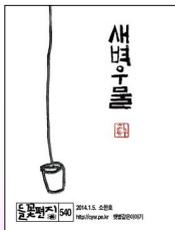
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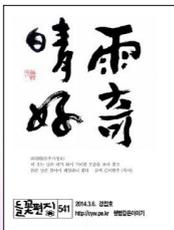
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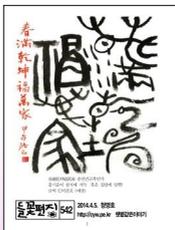
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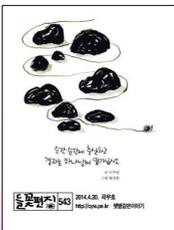
540



541



542



543

73 들꽃편지|15권(컬러)



들꽃편지 제15권 노란꽃호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2023년 8월 3일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510쪽 옆구리/23.0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30,200원

ISBN: 978-89-24-11223-8

〈책소개〉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 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 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햇볕같은이야기(<https://cyw.pe.kr>) 발행인 최용우가 일상 속에서 건져 올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와, 주변 사람들의 글, 그리고 너무 난해하고 지적인 말씀 연구가 가득한 이 시대에, 방금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팔딱 거리는 싱싱한 목사의 말씀, 속 깊은 신앙적인 고민들을 거침없이 털어놓은 ‘광야에 서 외치는 자의 편지’입니다.

〈들꽃편지〉는 만남의 설레임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띄우는 작은 꽃한송이 같은 편지입니다. 들꽃편지는 ‘생활영성’ ‘쉽’ ‘나눔’을 추구하며,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고 따라 사는 소박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미소가 빙그레 번지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 지입니다. 〈들꽃편지 제15권〉은 제544호(2014.5월)부터 제561호 (2015.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매월 발행한 18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주보자료〉시리즈 좋은주보(14) 감사주보(15)를 만들어서 전국의 약 1천여 교회에 제공하였습니다. 평생 1만편을 목표로 쓰고 있는〈햇볕같은이야기〉는 드디어 5천편을 써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2015년 7월부터는 온 가족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주님의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매월 만들어서 전국에 띄웠던 월간〈들꽃편지〉를 모았습니다.

월간<들꽃편지> 제544호-제561호 합본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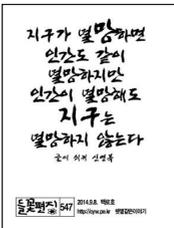
544.



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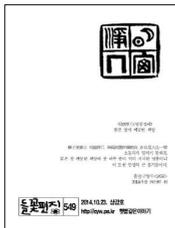
546.



547.



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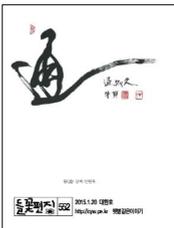
549.



550.



551.



552.



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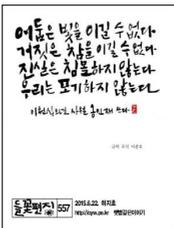
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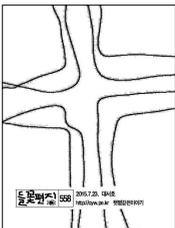
555.



556.



557.



558.



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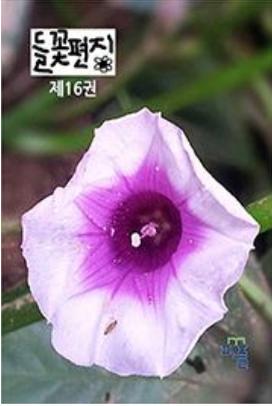
560.



561.



74 들꽃편지|16권(컬러)



들꽃편지 제16권 고구마꽃호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2023년 9월 1일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페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510쪽 옆구리/23.0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30,200원

ISBN: 978-89-24-11402-7

〈책소개〉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 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 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햇볕같은이야기(<https://cyw.pe.kr>) 발행인 최용우가 일상 속에서 건져 올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와, 주변 사람들의 글, 그리고 너무 난해하고 지적인 말씀 연구가 가득한 이 시대에, 방금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팔딱 거리는 싱싱한 목상의 말씀, 속 깊은 신앙적인 고민들을 거침없이 털어놓은 ‘광야에 서 외치는 자의 편지’입니다.

〈들꽃편지〉는 만남의 설레임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띄우는 작은 꽃 한송 이 같은 편지입니다. 들꽃편지는 ‘생활영성’ ‘쉼’ ‘나눔’을 추구하며, 그런 풍요로움 을 느끼고 따라 사는 소박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미소가 빙그 레 번지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 지입니다. 〈들꽃편지 제16권〉은 제562호(2015.11월)부터 제579호 (2017.4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매월 발행한 18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주보자료〉시리즈 전10권으로 주보 사역을 마무리하였고, 여러 가지 출판의 제약과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2016년부터 〈교보문고 퍼플〉을 통해 최용우 의 책을 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신간과 더불어 기존에 출판했던 24권의 책도 모두 퍼플에서 재출판했습니다.

이 시기에 매월 만들어서 전국에 띄웠던 월간〈들꽃편지〉를 모았습니다.

월간<들꽃편지> 제562호-제579호 표지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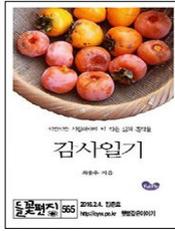
562



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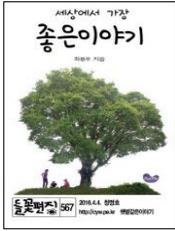
564



565



566



567



568



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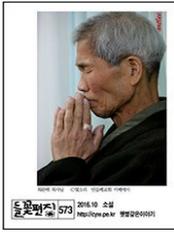
570



571



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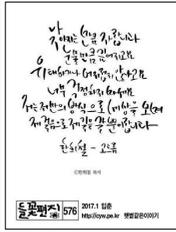
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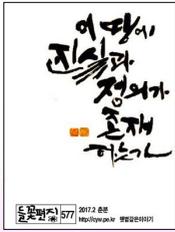
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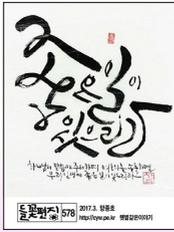
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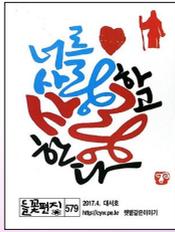
576



577



578



579



75 여유일기 (일기14컬러)



여유일기 -일기14컬러- 찍는 시간 (일기14)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2023.9.15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백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396쪽 옆구리/18.8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23,800원

ISBN: 978-89-24-11454-6

〈책소개〉 대중 살자

서점에서 <하마터면 열심히 살뻔했다>(하완)라는 책의 제목을 보는 순간 “어? 내가 쓰려고 생각해 두었던 책 제목과 비슷한데...” 하면서 “하마터면 내가 쓸 뻔했네.”

자본주의 세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발휘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나처럼 느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빨리 ‘자기개발’이라도 해서 바쁘게 몸부림 치며 살라 하네.

이 ‘욕망 중독’사회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에서처럼 아무도 강요하는 사람은 없고 스스로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바쁘게 사는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를 교묘하게 조작하네.

맘대로 놀러다니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가족들한테도 소홀히 하게 되는 바쁨이 과연 정상인가? 차라리 하루살이가 더 여유로운 것 같네.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 ‘열심’도 병이다.

〈목차〉

1월 아프리카나팔꽃 달

2월 장미앵초꽃 달

3월 매화꽃 달

4월 진달래꽃 달

5월 작약꽃 달

6월 하늘바라기꽃 달

7월 원추리꽃 달

8월 무궁화꽃 달

9월 코스모스꽃 달

10월 국화꽃 달

11월 구절초꽃 달

12월 꽃배추 달

1월

1월의 꽃 - 아프리카나팔꽃 (세종수목원 아미존관)



1월 9



1. 여유롭게 천천히

올해는 어떻게 살까? 한해의 일기장 제목에 그것을 담아내는데 처음에는 '대충 살자' 해서 '대충일기'라 정했다가 대충 살면 안 될 것 같아 '여유일기'라 정했다. 올해는 주변도 좀 돌아보고 천천히 살아보자. '천천일기'라 할까?

해마다 1월 1일 첫 사진은 마당의 장독대 사진을 찍는데 장독대의 주인이신 할머니가 힘이 부치신가 거의 관리를 안하시는 것 같다. 현관문과 가까운 포도나무 아래 제2의 장독대 지점을 만들어서 웬만한 것은 가까운 곳에 두시고 먹는 이유도 있다.

신년 산행으로 계룡산 오르려고 했는데 아내가 먼저 캄모님을 모시고 떡국으로 점심을 먹자고 약속을 잡아버렸다. 그래서 처가에 달려가 캄모님을 잘 섬기고 돌아왔다. 이번 딸을 내주셨으니 잘 섬겨야지. 산에는 다음에 가도 된다.

10 여유일기



28. 뭉난이 수세미

사실상 오늘부터 긴 설 연휴가 시작된다. 옛날 같으면 귀향 전쟁이 시작되는 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방콕하는 분위기라서 너무 조용하다. 아이들도 서울에서 내려오는 버스표가 비싸서 집에 오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아내가 설 명절 때 모이는 친척들에게 뭉 난물을 사 오기는 했지만, 거기에 수세미까지 붙여서 줄 모양이다. 암튼 아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걸 너무 좋아한다. 빨강 노랑 초록... 색깔의 수세미 색깔이 너무 예쁘다. 요즘 저녁 설거지는 내 담당인데, 아내가 나에게도 수세미 선물을 줄까? 안줄까? 궁금하다.

1월 37



29. 부르고 응답하기

설 연휴 첫째 날. 오랜만에 대출 신청한 책을 세종도서관에 가서 찾아왔다. 설 연휴 기간에 읽으려고 빌린 책인데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3분의 1 정도는 읽어버렸다. 오예, 아까워라. 아껴 읽어야 하는데... 하는 순간 내가 딸 버스도 도착하였다.

도서관에서 돌아온 다음에 동네를 크게 한 바퀴 도는 운동을 하였다. 신성아파트 언덕을 막 내려가는데 누가 나를 부른다. "나야오 울~" 아파트 마당에서 노란 고양이가 내려다보며 나를 부른다. 카에 라를 들이대도 도망가지 않고 포즈를 취해주는 것이 집에서 기르는 집고양이 같다.

고양이를 만져주고 '안녕'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더 탄력दार는 간질한 눈빛에 한번 더 쓰다듬어주고 돌아섰다. 사립이든 고양이든 서로 부르고 응답하며 어울려 사는 것이 좋지.

38 여유일기

76 들꽃편지|17권(컬러)



들꽃편지 제17권 데이지꽃호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2023년 10월 2일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페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510쪽 옆구리/23.0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30,200원

ISBN: 978-89-24-11499-7

〈책소개〉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 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 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햇볕같은이야기(<https://cyw.pe.kr>) 발행인 최용우가 일상 속에서 건져 올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와, 주변 사람들의 글, 그리고 너무 난해하고 지적인 말씀 연구가 가득한 이 시대에, 방금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팔딱 거리는 싱싱한 목사의 말씀, 속 깊은 신앙적인 고민들을 거침없이 털어놓은 ‘광야에 서 외치는 자의 편지’입니다.

〈들꽃편지〉는 만남의 설레임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띄우는 작은 꽃 한송 이 같은 편지입니다. 들꽃편지는 ‘생활영성’ ‘쉼’ ‘나눔’을 추구하며, 그런 풍요로움 을 느끼고 따라 사는 소박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미소가 빙그 레 번지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 지입니다. 〈들꽃편지 제17권〉은 제580호(2017.5월)부터 제597호 (2019.3월)까지 1년 11개월 동안 매월 발행한 18회분을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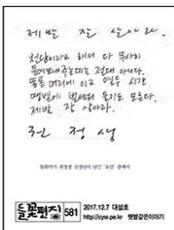
이 시기는 들꽃편지의 표지를 컬러로 인쇄하기 시작했고 〈교보문고 퍼플〉을 통해 신간 7권과 재발행 1권을 포함하여 모두 8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교보문고를 통해 모두 26권의 최용우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매월 만들어서 전국에 띄웠던 월간〈들꽃편지〉를 모았습니다.

월간<들꽃편지> 제580호-제597호 표지모음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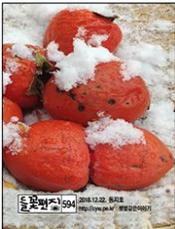
591



592



593



594



595



596



597



77 들꽃편지18권(컬러)



들꽃편지 제18권 사철채송화호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2023년 11월 6일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510쪽 옆구리/23.0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30,100원

ISBN: 978-89-24-11655-7

〈책소개〉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햇볕같은이야기(<https://cyw.pe.kr>) 발행인 최용우가 일상 속에서 건져 올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와, 주변 사람들의 글, 그리고 너무 난해하고 지적인 말씀 연구가 가득한 이 시대에, 방금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팔딱 거리는 싱싱한 묵상의 말씀, 속 깊은 신앙적인 고민들을 거침없이 털어놓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편지’입니다.

〈들꽃편지〉는 만남의 설레임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띄우는 작은 한송이 꽃 같은 편지입니다. 들꽃편지는 ‘생활영성’ ‘쉽’ ‘나눔’을 추구하며,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고 따라 사는 소박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미소가 빙그레 번지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회입니다. 〈들꽃편지 제18권〉은 제598호(2019.3월)부터 제615호 (2020.4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매월 발행한 18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국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정말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시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119응급차로 을지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고 아이들이 독립하여 부모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매월 만들어서 전국에 띄웠던 월간〈들꽃편지〉를 모았습니다.

〈목차〉

202 최용우 책

월간<들꽃편지> 제598호-제615호 표지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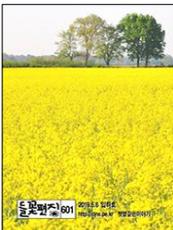
598



599



600



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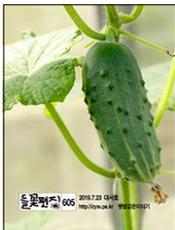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78 들꽃편지19권(컬러)



들꽃편지 제19권 모과꽃호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2023년 12월 1일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510쪽 옆구리/23.0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30,200원

ISBN: 978-89-24-11788-2

〈책소개〉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햇볕같은이야기(<https://cyw.pe.kr>) 발행인 최용우가 일상 속에서 건져 올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와, 주변 사람들의 글, 그리고 너무 난해하고 지적인 말씀 연구가 가득한 이 시대에, 방금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팔딱 거리는 싱싱한 묵상의 말씀, 속 깊은 신앙적인 고민들을 거침없이 털어놓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편지’입니다.

〈들꽃편지〉는 만남의 설레임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띄우는 작은 한송이 꽃 같은 편지입니다. 들꽃편지는 ‘생활영성’ ‘쉽’ ‘나눔’을 추구하며,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고 따라 사는 소박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미소가 빙그레 번지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회입니다. 〈들꽃편지 제19권〉은 제616호(2020.5월)부터 제633호(2021.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매월 발행한 18회분을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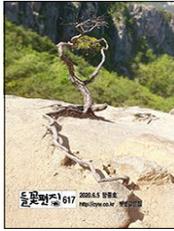
이 시기는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는가 하면, 1천년 만에 처음으로 성당, 절, 교회의 종교 모임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온 세상이 울스톱되는 재난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매월 만들어서 전국에 띄웠던 월간〈들꽃편지〉를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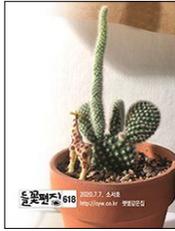
월간<들꽃편지> 제616호-제633호 표지모음



616



617



618



619



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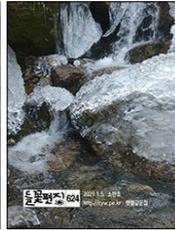
621



622



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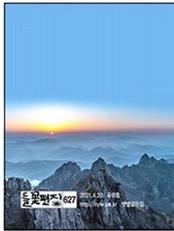
624



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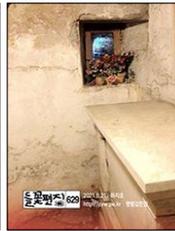
626



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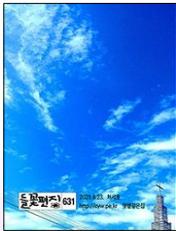
628



629



630



631



632



633



79 들꽃편지20권(컬러)



들꽃편지 제20권 호박꽃호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2023년 12월 20일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510쪽 옆구리/23.0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30,200원

ISBN: 978-89-24-119114

〈책소개〉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햇볕같은이야기(<https://cyw.pe.kr>) 발행인 최용우가 일상 속에서 건져 올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와, 주변 사람들의 글, 그리고 너무 난해하고 지적인 말씀 연구가 가득한 이 시대에, 방금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팔딱 거리는 싱싱한 묵상의 말씀, 속 깊은 신앙적인 고민들을 거침없이 털어놓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편지’입니다.

〈들꽃편지〉는 만남의 설레임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띄우는 작은 한송이 꽃 같은 편지입니다. 들꽃편지는 ‘생활영성’ ‘쉽’ ‘나눔’을 추구하며,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고 따라 사는 소박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미소가 빙그레 번지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회입니다. 〈들꽃편지 제20권〉은 제634호(2021.11월)부터 제651호(2023.4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매월 발행한 18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서히 수그러드는가 싶은 찰라에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일어나 가스, 곡물, 원유가격이 폭등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서울 이태원 골목에서 158명이 압사하고 19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시기에 매월 만들어서 전국에 띄웠던 월간〈들꽃편지〉를 모았습니다.

월간〈들꽃편지〉 제634호-제651호 표지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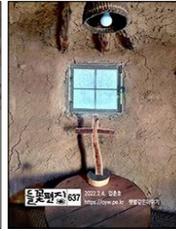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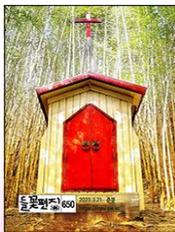
647



648



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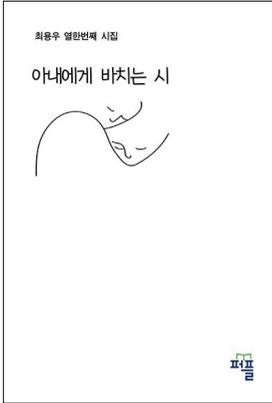
650



651



80 아내에게 바치는 시 (시11컬러)



아내에게 바치는 시 -최용우11시집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3.12.26

카테고리/시.에세이 /한국시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트지 25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216쪽 옆구리/9.7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5,000원

ISBN: 978-89-24-11948-0

〈책소개〉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 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소’
하수영이라는 가수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불렀을 때
이 다음에 결혼을 하면 나는
〈아내에게 바치는 시〉를 써서 바치고 싶었다.

가수 하수영은 그의 노래를
〈아내에게 바치〉지 못했지만(그는 총각이었다.)
시인 최용우는 아내에게 바치는 시 200편을
지난 30년 함께 살아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친다.

〈목차〉

- 1부 신혼 -결혼1년 지혼식 -48편의 시
- 2부 꽃 -결혼4년 화혼식-48편의 시
- 3부 수정 -결혼15년 수혼식 -48편의 시
- 4부 진주 -결혼30년 진혼식 -48편의 시

1부 신혼



- 12 부부공식
- 14 배신의 고통
- 15 가을바람
- 16 땅 닦기
- 17 나는 날마다 한다
- 18 도서관에서
- 19 후회지아
- 20 김치 달그기
- 21 사랑 연습
- 22 아내
- 23 사랑1
- 24 사랑2
- 25 에이 흠쓸
- 26 듣고싶은 소리
- 27 연마 얼굴
- 28 나무꾼과 선녀
- 29 잠밖애 흰눈이
- 30 무기징역 복역수!
- 31 우리집 천사
- 32 부모 왕바보
- 33 조개와 고추
- 34 아내와 바보인가 봐
- 35 월급날
- 36 처음 당신을 보았을 때
- 37 집장
- 38 내 일에 누울 당신
- 39 결혼기념일
- 40 여보 미안해
- 41 밤마다 파애투
- 42 발가파 스무개가
- 43 당신이 더
- 44 웃기는 부부
- 45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 46 말가진 남편
- 47 사랑고백
- 48 아내의 브레지어
- 52 당신 하나 마음에 꽂으니
- 53 아내의 신발
- 54 그리고
- 55 도둑 하나님
- 56 노랑지빠귀
- 57 콩콩 부양
- 58 당신에게
- 59 우렁이 각시
- 60 아내에게 바치는 들꽃
- 61 내 다정한 친구
- 62 열마 담배
- 63 문자 메시지

차례 5

2부 꽃



- 66 환상하게 좋았던 순간
- 67 당신은 좋겠네
- 68 황당일기
- 70 사랑의 모양으로
- 71 사랑은
- 72 아내 중독증
- 73 나도 아내가 있다
- 74 산실비
- 75 산소공급
- 76 아내 이름
- 77 내 아내
- 78 여자와 남자
- 79 유구무연
- 80 속상함
- 81 사랑
- 82 qh(qh(호호))
- 83 하늘과 땅
- 84 꽃 따는 아내
- 85 그대
- 86 나같은 사람
- 87 야 들꽃 사랑
- 88 내비끼이션
- 89 열말 찾으러 가
- 90 금금해
- 91 함기치엄
- 92 그냥 사랑
- 93 해질녘 강가에서
- 94 부부
- 95 내 마음에 누가
- 96 내비 뒤벼러
- 97 예뻐 당신
- 98 부부싸움
- 99 참 좋은 사람
- 100 아내는
- 101 일기일회
- 102 아내에게 애인이
- 103 아내와 일마
- 104 빨래
- 105 상 받는 남편
- 106 첫사랑
- 107 슬피요
- 108 아름다운 모습
- 109 향기
- 110 절하행
- 111 얼굴
- 112 그대와 나
- 113 사랑이란
- 114 어느날 밤

3부 수정



- 116 시인의 아내
- 117 비둘기
- 118 당신은
- 119 행복
- 120 이름
- 121 부부
- 122 봄날
- 123 풀치병
- 124 그대는
- 125 영원한 사랑
- 126 사랑이 사랑아
- 127 살결
- 128 다리비질
- 129 집
- 130 하늘에는
- 131 웃음
- 132 비
- 133 싸움
- 134 꿈
- 135 옷겨
- 136 상사화
- 137 내 사람은
- 138 토끼와 거북이
- 139 흰 달빛
- 140 웃는 모습
- 141 어디신까
- 142 이름
- 143 발목
- 144 꽃과 아내
- 145 아내의 삶
- 146 우리집은
- 147 열색
- 148 보물
- 149 여자라는 꽃
- 150 포도송이
- 151 기회
- 152 사랑 여행
- 153 아직도
- 154 안경
- 155 빠르네
- 156 무서워
- 157 꽃 같은
- 158 변할없음
- 159 책 읽는
- 160 열병
- 161 개구리
- 162 애기머느리밤꽃
- 163 비 오는 날

차례 7

4부 진주



- 166 목포
- 167 동행
- 168 선택
- 169 당신을 생각하면
- 170 산에서
- 171 고독한 날
- 172 당신을 안으면
- 173 죽도리꽃
- 174 물고기 두 마리
- 175 속부쟁이
- 176 소나무
- 177 새 두 마리
- 178 새벽에
- 179 뒷모습
- 180 고마움
- 181 산국
- 182 한방
- 183 이리도 나는
- 184 어이할꼬
- 185 축복
- 186 소머리국밥
- 187 이 시간
- 188 반지
- 189 추운 날엔
- 190 나는요
- 191 는 감으면
- 192 나 미쳤나봐
- 193 그대
- 194 예쁨
- 195 꽃은
- 196 입맞춤
- 197 행복
- 198 절길
- 199 등반자
- 200 내 인생은
- 201 아를 때
- 202 아내와 꽃
- 203 뱃살
- 204 아내와 춤을
- 205 문득
- 206 아내의 손
- 207 그대는
- 208 제란
- 209 끈
- 210 냄새
- 211 이름
- 212 보석
- 213 빈

81 마태 예수어록



마태 예수어록 -마태가 듣고 최용우가 쓴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4.3.19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692쪽 옆구리/31.1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28,000원

ISBN: 978-89-24-12482-8

〈책소개〉

저는 어느 날 4복음서를 읽다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만이라도 모두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어록집'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4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은 마가가 그 어록집을 기초로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어록집과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씁니다. 신약학자들은 어록집이 복음서의 원천이라고 해서 Q문서(Quelle)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신 후 30년-40년이 지난 다음에 기억을 더듬어 복음서를 기록하려고 했을 때, 30년-40년 전의 기억이 제대로 나겠습니까? 다행히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어록집'이 있어서 그것을 기초로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방대한 양의 성경을 모두 묵상할 수는 없으니 그중에 '예수님의 말씀'만이라도 모두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빨간색으로 인쇄가 된 '예수님의 말씀' 구절을 모두 뽑아놓고 하루에 한 절씩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텍스트(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니'(히 4:12)라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목차〉

1. 마태복음 3장	7	14. 마태복음 16장	339
2. 마태복음 4장	11	15. 마태복음 17장	359
3. 마태복음 5장	19	16. 마태복음 18장	371
4. 마태복음 6장	67	17. 마태복음 19장	403
5. 마태복음 7장	103	18. 마태복음 20장	423
6. 마태복음 8장	131	19. 마태복음 21장	451
7. 마태복음 9장	143	20. 마태복음 22장	481
8. 마태복음 10장	161	21. 마태복음 23장	511
9. 마태복음 11장	201	22. 마태복음 24장	549
10. 마태복음 12장	229	23. 마태복음 25장	599
11. 마태복음 13장	263	24. 마태복음 26장	647
12. 마태복음 14장	311	25. 마태복음 27장	681
13. 마태복음 15장	317	26. 마태복음 28장	685

〈목상〉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사람의 관점이 있다. 사람의 관점은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우주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나 옳다. 그래서 믿음이란, 순종이란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하고 동의하는 것이다.

말씀에는 무조건 “예! 그렇습니다.”하고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어록>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된 동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모든 말씀에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싶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옳소이다’하고 동의하신 것처럼.

예수어록 시리즈

▼2023년 4월부 책 (2023년 3월 1. 1월말권부터 시리즈 12권 2. 2월부 책 3. 3월부 책 4. 4월부 책 5. 5월부 책 6. 6월부 책 7. 7월부 책 8. 8월부 책 9. 9월부 책 10. 10월부 책 11. 11월부 책 12. 12월부 책 13. 1월부 책 14. 2월부 책 15. 3월부 책 16. 4월부 책 17. 5월부 책 18. 6월부 책 19. 7월부 책 20. 8월부 책 21. 9월부 책 22. 10월부 책 23. 11월부 책 24. 12월부 책 25. 1월부 책 26. 2월부 책 27. 3월부 책 28. 4월부 책 29. 5월부 책 30. 6월부 책 31. 7월부 책 32. 8월부 책 33. 9월부 책 34. 10월부 책 35. 11월부 책 36. 12월부 책 37. 1월부 책 38. 2월부 책 39. 3월부 책 40. 4월부 책 41. 5월부 책 42. 6월부 책 43. 7월부 책 44. 8월부 책 45. 9월부 책 46. 10월부 책 47. 11월부 책 48. 12월부 책 49. 1월부 책 50. 2월부 책 51. 3월부 책 52. 4월부 책 53. 5월부 책 54. 6월부 책 55. 7월부 책 56. 8월부 책 57. 9월부 책 58. 10월부 책 59. 11월부 책 60. 12월부 책 61. 1월부 책 62. 2월부 책 63. 3월부 책 64. 4월부 책 65. 5월부 책 66. 6월부 책 67. 7월부 책 68. 8월부 책 69. 9월부 책 70. 10월부 책 71. 11월부 책 72. 12월부 책 73. 1월부 책 74. 2월부 책 75. 3월부 책 76. 4월부 책 77. 5월부 책 78. 6월부 책 79. 7월부 책 80. 8월부 책 81. 9월부 책 82. 10월부 책 83. 11월부 책 84. 12월부 책 85. 1월부 책 86. 2월부 책 87. 3월부 책 88. 4월부 책 89. 5월부 책 90. 6월부 책 91. 7월부 책 92. 8월부 책 93. 9월부 책 94. 10월부 책 95. 11월부 책 96. 12월부 책 97. 1월부 책 98. 2월부 책 99. 3월부 책 100. 4월부 책 101. 5월부 책 102. 6월부 책 103. 7월부 책 104. 8월부 책 105. 9월부 책 106. 10월부 책 107. 11월부 책 108. 12월부 책 109. 1월부 책 110. 2월부 책 111. 3월부 책 112. 4월부 책 113. 5월부 책 114. 6월부 책 115. 7월부 책 116. 8월부 책 117. 9월부 책 118. 10월부 책 119. 11월부 책 120. 12월부 책 121. 1월부 책 122. 2월부 책 123. 3월부 책 124. 4월부 책 125. 5월부 책 126. 6월부 책 127. 7월부 책 128. 8월부 책 129. 9월부 책 130. 10월부 책 131. 11월부 책 132. 12월부 책 133. 1월부 책 134. 2월부 책 135. 3월부 책 136. 4월부 책 137. 5월부 책 138. 6월부 책 139. 7월부 책 140. 8월부 책 141. 9월부 책 142. 10월부 책 143. 11월부 책 144. 12월부 책 145. 1월부 책 146. 2월부 책 147. 3월부 책 148. 4월부 책 149. 5월부 책 150. 6월부 책 151. 7월부 책 152. 8월부 책 153. 9월부 책 154. 10월부 책 155. 11월부 책 156. 12월부 책 157. 1월부 책 158. 2월부 책 159. 3월부 책 160. 4월부 책 161. 5월부 책 162. 6월부 책 163. 7월부 책 164. 8월부 책 165. 9월부 책 166. 10월부 책 167. 11월부 책 168. 12월부 책 169. 1월부 책 170. 2월부 책 171. 3월부 책 172. 4월부 책 173. 5월부 책 174. 6월부 책 175. 7월부 책 176. 8월부 책 177. 9월부 책 178. 10월부 책 179. 11월부 책 180. 12월부 책 181. 1월부 책 182. 2월부 책 183. 3월부 책 184. 4월부 책 185. 5월부 책 186. 6월부 책 187. 7월부 책 188. 8월부 책 189. 9월부 책 190. 10월부 책 191. 11월부 책 192. 12월부 책 193. 1월부 책 194. 2월부 책 195. 3월부 책 196. 4월부 책 197. 5월부 책 198. 6월부 책 199. 7월부 책 200. 8월부 책 201. 9월부 책 202. 10월부 책 203. 11월부 책 204. 12월부 책 205. 1월부 책 206. 2월부 책 207. 3월부 책 208. 4월부 책 209. 5월부 책 210. 6월부 책 211. 7월부 책 212. 8월부 책 213. 9월부 책 214. 10월부 책 215. 11월부 책 216. 12월부 책 217. 1월부 책 218. 2월부 책 219. 3월부 책 220. 4월부 책 221. 5월부 책 222. 6월부 책 223. 7월부 책 224. 8월부 책 225. 9월부 책 226. 10월부 책 227. 11월부 책 228. 12월부 책 229. 1월부 책 230. 2월부 책 231. 3월부 책 232. 4월부 책 233. 5월부 책 234. 6월부 책 235. 7월부 책 236. 8월부 책 237. 9월부 책 238. 10월부 책 239. 11월부 책 240. 12월부 책 241. 1월부 책 242. 2월부 책 243. 3월부 책 244. 4월부 책 245. 5월부 책 246. 6월부 책 247. 7월부 책 248. 8월부 책 249. 9월부 책 250. 10월부 책 251. 11월부 책 252. 12월부 책 253. 1월부 책 254. 2월부 책 255. 3월부 책 256. 4월부 책 257. 5월부 책 258. 6월부 책 259. 7월부 책 260. 8월부 책 261. 9월부 책 262. 10월부 책 263. 11월부 책 264. 12월부 책 265. 1월부 책 266. 2월부 책 267. 3월부 책 268. 4월부 책 269. 5월부 책 270. 6월부 책 271. 7월부 책 272. 8월부 책 273. 9월부 책 274. 10월부 책 275. 11월부 책 276. 12월부 책 277. 1월부 책 278. 2월부 책 279. 3월부 책 280. 4월부 책 281. 5월부 책 282. 6월부 책 283. 7월부 책 284. 8월부 책 285. 9월부 책 286. 10월부 책 287. 11월부 책 288. 12월부 책 289. 1월부 책 290. 2월부 책 291. 3월부 책 292. 4월부 책 293. 5월부 책 294. 6월부 책 295. 7월부 책 296. 8월부 책 297. 9월부 책 298. 10월부 책 299. 11월부 책 300. 12월부 책 301. 1월부 책 302. 2월부 책 303. 3월부 책 304. 4월부 책 305. 5월부 책 306. 6월부 책 307. 7월부 책 308. 8월부 책 309. 9월부 책 310. 10월부 책 311. 11월부 책 312. 12월부 책 313. 1월부 책 314. 2월부 책 315. 3월부 책 316. 4월부 책 317. 5월부 책 318. 6월부 책 319. 7월부 책 320. 8월부 책 321. 9월부 책 322. 10월부 책 323. 11월부 책 324. 12월부 책 325. 1월부 책 326. 2월부 책 327. 3월부 책 328. 4월부 책 329. 5월부 책 330. 6월부 책 331. 7월부 책 332. 8월부 책 333. 9월부 책 334. 10월부 책 335. 11월부 책 336. 12월부 책 337. 1월부 책 338. 2월부 책 339. 3월부 책 340. 4월부 책 341. 5월부 책 342. 6월부 책 343. 7월부 책 344. 8월부 책 345. 9월부 책 346. 10월부 책 347. 11월부 책 348. 12월부 책 349. 1월부 책 350. 2월부 책 351. 3월부 책 352. 4월부 책 353. 5월부 책 354. 6월부 책 355. 7월부 책 356. 8월부 책 357. 9월부 책 358. 10월부 책 359. 11월부 책 360. 12월부 책 361. 1월부 책 362. 2월부 책 363. 3월부 책 364. 4월부 책 365. 5월부 책 366. 6월부 책 367. 7월부 책 368. 8월부 책 369. 9월부 책 370. 10월부 책 371. 11월부 책 372. 12월부 책 373. 1월부 책 374. 2월부 책 375. 3월부 책 376. 4월부 책 377. 5월부 책 378. 6월부 책 379. 7월부 책 380. 8월부 책 381. 9월부 책 382. 10월부 책 383. 11월부 책 384. 12월부 책 385. 1월부 책 386. 2월부 책 387. 3월부 책 388. 4월부 책 389. 5월부 책 390. 6월부 책 391. 7월부 책 392. 8월부 책 393. 9월부 책 394. 10월부 책 395. 11월부 책 396. 12월부 책 397. 1월부 책 398. 2월부 책 399. 3월부 책 400. 4월부 책 401. 5월부 책 402. 6월부 책 403. 7월부 책 404. 8월부 책 405. 9월부 책 406. 10월부 책 407. 11월부 책 408. 12월부 책 409. 1월부 책 410. 2월부 책 411. 3월부 책 412. 4월부 책 413. 5월부 책 414. 6월부 책 415. 7월부 책 416. 8월부 책 417. 9월부 책 418. 10월부 책 419. 11월부 책 420. 12월부 책 421. 1월부 책 422. 2월부 책 423. 3월부 책 424. 4월부 책 425. 5월부 책 426. 6월부 책 427. 7월부 책 428. 8월부 책 429. 9월부 책 430. 10월부 책 431. 11월부 책 432. 12월부 책 433. 1월부 책 434. 2월부 책 435. 3월부 책 436. 4월부 책 437. 5월부 책 438. 6월부 책 439. 7월부 책 440. 8월부 책 441. 9월부 책 442. 10월부 책 443. 11월부 책 444. 12월부 책 445. 1월부 책 446. 2월부 책 447. 3월부 책 448. 4월부 책 449. 5월부 책 450. 6월부 책 451. 7월부 책 452. 8월부 책 453. 9월부 책 454. 10월부 책 455. 11월부 책 456. 12월부 책 457. 1월부 책 458. 2월부 책 459. 3월부 책 460. 4월부 책 461. 5월부 책 462. 6월부 책 463. 7월부 책 464. 8월부 책 465. 9월부 책 466. 10월부 책 467. 11월부 책 468. 12월부 책 469. 1월부 책 470. 2월부 책 471. 3월부 책 472. 4월부 책 473. 5월부 책 474. 6월부 책 475. 7월부 책 476. 8월부 책 477. 9월부 책 478. 10월부 책 479. 11월부 책 480. 12월부 책 481. 1월부 책 482. 2월부 책 483. 3월부 책 484. 4월부 책 485. 5월부 책 486. 6월부 책 487. 7월부 책 488. 8월부 책 489. 9월부 책 490. 10월부 책 491. 11월부 책 492. 12월부 책 493. 1월부 책 494. 2월부 책 495. 3월부 책 496. 4월부 책 497. 5월부 책 498. 6월부 책 499. 7월부 책 500. 8월부 책 501. 9월부 책 502. 10월부 책 503. 11월부 책 504. 12월부 책 505. 1월부 책 506. 2월부 책 507. 3월부 책 508. 4월부 책 509. 5월부 책 510. 6월부 책 511. 7월부 책 512. 8월부 책 513. 9월부 책 514. 10월부 책 515. 11월부 책 516. 12월부 책 517. 1월부 책 518. 2월부 책 519. 3월부 책 520. 4월부 책 521. 5월부 책 522. 6월부 책 523. 7월부 책 524. 8월부 책 525. 9월부 책 526. 10월부 책 527. 11월부 책 528. 12월부 책 529. 1월부 책 530. 2월부 책 531. 3월부 책 532. 4월부 책 533. 5월부 책 534. 6월부 책 535. 7월부 책 536. 8월부 책 537. 9월부 책 538. 10월부 책 539. 11월부 책 540. 12월부 책 541. 1월부 책 542. 2월부 책 543. 3월부 책 544. 4월부 책 545. 5월부 책 546. 6월부 책 547. 7월부 책 548. 8월부 책 549. 9월부 책 550. 10월부 책 551. 11월부 책 552. 12월부 책 553. 1월부 책 554. 2월부 책 555. 3월부 책 556. 4월부 책 557. 5월부 책 558. 6월부 책 559. 7월부 책 560. 8월부 책 561. 9월부 책 562. 10월부 책 563. 11월부 책 564. 12월부 책 565. 1월부 책 566. 2월부 책 567. 3월부 책 568. 4월부 책 569. 5월부 책 570. 6월부 책 571. 7월부 책 572. 8월부 책 573. 9월부 책 574. 10월부 책 575. 11월부 책 576. 12월부 책 577. 1월부 책 578. 2월부 책 579. 3월부 책 580. 4월부 책 581. 5월부 책 582. 6월부 책 583. 7월부 책 584. 8월부 책 585. 9월부 책 586. 10월부 책 587. 11월부 책 588. 12월부 책 589. 1월부 책 590. 2월부 책 591. 3월부 책 592. 4월부 책 593. 5월부 책 594. 6월부 책 595. 7월부 책 596. 8월부 책 597. 9월부 책 598. 10월부 책 599. 11월부 책 600. 12월부 책 601. 1월부 책 602. 2월부 책 603. 3월부 책 604. 4월부 책 605. 5월부 책 606. 6월부 책 607. 7월부 책 608. 8월부 책 609. 9월부 책 610. 10월부 책 611. 11월부 책 612. 12월부 책 613. 1월부 책 614. 2월부 책 615. 3월부 책 616. 4월부 책 617. 5월부 책 618. 6월부 책 619. 7월부 책 620. 8월부 책 621. 9월부 책 622. 10월부 책 623. 11월부 책 624. 12월부 책 625. 1월부 책 626. 2월부 책 627. 3월부 책 628. 4월부 책 629. 5월부 책 630. 6월부 책 631. 7월부 책 632. 8월부 책 633. 9월부 책 634. 10월부 책 635. 11월부 책 636. 12월부 책 637. 1월부 책 638. 2월부 책 639. 3월부 책 640. 4월부 책 641. 5월부 책 642. 6월부 책 643. 7월부 책 644. 8월부 책 645. 9월부 책 646. 10월부 책 647. 11월부 책 648. 12월부 책 649. 1월부 책 650. 2월부 책 651. 3월부 책 652. 4월부 책 653. 5월부 책 654. 6월부 책 655. 7월부 책 656. 8월부 책 657. 9월부 책 658. 10월부 책 659. 11월부 책 660. 12월부 책 661. 1월부 책 662. 2월부 책 663. 3월부 책 664. 4월부 책 665. 5월부 책 666. 6월부 책 667. 7월부 책 668. 8월부 책 669. 9월부 책 670. 10월부 책 671. 11월부 책 672. 12월부 책 673. 1월부 책 674. 2월부 책 675. 3월부 책 676. 4월부 책 677. 5월부 책 678. 6월부 책 679. 7월부 책 680. 8월부 책 681. 9월부 책 682. 10월부 책 683. 11월부 책 684. 12월부 책 685. 1월부 책 686. 2월부 책 687. 3월부 책 688. 4월부 책 689. 5월부 책 690. 6월부 책 691. 7월부 책 692. 8월부 책 693. 9월부 책 694. 10월부 책 695. 11월부 책 696. 12월부 책 697. 1월부 책 698. 2월부 책 699. 3월부 책 700. 4월부 책 701. 5월부 책 702. 6월부 책 703. 7월부 책 704. 8월부 책 705. 9월부 책 706. 10월부 책 707. 11월부 책 708. 12월부 책 709. 1월부 책 710. 2월부 책 711. 3월부 책 712. 4월부 책 713. 5월부 책 714. 6월부 책 715. 7월부 책 716. 8월부 책 717. 9월부 책 718. 10월부 책 719. 11월부 책 720. 12월부 책 721. 1월부 책 722. 2월부 책 723. 3월부 책 724. 4월부 책 725. 5월부 책 726. 6월부 책 727. 7월부 책 728. 8월부 책 729. 9월부 책 730. 10월부 책 731. 11월부 책 732. 12월부 책 733. 1월부 책 734. 2월부 책 735. 3월부 책 736. 4월부 책 737. 5월부 책 738. 6월부 책 739. 7월부 책 740. 8월부 책 741. 9월부 책 742. 10월부 책 743. 11월부 책 744. 12월부 책 745. 1월부 책 746. 2월부 책 747. 3월부 책 748. 4월부 책 749. 5월부 책 750. 6월부 책 751. 7월부 책 752. 8월부 책 753. 9월부 책 754. 10월부 책 755. 11월부 책 756. 12월부 책 757. 1월부 책 758. 2월부 책 759. 3월부 책 760. 4월부 책 761. 5월부 책 762. 6월부 책 763. 7월부 책 764. 8월부 책 765. 9월부 책 766. 10월부 책 767. 11월부 책 768. 12월부 책 769. 1월부 책 770. 2월부 책 771. 3월부 책 772. 4월부 책 773. 5월부 책 774. 6월부 책 775. 7월부 책 776. 8월부 책 777. 9월부 책 778. 10월부 책 779. 11월부 책 780. 12월부 책 781. 1월부 책 782. 2월부 책 783. 3월부 책 784. 4월부 책 785. 5월부 책 786. 6월부 책 787. 7월부 책 788. 8월부 책 789. 9월부 책 790. 10월부 책 791. 11월부 책 792. 12월부 책 793. 1월부 책 794. 2월부 책 795. 3월부 책 796. 4월부 책 797. 5월부 책 798. 6월부 책 799. 7월부 책 800. 8월부 책 801. 9월부 책 802. 10월부 책 803. 11월부 책 804. 12월부 책 805. 1월부 책 806. 2월부 책 807. 3월부 책 808. 4월부 책 809. 5월부 책 810. 6월부 책 811. 7월부 책 812. 8월부 책 813. 9월부 책 814. 10월부 책 815. 11월부 책 816. 12월부 책 817. 1월부 책 818. 2월부 책 819. 3월부 책 820. 4월부 책 821. 5월부 책 822. 6월부 책 823. 7월부 책 824. 8월부 책 825. 9월부 책 826. 10월부 책 827. 11월부 책 828. 12월부 책 829. 1월부 책 830. 2월부 책 831. 3월부 책 832. 4월부 책 833. 5월부 책 834. 6월부 책 835. 7월부 책 836. 8월부 책 837. 9월부 책 838. 10월부 책 839. 11월부 책 840. 12월부 책 841. 1월부 책 842. 2월부 책 843. 3월부 책 844. 4월부 책 845. 5월부 책 846. 6월부 책 847. 7월부 책 848. 8월부 책 849. 9월부 책 850. 10월부 책 851. 11월부 책 852. 12월부 책 853. 1월부 책 854. 2월부 책 855. 3월부 책 856. 4월부 책 857. 5월부 책 858. 6월부 책 859. 7월부 책 860. 8월부 책 861. 9월부 책 862. 10월부 책 863. 11월부 책 864. 12월부 책 865. 1월부 책 866. 2월부 책 867. 3월부 책 868. 4월부 책 869. 5월부 책 870. 6월부 책 871. 7월부 책 872. 8월부 책 873. 9월부 책 874. 10월부 책 875. 11월부 책 876. 12월부 책 877. 1월부 책 878. 2월부 책 879. 3월부 책 880. 4월부 책 881. 5월부 책 882. 6월부 책 883. 7월부 책 884. 8월부 책 885. 9월부 책 886. 10월부 책 887. 11월부 책 888. 12월부 책 889. 1월부 책 890. 2월부 책 891. 3월부 책 892. 4월부 책 893. 5월부 책 894. 6월부 책 895. 7월부 책 896. 8월부 책 897. 9월부 책 898. 10월부 책 899. 11월부 책 900. 12월부 책 901. 1월부 책 902. 2월부 책 903. 3월부 책 904. 4월부 책 905. 5월부 책 906. 6월부 책 907. 7월부 책 908. 8월부 책 909. 9월부 책 910. 10월부 책 911. 11월부 책 912. 12월부 책 913. 1월부 책 914. 2월부 책 915. 3월부 책 916. 4월부 책 917. 5월부 책 918. 6월부 책 919. 7월부 책 920. 8월부 책 921. 9월부 책 922. 10월부 책 923. 11월부 책 924. 12월부 책 925. 1월부 책 926. 2월부 책 927. 3월부 책 928. 4월부 책 929. 5월부 책 930. 6월부 책 931. 7월부 책 932. 8월부 책 933. 9월부 책 934. 10월부 책 935. 11월부 책 936. 12월부 책 937. 1월부 책 938. 2월부 책 939. 3월부 책 940. 4월부 책 941. 5월부 책 942. 6월부 책 943. 7월부 책 944. 8월부 책 945. 9월부 책 946. 10월부 책 947. 11월부 책 948. 12월부 책 949. 1월부 책 950. 2월부 책 951. 3월부 책 952. 4월부 책 953. 5월부 책 954. 6월부 책 955. 7월부 책 956. 8월부 책 957. 9월부 책 958. 10월부 책 959. 11월부 책 960. 12월부 책 961. 1월부 책 962. 2월부 책 963. 3월부 책 964. 4월부 책 965. 5월부 책 966. 6월부 책 967. 7월부 책 968. 8월부 책 969. 9월부 책 970. 10월부 책 971. 11월부 책 972. 12월부 책 973. 1월부 책 974. 2월부 책 975. 3월부 책 976. 4월부 책 977. 5월부 책 978. 6월부 책 979. 7월부 책 980. 8월부 책 981. 9월부 책 982. 10월부 책 983. 11월부 책 984. 12월부 책 985. 1월부 책 986. 2월부 책 987. 3월부 책 988. 4월부 책 989. 5월부 책 990. 6월부 책 991. 7월부 책 992. 8월부 책 993. 9월부 책 994. 10월부 책 995. 11월부 책 996. 12월부 책 997. 1월부 책 998. 2월부 책 999. 3월부 책 1000. 4월부 책 1001. 5월부 책 1002. 6월부 책 1003. 7월부 책 1004. 8월부 책 1005. 9월부 책 1006. 10월부 책 1007. 11월부 책 1008. 12월부 책 1009. 1월부 책 1010. 2월부 책 1011. 3월부 책 1012. 4월부 책 1013. 5월부 책 1014. 6월부 책 1015. 7월부 책 1016. 8월부 책 1017. 9월부 책 1018. 10월부 책 1019. 11월부 책 1020. 12월부 책 1021. 1월부 책 1022. 2월부 책 1023. 3월부 책 1024. 4월부 책 1025. 5월부 책 1026. 6월부 책 1027. 7월부 책 1028. 8월부 책 1029. 9월부 책 1030. 10월부 책 1031. 11월부 책 1032. 12월부 책 1033. 1월부 책 1034. 2월부 책 1035. 3월부 책 1036. 4월부 책 1037. 5월부 책 1038. 6월부 책 1039. 7월부 책 1040. 8월부 책 1041. 9월부 책 1042. 10월부 책 1043. 11월부 책 1044. 12월부 책 1045. 1월부 책 1046. 2월부 책 1047. 3월부 책 1048. 4월부 책 1049. 5월부 책 1050. 6월부 책 1051. 7월부 책 1052. 8월부 책 1053. 9월부 책 1054. 10월부 책 1055. 11월부 책 1056. 12월부 책 1057. 1월부 책 1058. 2월부 책 1059. 3월부 책 1060. 4월부 책 1061. 5월부 책 1062. 6월부 책 1063. 7월부 책 1064. 8월부 책 1065. 9월부 책 1066. 10월부 책 1067. 11월부 책 1068. 12월부 책 1069. 1월부 책 1070. 2월부 책 1071. 3월부 책 1072. 4월부 책 1073. 5월부 책 1074. 6월부 책 1075. 7월부 책 1076. 8월부 책 1077. 9월부 책 1078. 10월부 책 1079. 11월부 책 1080. 12월부 책 1081. 1월부 책 1082. 2월부 책 1083. 3월부 책 1084. 4월부 책 1085. 5월부 책 1086. 6월부 책 1087. 7월부 책 1088. 8월부 책 1089. 9월부 책 1090.

82 성동-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햇별23)



성동-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4.5.28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318쪽 옆구리/14.3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5,000원

ISBN: 978-89-24-12819-2

〈책소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가 흐를수록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자신을 경험시켜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음성’으로 함께 하였고, 신약시대에는 사람의 ‘몸’으로 직접 함께하셨고,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만날 수 있기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에게 문을 열어 드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고전12:3)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지 아닌지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은 신자이고(요15:26,16:14)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이 무엇이든지 그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드러낼 수도 없고, 또 교회의 일을 해도 ‘육신으로’ 하기에 자신만 드러냅니다. 신자는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82번째 책을 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고요히 제 자신의 부족과 무지를 살피며, 그저 주어진 저의 길을 겸손히 묵묵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부끄러운 책을 추천해주신 최윤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5.28 인우재(仁雨齋)에서

83 오두막 일기 (일기15컬러)



오두막 일기 -햇별이 머무는 집 (일기15)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4.7.11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백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398쪽 옆구리/17.9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24,000원

ISBN: 978-89-24-13063-8

<책소개> 오두막 추억

옛날 제가 태어나 국민학교 첫 번째 1학년때까지 살았던 집은 지금은 헐리고 없습니다. 제가 태어난 집은 아주 작은 오두막집이었는데 초가지붕이었습니다. 방은 두 개에 문과 벽이 없어 행하고 밖으로 드러난 부엌 하나, 그리고 넓은 마당 건너에 염소를 키우던 허청이 있었고, 장독대가 있었고 커다란 감나무 몇 그루에 제법 넓은 텃밭이 집 앞뒤로 있었습니다. 무 배추, 고구마, 아욱, 상추, 오이같은 채소는 거의 모두 밭에서 거두어 먹었습니다.

돌로 쌓은 돌담을 따라 앵두나무, 보리수나무, 대추나무, 밤나무, 가을마다 노란 국화가 피었고 여름에는 돌담을 타고 기대어 놓은 나뭇가지에 오이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돌담 위로는 가을이면 노란 호박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은 아궁이에 무쇠솥이 걸려있었고 아주 작은 마루가 있었는데 마루에 앉아있거나 드러누우면 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비와 벌은 꽃을 찾아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나나리벌은 흙집 어디에 집을 지으려고 기웃거리고, 지내도 지나가고, 콩벌레도 지나가고, 처마 밑에는 제비가 집을 짓고, 누렁개는 하품을 하고, 담장 위로 고양이는 소리 없이 지나가고, 참새가 짹짹거리는 집이었습니다.

상상이 안 된다면 시편104편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7월에 83번째 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두막 식구들 인숙, 좋은, 밝은,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을 시작한 아우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사랑해요!”

<목차>

1월 침묵의 달	5월 양보의 달	9월 마실의 달
2월 겸손의 달	6월 섬김의 달	10월 여행의 달
3월 온유의 달	7월 휴가의 달	11월 수덕의 달
4월 순종의 달	8월 환대의 달	12월 아내에게 바치는 달

1월

침묵의 달




매주 피내는 주보(송)의 표지사진




1월 9



1. 갑자기 시작된 새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5시 이전에 일어나는 것이 기본중에 기본이라는 글을 읽고 나도 그렇게 살기로 원칙을 딱 정했다. 그리고 정말로 지난해엔 딱 하루 빼고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연말이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다 보니 마지막 날 밤 11시가 넘었다. 어쨌든 잠자리에 드는 것은 해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던 일 딱 멈추고 도무지를 하듯 잠자리에 뛰어들었다. 교회 예서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카톡! 카톡! 카톡! 해가 바뀌는 순간 사람들이 새해 축하 카톡을 보낸 것 같다. 그러던 말든... 난 지금 코~ 자는 중이야.

새해 첫날, 별람없이 4시 50분에 일어나 아내(예수여류) 딸음을 묵상 하며 아침을 딱 맞이했다.

10 오두막 '일기'



4. 친근한 고양이

어릴적부터 동네 개들이란 개들은 죄다 물고 다니던 작은말이 지금은 동네 고양이들을 죄다 물고 다닌다. 시골에서는 개를 풀어 키우기에 지참대로 돌아다니는 개들이 많은데, 도시에서는 끈에 묶어서 주인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 개나 만지면 안된다.

그래서 개 대신 이제는 동네 고양이들과 친해져서 고양이들을 죄다 쓰다듬고 다닌다. 유독 개나 고양이가 떠르는 사람이 있다. 음... 내 생각에는 개나 고양이라도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번 사람은 좋아하고 미운 사람은... 쾅!

개나 고양이가 나를 보는 눈빛은 작말을 보는 눈빛하고 사뭇 다르다. 배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개나 고양이를이 나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다. 내가 맛있게 생긴 사람으로 보이지 않음 즐린다. 나도 너그를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조심해.

1월 13



당신을 뵙니다.

5. 아바타2

방학을 맞이하여 얼마의 사람~ 바라리라 차에 싣고 아침 일찍 출발하여 서울에 사는 딸을 집에 올라갔다. "어디쯤 오세요?" 하고 카톡이 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얼마 온다고 부라부라 잠만 침소하고 정리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보다."

거의 3시간 걸려 12시 30분에 도착! 침실을 먹고 오후에 '아바타 2' 영화를 보기로 했다. 흥신덕덕 예기박스 예. 오랜만에 가족들이 주부부 앉아서 '가족영화 보기'를 했다. 상영시간이 3시간이나 되어 중간에 오줌 마려움과 화 음료수도 안 먹고 참았다.

3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몰입해서 잘 봤다. 1편이 워낙 강렬한 인상을 주어서 그런지 2편은 대충 예감이 되는 스토리와 세계관이 있다. 그것을 더 화려해진 그래픽과 특수효과로 채운 것 같았다. 아바타2,3,4,5,편을 동시에 봐겠다고 한다.

14 오두막 '일기'

84 일상의 기적 (시12컬러)



일상의 기적 -최용우 12시집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4.8.9

카테고리/ 시.에세이 /한국시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210쪽 옆구리/10.4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5,000원

ISBN: 978-89-24-132304

〈책소개〉 평화로운 일상... 그리고 기적

나는 야생초 무성하고
발에 자갈이 채이는 시골길이나 흙길을 걸을 때
발바닥에 느껴지는 그 감촉이 참 좋다.
사람들은 물 위로 건너나 공중 부양 정도는 해야
'기적'이라고 하겠지만
나는 '내가 땅 위를 두 발로
뚜벅뚜벅 걷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생각한다.
내가 두 발로 시골길이나 흙길을 걸을 때,
하늘은 파랗고 흰 구름이 흘러가며
길가엔 온갖 야생화들이 화려하고
멀리서 소똥 냄새가 솔솔 풍기는...
아, 얼마나 황홀하고 기적 같은 순간인가!

이 시집은 특별한 형식 없이
아무 때나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그저 단순하게 받아 적어놓은 시 중에서
한 권 분량을 추렸다.
그래서 그저 단순하게 읽고 잊어버리면 된다.



〈목차〉

1부 민족 -모지람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 -48편의 시

10.민족 11.쓴 양 12.아프다 13.무심 14.마음 15.날씨 16.병원 17.바위 18.결혼
19.일몰 20.만사록 21.방해 22.좋은 날 23.행복 24.얼굴 25.보석 26.진리 27.사랑
28.설교는 29.행복 30.다스리기 31.순간 32.낙엽 33.그림자 34.인연 35.오염 36.
생각 37.화살 38.영글 39.웃는 얼굴 40.새벽별 41.구절초 42.평화로우 43.지난
44.염색 45.콧마 46.소꿉친구 47.여유 48.비결 49.존경 50.품격 51.허물 52.거울
53.교훈 54.같은 생각 55.성경 56.씨앗 57.빨간 날

2부 고요 -마음이 고요하면 온 세상이 평화롭네 -48편의 시

60.고요 61.뚝 62.말그릇 63.밝은 달 64.상담 65.좌선 66.어떤 사람 67.몰라 68.
길을 가다 69.가을날 70.참 71.몸맘 72.군고구마 73.통 74.서리 75.네 삶 76.지혜
77.명품 78.일 79.노을 80.사과 81.바람 82.세월 83.가을비 84.오일장 85.얼굴
86.수능일 87.허공 88.오늘이 89.항상 90.오늘은 91.단풍 92.겨울비 93.바보처럼
94.회개 95.웃는 사람 96.달 97.길 98.이유 99.편견 100.응응 101.생각 102.황홀
103.날개 104.허술 105.물과 공기 106.얇 107.살려고

3부 시인 -시를 쓰려고 끙끙대면 똥만 마렵다 -48편의 시

110.알수없네 111.예수 112.시인 113.눈 114.고구마 115.그리움 116.동지 117.
붕어빵 118.성탄 118.평화 120.무능 121.사과 122.벗 123.마지막 124.새해 125.
지구 126.밝은 달 127.엄마 128.호숫가에 129.기러기 130.십년 131.양심 132.사
이에 133.별 134.추위 135.응답하라 136.고구마 137.오일장 138.양보 139.햇떡
140.모든 일 141.겨울 산 142.명품 143.성인 144.겨울바람 145.함박눈 146.침몰
147.산책 148.행복 149.예배 시간 150.말 151.설 152.무엇 153.탓 154.나만이라
도 155.내 소망 156.예수 웃음 157.예수 마음

4부 여행 -나의 긴긴 여행길에 다정한 동반자는 -48편의 시

160.여행 161.눈꽃나무 162.고백 163.찬양 164.엄마 사랑 165.졸업 166.예배
167.추위 168.김치찌개 169.응답 170.온수매트 171.시루떡 172.은행 173.선물
174.길 175.꽃샘추위 176.말씀 177.성령님 178.면도 179.장수 180.보물 181.코블
소 182.다만 183.고양이 184.봄비 185.사랑아 186.봄 187.나그네 188.남 이야기
189.좋다 190.스르르 191.쪽팔려 192.봄꽃 193.이제 194.파란 195.춘곤증 196.차
이 197.용서 198.엄마 199.오감사 200.한적한 곳 201.고기 202.동백꽃 203.커피
포트 204.삶을 205.괜찮아? 206.기억 207.하늘

85 마가 예수어록



마가 예수어록-마가가 들고 최용우가 쓴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4.8.30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신국판(152x225)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흑백)

페이지/324쪽 옆구리/14.6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5,000원

ISBN: 978-89-24-133813

〈책소개〉

저는 어느 날 4복음서를 읽다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만이라도 모두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어록집'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4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은 마가가 그 어록집을 기초로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어록집과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씁니다. 신약학자들은 어록집이 복음서의 원천이라고 해서 Q문서(Quelle)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신 후 30년-40년이 지난 다음에 기억을 더듬어 복음서를 기록하려고 했을 때, 30년-40년 전의 기억이 제대로 나겠습니까? 다행히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어록집'이 있어서 그것을 기초로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방대한 양의 성경을 모두 묵상할 수는 없으니 그중에 '예수님의 말씀'만이라도 모두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빨간색으로 인쇄가 된 '예수님의 말씀' 구절을 모두 뽑아놓고 하루에 한 절씩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텍스트(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니'(히 4:12)라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목차〉

- | | |
|-----------|-------------|
| 1.마카복음 1장 | 9.마카복음 9장 |
| 2.마카복음 2장 | 10.마카복음 10장 |
| 3.마카복음 3장 | 11.마카복음 11장 |
| 4.마카복음 4장 | 12.마카복음 12장 |
| 5.마카복음 5장 | 13.마카복음 13장 |
| 6.마카복음 6장 | 14.마카복음 14장 |
| 7.마카복음 7장 | 15.마카복음 15장 |
| 8.마카복음 8장 | 16.마카복음 16장 |

〈목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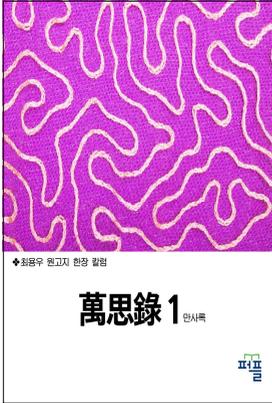
‘깨달으라’는 뜻이 무엇일까? 공동번역은 ‘새겨 들어라.’ 메시지성경은 ‘새겨 두어 라’로 번역했고 루터는 ‘붙잡으라(fassen)’고 했다. 아마도 ‘깨달음’이 무엇인지는 스님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들은 평생 깨달음을 위해 수도정진하며 살기 때문이다. 그들은 깨달음이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한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깨달음에 관한 것, ‘깨달음’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깨달음 자체는 아니다. 깨달음은 원리를 적용하여 스스로 도달하여야 할 어떤 경지이다. 대충 아는 것으로는 평생 깨달을 수 없다.



〈예수 어록〉시리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네 권입니다.

86 만사록 1권



만사록 1권 -최용우 원고지 한장 칼럼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4.10.11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페 210g 무광(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흑백)

페이지/304쪽 옆구리/13.7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15,000원

ISBN: 978-89-24-137217

<책소개> 만가지 생각

나는 평생 문서를 편집하면서 살았는데, 원고가 분량에 딱 맞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페이지에 빈 여백이 남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그 여백에 맞는 길이의 '유머'나 '토막글'을 써서 넣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한 숨에 읽을 수 있는 토막글을 더 기억하고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아예 '200자 원고지 한 장' 길이의 토막글만 쓴 페이지를 따로 만들기도 했었다. 아마도 그것이 '만사록'을 쓰게 된 동기이지 싶다.

이후 수도권에서 영성수련을 하며 내 마음속에는 정말로 '5만가지 생각'이라는 것이 '분심(생각의 가루)'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기도를 하면 마치 밤하늘의 별 가루처럼 마음속 가득 생각들이 둥둥 떠다녔다.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잡아서 마음에 착상을 시키면 그것이 한편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었다. 마치 3억개의 정자중에 하나가 난자를 만나면 한 사람이 되어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신비로움이었다.

어느 날 청탁받은 글 한 편을 쓰려는데 막막했다. 그래서 이전에 무심코 써 놓은 토막글 하나를 뽑아 엮기락 늘리듯 늘렸더니 훌륭한 글 한 편이 써졌다. 갑자기 내 마음속에 있는 5만가지 생각들을 한 1만개쯤 잡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만 가지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만 가지 생각 즉, 만사록(萬思錄)이다.

〈목차〉

1부 생각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두 가지 인데, 하나는 매일 만나고 보는 주위의 평범한 일상이며, 다른 하나는 그 일상을 사고(思考)하는 나입니다. 숲속을 걸어가는 시인, 고고학자, 나무꾼은 완전 다른 세 가지의 세계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서도 만날 수 없습니다.

2부 열매

포도나무에서 알이 굵고 잘 익은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봄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하고 좋은 열매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열매는 열매 속아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지치기와 열매숙기에서 이미 하나님께 선택되어 살아남았으니(요15:3) 이제 우리는 굵고 실한 열매를 맺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가지에 잘 달라붙어 열심히 영양분을 잘 섭취하는 것입니다.

3부 선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요3:1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징표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최고의 선물을 마다하고 다른 것을 달라고 합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구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고 세상 축복을 구합니다.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부 행복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해도 보통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행복 저래도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지 말라고 해도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87 들꽃편지21권(컬러)



들꽃편지 제21권 쓱삭꽃호

저자/ 최용우 출판일자/ 2024.11.15.

카테고리/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A5 국판(148x210)

표지/아르떼 210g 무광 (컬러)

내지/미색모조 80g(대중적 컬러)

페이지/510쪽 옆구리/22.9mm

출판사/교보문고 퍼플 판매가/31,000원

ISBN: 978-89-24-

〈책소개〉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 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 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햇볕같은이야기(<https://cyw.pe.kr>) 발행인 최용우가 일상 속에서 건져 올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와, 주변 사람들의 글, 그리고 너무 난해하고 지적인 말씀 연구가 가득한 이 시대에, 방금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팔딱 거리는 싱싱한 묵상의 말씀, 속 깊은 신앙적인 고민들을 거침없이 털어놓은 ‘광야에 서 외치는 자의 편지’입니다.

〈들꽃편지〉는 만남의 설레임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띄우는 작은 한송이 꽃 같은 편지입니다. 들꽃편지는 ‘생활영성’ ‘쉽’ ‘나눔’을 추구하며, 그런 풍요로움 을 느끼고 따라 사는 소박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미소가 빙그 레 번지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 지입니다. 〈들꽃편지 제21권〉은 제652호(2023.5월)부터 제669호(2024.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매월 발행한 18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임이 제한되었을 때, 우리는 주일 오전 9시 예배 를 마치고 같은 세종시이지만 차로 40분 거리인 처가에 달려가서 장모님을 모시고 가족 점심을 하기 시작하여 벌써 1년 6개월이 되어갑니다. 요리사가 세 명이냐 되니 매주 화려한 만찬이 펼쳐지고 가끔 한식뷔페식당에 가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매월 만들어서 전국에 띄웠던 월간〈들꽃편지〉를 모았습니다.

월간<들꽃편지> 제652호-제669호 표지모음



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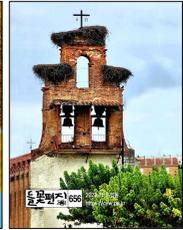
653



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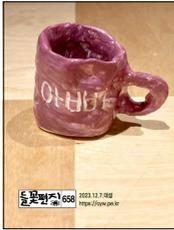
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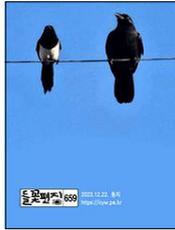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최용우 책 교보문고 책구입 링크

1<햇빛같은이야기>시리즈

- 1.칼럼11<가슴을 짝 펴라>308쪽 11600원 <https://c11.kr/06yw>
- 2.칼럼12<다시 별떡 일어나라>336쪽 12400원 <https://c11.kr/07yw>
- 3.칼럼13<정정당당 잘 살자>336쪽 12400원 <https://c11.kr/08yw>
- 4.칼럼14<예수 잘 믿는 비결>326쪽 12100원 <https://c11.kr/09yw>
- 5.칼럼15<가장 큰 선물>326쪽 12100원 <https://c11.kr/010yw>
- 6.칼럼16<인생 최대의 행복>316쪽 11800원 <https://c11.kr/012yw>
- 7.칼럼17<나도 할 말 있다 나옹>318쪽 11900원 <https://c11.kr/016yw>
- 8.칼럼18<하나님의 얼굴>326쪽 12100원 <https://c11.kr/018yw>
- 9.칼럼19<예수님을 따르는 삶>328쪽 12200원 <https://c11.kr/023yw>
- 10.칼럼20<예수 나의 형통>330쪽 12200원 <https://c11.kr/027yw>
- 11.칼럼21<하동-하나님과 동행하는 삶>320쪽 14300원 <https://c11.kr/031yw>
- 12.칼럼22<예동-예수님과 동행하는 삶>326쪽 14600원 <https://c11.kr/039yw>
- 13.칼럼23<성동-성령님과 동행하는 삶>318쪽 15000원 <https://vo.la/xYamE>

2<일기>시리즈

- 14.일기7<감사일기>392쪽 14100원 <https://c11.kr/01yw>
- 15.일기8<햇빛일기>396쪽 14100원 <https://c11.kr/019yw>
- 16.일기9<행복일기>396쪽 14200원 <https://c11.kr/022yw>
- 17.일기10<풍경일기>400쪽 14300원 <https://c11.kr/026yw>
- 18.일기11<명랑일기>396쪽 15200원 <https://c11.kr/029yw>
- 19.일기12<바보일기>394쪽 23900원(컬러) <https://c11.kr/033yw>
- 20.일기13<웃긴일기>396쪽 23800원(컬러) <https://c11.kr/053yw>
- 21.일기14<여유일기>396쪽 23800원(컬러) <https://vo.la/a8EcZ>
- 22.일기15<오두막일기>398쪽 24000(컬러) <https://vo.la/SRUAL>

3<시집>시리즈

- 23.詩1<숲속의 아침>138쪽 7200원 <https://c11.kr/011yw>
- 24.詩2<של레임>146쪽 6700원 <https://c11.kr/015yw>
- 25.詩3<어부동의 아침>150쪽 7600원 <https://c11.kr/017yw>
- 26.詩4<내 영혼이 주를 찬양>398쪽 16300원 <https://c11.kr/02yw>
- 27.詩5<찬양하라 내영혼아>398쪽 14300원 <https://c11.kr/024yw>
- 28.詩6<천변을 부른주님...>1044쪽 34600원 <https://c11.kr/028yw>
- 29.詩7<우리 커피한잔 할까요?>168쪽11,300원(컬러) <https://c11.kr/032yw>
- 30.詩8<일상의 행복>210쪽13,600원(컬러) <https://c11.kr/036yw>

31. 詩9〈일출봉에 햇별이 쨍하오〉210쪽 13,600원(컬러) <https://c11.kr/037yw>
 32. 詩10〈일상의 기쁨〉210쪽 13400원(컬러) <https://c11.kr/056yw>
 33. 詩11〈아내에게 바치는 시〉216쪽 15000원(컬러) <https://vo.la/sMZQe>
 34. 詩12〈일상의 기적〉210쪽 15000(컬러) <https://vo.la/nuqyDD>

4〈말씀묵상〉시리즈

35. 묵상1〈따뜻한 밥상-아침1〉400쪽 14300원 <https://c11.kr/05yw>
 36. 묵상2〈따뜻한 밥상-아침2〉398쪽 17300원 <https://c11.kr/034yw>
 37. 묵상3〈따뜻한 밥상-점심1〉402쪽 14400원 <https://c11.kr/014yw>
 38. 묵상4〈따뜻한 밥상-점심2〉398쪽 14300원 <https://c11.kr/025yw>
 39. 묵상5〈따뜻한 밥상-저녁1〉400쪽 14300원 <https://c11.kr/020yw>
 40. 묵상6〈따뜻한 밥상-저녁2〉398쪽 17300원 <https://c11.kr/038yw>
 41. 묵상7〈따뜻한 밥상-저녁3〉398쪽 17000원 <https://c11.kr/052yw>
 42. 사진1〈겨울 묵상〉218쪽 13900원(올컬러) <https://c11.kr/041yw>
 43. 어록1〈마태-예수어록〉 692쪽 28000원 <https://vo.la/igbiT>
 44. 어록2〈마가-예수어록〉 324쪽 15000원 <https://vo.la/MgYzqw>

5〈경건기도〉시리즈

45. 〈세상에서 가장 좋은이야기〉722쪽 24300원 <https://c11.kr/03yw>
 46. 〈세상에서 가장 밝은이야기〉720쪽 23900원 <https://c11.kr/04yw>
 47. 〈새벽우물(3판)〉878쪽 28700원 <https://c11.kr/013yw>
 48. 〈플러스 예화〉490쪽 17000원 <https://c11.kr/021yw>
 49. 생각1〈만사록 1권-생각〉 304쪽 15000원 <https://vo.la/DJzmdb>

6〈주보자료〉시리즈

50. 주보1〈맛있는 주보+파일〉220쪽 14000원(컬러) <https://c11.kr/042yw>
 51. 주보2〈멋있는 주보+파일〉220쪽 14000원(컬러) <https://c11.kr/043yw>
 52. 주보3〈폼나는 주보+파일〉220쪽 14000원(컬러) <https://c11.kr/044yw>
 53. 주보4〈담나는 주보+파일〉220쪽 14000원(컬러) <https://c11.kr/045yw>
 54. 주보5〈양육 주보+파일〉220쪽 14000원(컬러) <https://c11.kr/046yw>
 55. 주보6〈전도 주보+파일〉220쪽 14000원(컬러) <https://c11.kr/047yw>
 56. 주보7〈명품 주보+파일〉220쪽 14000원(컬러) <https://c11.kr/048yw>
 57. 주보8〈좋은 주보+파일〉220쪽 14000원(컬러) <https://c11.kr/049yw>
 58. 주보9〈감사 주보+파일〉220쪽 14000원(컬러) <https://c11.kr/050yw>
 59. 주보10〈기도 주보+파일〉220쪽 14000원(컬러) <https://c11.kr/051yw>

7〈들꽃편지 합본〉기타

60.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534쪽 31,800원(컬러) <https://c11.kr/035yw>
 61. 〈들꽃편지1권-고마리꽃〉508쪽 18600원 <https://c11.kr/030yw>

- 62.〈들꽃편지2권-쑥부쟁이꽃〉504쪽 21200원 <https://c11.kr/040yw>
- 63.〈들꽃편지3권-산부추꽃〉508쪽 21100원 <https://c11.kr/054yw>
- 64.〈들꽃편지4권-동자꽃〉512쪽 21300원 <https://c11.kr/055yw>
- 65.〈들꽃편지5권-참꽃〉528쪽 21900원 <https://c11.kr/063>
- 66.〈들꽃편지6권-금계국꽃호〉504쪽 21000원 <https://c11.kr/064yw>
- 67.〈들꽃편지7권-민들레호〉510쪽 21100원 <https://c11.kr/065yw>
- 68.〈들꽃편지8권-영경귀꽃호〉510쪽 21100원 <https://c11.kr/066yw>
- 69.〈들꽃편지9권-분꽃호〉510쪽 21100원 <https://c11.kr/067yw>
- 70.〈들꽃편지10권-천인국꽃호〉504쪽 21000원 <https://c11.kr/068yw>
- 71.〈들꽃편지11권-괴꽃호〉506쪽 21000원 <https://c11.kr/069yw>
- 72.〈들꽃편지12권-장미꽃호〉504쪽 21000원 <https://vo.la/WJljq>
- 73.〈들꽃편지13권-도라지꽃호〉512쪽 21300원 <https://vo.la/4iITA>
- 74.〈들꽃편지14권-작약꽃호〉508쪽 21100원 <https://vo.la/bRSd4>
- 75.〈들꽃편지15권-노란꽃호〉510쪽 30200원(컬러) <https://vo.la/w3uUN>
- 76.〈들꽃편지16권-고구마꽃호〉510쪽 30200원(컬러) <https://vo.la/IIIbn>
- 77.〈들꽃편지17권-데이저꽃호〉510쪽 30,200원(컬러) <https://vo.la/KOd1P>
- 78.〈들꽃편지18권-사철채송화호〉510쪽 30,200원(컬러) <https://vo.la/lqxAc>
- 79.〈들꽃편지19권-모과꽃호〉510쪽 30,200원(컬러) <https://vo.la/hDgNf>
- 80.〈들꽃편지20권-호박꽃호〉510쪽 30,200원(컬러) <https://vo.la/ESYUs>

최용우 책방 티스토리 <https://cyww.tistory.com/>

최용우 페이스북 <facebook.com/cywwkr>

최용우 유튜브 주소 <https://c11.kr/youtu>

2024.11.18까지